

제3권 제1호
2012

한국이민학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연구논문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분석

정양화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

반미희 · 김석호 · 이정환

한국내 외국인 무슬림들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과정

김예찬



한국이민학회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한국이민학

2012년 제3권 제1호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화: (063) 270-2917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회 임원진

회 장 단

회 장 한 경 구(서울대학교)

차 기 회 장 이 철 우(연세대학교)

부 회 장 정 기 선(IOM이민정책연구원) 허 재 준(한국노동연구원)

박 경 태(성공회대학교) 장 수 현(광운대학교)

감 사 이 충 훈(서강대학교) 이 창 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 사

총 무 이 사 한 건 수(강원대학교) 편 집 이 사 설 동 훈(전북대학교)

연 구 이 사 이 규 용(한국노동연구원) 기 획 이 사 이 진 영(인하대학교)

섭 외 이 사 김 이 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 제 이 사 김 현 미(연세대학교)

한국이민학

2012년 제3권 제1호

연구논문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분석 정양화	5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 반미희 · 김석호 · 이정환	37
한국내 외국인 무슬림들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과정 김예찬	67

부록

한국이민학회 정관	159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167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171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173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178

편집위원

설동훈(위원장, 전북대) 김현미(연세대) 서정민(연세대) 윤홍식(인하대)
이규용(노동연구원) 이병하(서울시립대) 이승미(우석대) 이정환(청주대)
조현미(경북대) 최현(제주대) 최홍엽(조선대) 한건수(강원대)

편집간사

박순영(전북대) 고재훈(전북대) 이태훈(전북대)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3 No.1 2012

Contents

ARTICLES

-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 Yang-Hwa Jung
 - Stres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 Mihee Ban, Seokho Kim, and Jungwhan Lee
 - Soci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Foreign Muslim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Mosque in Jeonju
| Ye-Chan Kim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연구논문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 결정요인 분석*

정양화**

이 글의 목적은 2011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및 문화 지원사업을 위한 욕구 조사』의 원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는 어머니의 언어의 통합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국가 정책에서 다문화 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여야 할 경우, 다문화 아동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른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중회귀분석 결과, 어머니들의 한국어 실력과 독립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변수인 자긍심, 사회적 자본인 어머니의 지지, 교사와의 관계가 다문화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자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는 데 아동의 자긍심, 어머니의 지지, 아동과 교사의 관계를 증진하는 정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다문화가족 아동, 다문화가족 어머니, 학업성취, 어머니의 지지, 자긍심, 아동-교사 관계

* 이 글은 2011년 12월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다듬은 것이다.

**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yanghwa7@gmail.com.

I. 서론

한국사회는 외국인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선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외국인 주민 수는 1,265,006명으로 주민등록인구 전체 50,515,666명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1). 2010년 현재 국제결혼 건수는 34,235건으로, 국내 전체 결혼의 10.5%를 점유할 정도로 일반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았다(통계청, 2010).

높은 국제결혼 비중과 함께 주목할 만한 현상은 다문화아동 수의 증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다문화아동은 151,154명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전국의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 수는 38,890명으로,¹⁾ 2006년과 비교하여 약 4배 증가했다(표 1, 표 2 참조). 현재 6세 미만의 다문화아동이 전체 다문화아동 중 62%(93,537명)를 차지한다는 통계로 미루어볼 때, 초·중·고교의 다문화가족 아동 수는 향후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들어 다문화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났고, 학계에서도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아동에게 있어서 정체성 혼란, 부정적 자아개념, 부모의 언어문제, 부모의 학업 지원의 문제, 학교 생활적응, 학업성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런데 이러한 다문화아동 연구들은 대부분 학교 생활적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다른 분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장 미흡한 연구 분야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 분야다. 학업성취란 향후 어떠한 계층을 차지하게 되고, 또 어떤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무척 중요하다.

학업성취가 미래의 계층과 지위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일반아동에 관한 학업성취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축적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일반아동에 대한 학업성취는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형제자매 수,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 부모 기대수준, 부모의 문화 취향, 학생의 성별, 학생의 자긍심, 학생의 나이, 가족 간의 의사소통수준, 가족구조, 무료급식 여부, 과외 여부, 이웃 간의 신뢰 관계 등이 어떻게 학업성취에 작용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검증됐다(김광혁, 2006, 2008; 김현숙, 2011; 김현주·이병훈, 2007; 오계훈·김경근, 2001;

1)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아동’을 국제결혼가족 아동과 외국인근로자가족 아동을 합한 범주로 파악한다. 다문화가족 아동 수 38,890명은 국제결혼가족 아동 36,676명과 외국인근로자가족 아동 2,214명을 더한 결과이다.

〈표 1〉 초·중·고등학교 재학 국제결혼가족 아동현황, 2006-2011년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1,588	413	13,445
2008	15,804	2,205	760	18,769
2009	20,632	2,987	1,126	24,745
2010	23,602	4,814	1,624	30,040
2011	27,285	7,246	2,145	36,67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각급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1.

〈표 2〉 초·중·고등학교 재학 외국인근로자가족 아동 현황, 2006-2011년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06	1,115	215	61	1,391
2007	755	391	63	1,209
2008	981	314	107	1,402
2009	834	307	129	1,270
2010	1,099	446	203	1,748
2011	1,463	489	262	2,214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시도별 각급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2011.

이선희, 2008; 임세희·이봉주, 2009; 장상수·손병선, 2005; 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반면, 다문화아동들의 경우는 국제결혼가족이라는 특수한 가정환경을 가지는 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특히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관한 정량적 연구가 부족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설동훈·김순규(2005)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아동은 가구 소득이 낮아서 일반아동보다 교육적 지원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비율은 14.5%로, 우리나라 일반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인 56.8%보다 현저히 낮다. 이런 낮은 가구소득은 취학 후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조선족 포함), 일본, 필리핀 출신 어머니들의 50% 이상이 다문화아동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힘들 것으로 여겨진다.

오성배(2005)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아동의 외모의 차이, 어머니가 외국 출신이라는 점이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어머니

니들은 자녀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외국출신 어머니가 한국에 오래 거주했다고 해도,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체계적인 문장 이해력과 작문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문화아동의 학업을 도와주지 못했다.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및 한국어 능력, 수업시간의 집중도, 규칙준수, 문화이해 능력 등은 학부모의 자녀학습지도능력,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아동의 연구들은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떠한 요인이 상대적 중요성을 띠는지를 알 수 없으며,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다중회귀분석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은 배경요인이 서로 매우 다르므로, 다문화아동의 배경요인을 중심으로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제결혼 가족 아동이다. 다문화가족 아동 중에서 국제결혼가정 아동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은 그들이 다문화가족의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국제결혼 가족은 다른 다문화가족(새터민, 외국인근로자 가정 등)과는 다르게 인구구성, 결혼방식, 거주지, 가정문제 등이 매우 다르므로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다르게 설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유형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모두 분석하기보다는 국제결혼 가족 아동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아동에 대한 학업성취에 대한 결정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요인들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으로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II. 이론적 고찰

1. 기본 개념

1)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²⁾ 또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며, 국제결혼가정, 이중문화가정, 혼혈인가정 등을 지칭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고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첫째,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또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해 이룬 가정이나 본국에서 결혼한 가족이 함께 국내에 이주해 가정을 이룬 경우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입국해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민 가족을 포함한다.

다문화가족이란 최소 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우리가 접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형태와 배경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국제결혼 가족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가족 형성의 기원은 한국전쟁에서 찾을 수 있으며 기지촌 성매매가 조직화되기 이전인 1945-1950년대 외국인에 의한 데이트 강간, 성매매 등 다양한 과정에 의해 출생한 혼혈인 1세대 가정과 미군 기지촌이 산업화한 1960년대 이후 한국여성들이 미군 병사와 가정을 이루어 출생한 혼혈인 2세대 가정으로 나뉜다(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 박경태·안태숙·남현주, 2006). 혼혈인 1세대는 대부분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라는 사회적 인식 및 큰 사회문제로 인식됐으며 한국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단적인 편견을 나타내는 ‘양공주’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감으로 국제결혼을 택하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결혼을 통해 선진국으로 이민을 선택하였다.

- 2)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은 사회적으로 학술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가족과 가정은 사회적 단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의 같으나 가정은 가족을 포함한 환경적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이 환경을 배제한 사회적 단위로서의 ‘가족’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웹스터 사전에 의한 가족·가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유영주, 1980 참조). 가족: ① 어떠한 신념, 종교, 철학 등으로 연결된 사람들, ②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③ 부모와 그들이 양육하는 자녀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회적 단위, ④ 조상이나 결혼 때문에 관계를 갖게 되는 집단(친족), ⑤ 같은 조상으로부터의 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친족이나 동족), ⑥ 같은 근원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사물의 집단(생물, 생태학, 언어학, 수학 등). 가정: ① 한 개인이나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거주지를 의미), ② 인간이 태어났거나 양육된 장소(고향·본국), ③ 집(가정)으로 생각되는 장소, ④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 구성원과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혼으로 파괴된 가정), ⑤ 고아나 늙고 무력한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인 보육원·양로원·수용소, ⑥ 원산지 또는 발상지, ⑦ 많은 게임에서 고을, 결승점을 의미(특히 야구에서 본루로 사용함).

〈표 3〉 연도별 혼인 건수, 2005-2010년

	(단위: 건,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혼인건수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
외국인과의 혼인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총 혼인 중 비중)	(13.5)	(11.7)	(10.9)	(11.0)	(10.8)	(10.5)
한국남성+외국여성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한국여성+외국남성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연보(혼인)』, 2010.

따라서 1980년대 말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국제결혼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군아내인 한국여성에 관한 것으로 국내보다는 미국에서의 이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혜경, 2005). 이후 종교적 이유로 인해 집단 국제결혼이 진행되기도 하였는데 서울 올림픽을 기념한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으로 일본인과의 국제 결혼사례 수가 급증하였다. 그 후에도 꾸준히 합동결혼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내 다문화 가족의 큰 비율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하나로 중국조선족과 결혼이 이루어지면서부터 국제결혼이 급증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는데 외국여성과의 혼인은 76.7%, 외국남성과의 혼인은 23.3%를 차지하며 자세한 수치는 <표 3>과 같다. 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는데 외국여성의 국적의 경우 1996년 중국인 부인의 위장 결혼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중국에서 필리핀, 태국, 몽골 등 다양화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더욱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2010)의 『한국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한국 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000년 210,249명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여 2009년 870,636명으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새터민의 경우 2000년 312명에 불과하던 입국자가 2009년 기준 2,927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다문화가족 형성의 원인을 가리켜 김인(2009)은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 진입은 기존 다른 나라와의 방식과는 다르게 발전하였다고 구분하였다. 즉 오늘날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바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이라 언급하며 한국사회 내 다문화 현상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급격한 도시화로 농어촌에 사는 결혼 적령기의 남자들이 결혼할 여성 배우자를 찾지 못하게 된 점, 둘째, 우리나라가 1960-190년대에는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1988년 이후 아시아인이 선호하는 이주노동자 유입 국가로 변화된 점, 셋째, 북한 사회의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북한을 탈출한 난민인 새터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때문에 다문화 사회 진입이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외부의 강압이나 우연에 의해 생겨난 것보다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불가피한 현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미군과의 결혼, 이민 및 종교적 집단 국제결혼,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이주노동자 유입, 새터민 정착 등의 이유로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 다문화가족 아동

다문화가족 아동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그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아동을 말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6년도에 기존 ‘혼혈아’, ‘코시안’으로 불림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가치 중립적 용어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지칭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억제하려 하였다. 다문화가족 아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다문화가족 아동은 정체감의 혼란과 그로 인한 부정적 자아개념 등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다문화가족 아동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이중문화 정체성을 지니거나 확신하지 않은 정체성을 보이며 혼돈을 겪고 있는데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에 따르면 신체적 자아개념이 고학년이 될수록 저학년이나 중학년보다 좀 더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가정적 자아개념의 경우 다른 어느 하위 영역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렇듯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닌 정체성의 혼돈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인해 우울, 불안,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행동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의 불안 및 타인의 차별과 무시로 생긴 부정적인 자아상은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근원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아동은 부모가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한쪽 부모가 한국어 사용에 미숙해서 적절한 언어습득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아동의 경우 언어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어머니 역시 언어문제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 부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아동들이 더욱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언어문제는 단순히 한글을 읽고 쓰는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 자본으로서의 언어 유형에 익숙지 않은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문화 부적응의 어려움마저 겪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문제이다. 즉, 언어는 다문화가족 아동이 겪는 어려움의 핵심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셋째, 언어문제는 학업 부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은 대부분 교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대 교과목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언어문제로 인해 국어 과목이 매우 뒤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설동훈·김순규(2011)의 연구에서는 국어사용 능력의 부족이 전반적인 교과학습 결손을 가져오고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일반 가정 학생들과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모의 언어능력 한계 및 교육부재 현상으로 인해 아동의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습 결손은 더욱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학업성취

김경근(1996)은 학업성취란 광의의 의미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터득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학습결과를 포괄한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수한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고 다음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업성취는 인지적 영역의 학습결과이자,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이다. 인지적 학업성취는 흔히 등수, 시험점수, 내신성적, 수능 성적 등의 표시로 나타낸다(김현숙, 2011). 한국사회에서 각종 선발의 기준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성적’이고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는 거의 도외시된다(김경근, 1996). 학업성취의 연구들이 정의적 영역의 학습결과를 도외시하는 것은 통계적 측정의 한계와 관련 있으며, 또한 한국사회에서 인지적 학업성취가 사회 지위를 예상해보는 실용적인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성취에 배경요인의 영향의 유무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종속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 학업성취를 상급 교육단계의 진입이라고 보는 연구와 ‘좋은 성적’이나 ‘질적’으로 상위 위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김현주·이병훈, 2007).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의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이므로, 중학교 학생이나 고등학생과 달리 상급 위계의 교육기

관으로 진학하는 여부라고 학업성취를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들의 상급 위계의 교육기관은 대부분 평준화된 중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를 ‘좋은 성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일반 아동에게 이루어진 결정요인 분석 연구들과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 관련 연구들에 기초하여 결정요인을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준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1) 미시수준

이미정(1998)의 연구에서는 차별적 가족자원 배분이 가족 수가 적은 가족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족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가난한 가정에서는 딸을 차별대우하는 식의 자원 배분이 일어나, 여성의 학업성취가 낮았다. 김경근(1996)은 학업성취의 성별의 차이가 감소하는 있는데 그 이유가 경제 수준이 호전되고, 자녀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자녀 교육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희박해짐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혜경(2009)의 논문에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올라가며, 학업성취를 이룬다고 보고하였다. 김용래(1987)도 자아개념이 IQ보다도 학업 성취도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시수준의 요인 중 아동의 성별, 자긍심이 학업성취의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위수준

교사와 아동의 관계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고 본 연구도 있다. 로젠탈과 제이컵슨(Rosenthal and Jacobson, 1966)은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연구에서, 선생님에게 특별한 아이라는 인식을 얻은 아동이 실제로 IQ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다. 이는 어린 학생일수록, 낮은 계층의 아이들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자성적 예언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 행위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높은 기대를 하는 아동들이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칭찬하였고 더 많은 기대충족을 요구했다. 반대로, 그들이 낮은 기대를 하는 학생들이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칭찬을 덜 하였고 그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받아들이기만 했다. 이러한 교사의 기대는 자기완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역할을 하였다(Brophy and Good, 1970).

김현숙(2011)의 연구는 비빈곤 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적 관심과 대화가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동범(1998)은 부모의 자녀지지가 자녀의 학업성적을 향상하고, 이러한 지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전적 의존을 한다고 분석했다.

매클란(McLanahan, 1985)에 의하면 결손가족은 일반가족보다 경제 자원이 부족하여, 아동의 학업성취가 낮았다.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2009)의 연구에 의하면,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아동은 학교의 중도탈락률이 높았다. 중도입국 다문화가족 아동은 한국어 능력이 전혀 없어서 학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들은 어머니의 교육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버지도 중도입국 자녀와 언어가 통하지 않아 학업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만 면담 시어머니와 한국어가 통하지 않아 더욱 학업성취가 어려웠다고 밝히고 있다.

김현숙(2011)은 빈곤 학생의 경우 형제자매 수가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미정(1998)의 연구에서는 남자 형제의 존재가 여자 형제의 존재보다 여성의 교육에 더 치명적이고, 여자 형제의 수는 일관된 부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형제자매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높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오계훈·김경근, 2001). 또, 이미정(1998)의 연구에서는, 동생의 존재가 여성의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남동생의 존재가 여성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컸다. 이는 남동생 때문에, 여성의 교육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학업성취에 가장 강력한 요인(Haveman and Wolfe, 1994)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국내 연구(오계훈·김경근, 2001)도 있다. 구인회(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졌다.

오성배(2005)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는 다문화가족을 심층 면접했는데 설동훈 등(2005)의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이 74.4%이고, 그의 남편의 학력도 그와 유사했다는 연구결과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이 본국에서 취업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91.0%), 전문경영직(26.5%), 사무직(35%)에 종사한 예도 많다고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으므로 다문화아동의 성장 과정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별개인 환경적 요인이 있으리라 파악하였다. 다문화아동의 낮은 학업성취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어실력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능력이 낮은 어머니일지라도 자녀의 학업을 돌봐주기 위

하여 노력하였지만,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노력은 학업성취를 높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국에 오래 거주한 어머니일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으나, 체계적인 문장 이해력과 작문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조선족 출신의 어머니일 경우에도 생소한 단어나, 문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조영달(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국제결혼가정 2세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아 언어능력이 부족했고 그것이 학습 부진을 초래함을 발견했다.

호프만(Hoffman, 1974)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은 가정 수입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수입이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직·브라이언트·외스터바카(Zick, Bryant and Österbacka, 2001)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았다. 즉, 취업한 어머니는 자녀에게 숙제, 독서 활동에 더욱 관여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학업성취가 더욱 높였던 것이고 또한 아버지도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자녀에게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 모두의 높은 교육적 관여가 자녀에게 학업성취를 높이고 있었다. 반면, 학령기전 동안 엄마의 취업은 아이의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

요컨대, 선생님 관계, 어머니 지지, 재혼 가족, 형제자매 수,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 한국어 실력, 어머니 취업 여부가 중위수준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3) 거시수준

가족소득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김현주·이병훈, 2007), 빈곤이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광혁, 2006), 저소득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가 낮다는 결과(김광혁, 2008; 오계훈·김경근, 2001)가 있다. 반면, 구인회 외(2006)의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소득은 학업성취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거주지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연구는 계속됐는데, 도시와 농촌 중학생의 학업성적을 비교한 연구인 김의철·박영신·곽금주(1998)의 연구에서 도시 청소년은 농촌 청소년보다 학업성적이 좋았으며, 박영신·박영균·김의철·한기혜(2011)의 연구에서 도시 청소년이 농촌 청소년보다 객관적 학업성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분석에서 연구 결과의 근거는 도시 부모가 농촌 부모보다 자녀에 학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고,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정선(2005)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교육기회의 접근 및 결과에 밀접히 관련이 있어서,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2010)의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별로 학력, 직업,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업 등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다문화아동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거시수준의 요인 중 가족소득, 거주지, 어머니의 출신국 유형이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에 사용된 주요 독립변수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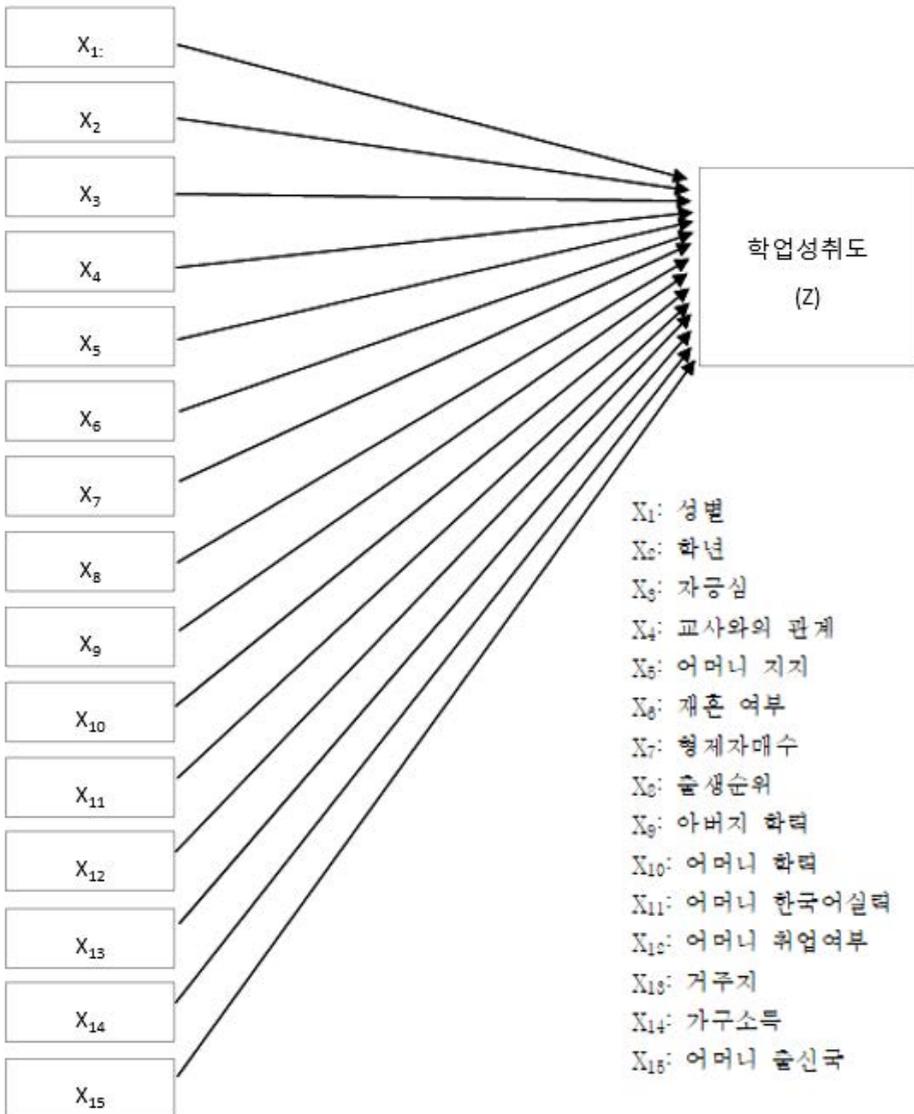
<표 4> 이동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한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 정리

연구자	대상	변수
김현숙 (2011)	일반 아동	인적자본: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사회자본: 형제자매수, 교육관심과 대화, 학교교육활동 참여, 부모기대, 부모훈육, 부모유형, 모취업 여부 문화자본: 부모의 문화취향
장상수·손병선 (2005)	일반 아동	학생수준변수: 성, 부모남학력, 부모직업지위(택1), 가족구조, 부모의 직업적 지위, 가족부(기준: 화장실 수, 휴대전화 수, 기타 재화의 소유 정도), 형제자매수,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학습조력, 학생의 직업열망, 경쟁적 학습태도 학교수준의변수: 계열 학교소재지, 고교평준화, 학교 학부모의 교육수준 평균, 학교 학부모의 직업지위 평균, 학교수준의 가족 부, 학교의 성취압력, 학교수준의 직업열망
이선희 (2008)	일반 아동	가족구조, 성별, 형제자매수 과외여부(합), 교육포부, 부모학력, 무료급식, 대화빈도, 지원빈도
오계훈·김경근(2001)	일반 아동	가족구조, 성별, 형제자매수, 과외여부, 교육포부, 부모학력, 대화빈도, 지원빈도
김광혁 (2008)	일반 아동	이웃과 신뢰 및 통합, 비공식적 아동 감독, 가족소득(육구소득비), 부모 교육수준, 가족구조(한부모여부), 아동의 성
임세희·이봉주(2009)	일반 아동	아동의 성별,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가구소득, 모(부)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사교육비, 부모양육행동(학대)
김광혁 (2006)	일반 아동	아동성별, 형제순서, 가족구조, 부모학력, 빈곤, 이웃환경, 가족기능, 사교육, 자기 신뢰감
정익중·권은선·박현선(2011)	일반 아동	개인요인: 성별, 비행, 자이존증감 가족요인: 빈곤여부, 결손가족 여부, 부모의 사교육 지원, 자녀에 대한 학업기대, 가정내 인지적 자극,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 비행또래집단, 학교유대감, 긍정적 학교환경
김현주·이병훈(2007)	일반 아동	성별, 학교급, 학교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학생 자긍심, 이성친구 유무, 부친학력, 부직업, 모학력, 모 취업, 가구 소득, 자산총액, 문화생활비, 사교육비, 학생의 방 유무, 학생의 가족 대화, 학생에 대한 관심, 학생의 문화활동, 교사자원 점수, 친구자원, 학교환경

Ⅲ.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것들이 통계적으로 독립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1>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분석모형



IV. 자료와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1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및 문화 지원사업을 위한 욕구 조사』의 원자료이다(설동훈·김순규, 2011). 조사대상은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인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지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아동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문의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 표집방식은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하에 지역별 결혼이민자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명단을 확보하여 실시되었다. 제1차 조사는 2011년 5-6월 2개월간 전북과 충남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제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 부진한 국적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전남과 지역을 추가하여 2011년 7월에 실시하였다. 사례 수는 313명의 다문화아동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313명을 포함한 313사례다. 설문지는 학생의 가정배경 관련 설문 외에 별도로, 이중언어 및 문화 지원사업 등을 위한 다른 질문이 포함되어, 다문화아동에게 총 19개의 문항과 각각 하위질문이, 그의 어머니에게 총 60개의 문항과 관련 하위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표본 수가 기존 다문화아동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다문화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동시에 설문하였다는 점, 비교적 전국적 규모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2. 연구방법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립변수들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고, 또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3.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어머니에게 “귀하의 초등학교 자녀의 이번 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인가요?”를 물었다. 하위질문은 4개 영역 전체성적, 국어,

수학, 영어이고, ‘매우 못하는 수준’(1점)부터 ‘매우 잘하는 수준’(5점)에 이르는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전체 평균값을 내었다.

2) 독립변수

(1) 미시수준

①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은 다문화아동에게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를 물었다. 1점은 남자 0점은 여자이며, 여학생을 기준집단으로 삼았다. 학년은 다문화 아동에게 “학생은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를 물었다. 1은 1학년, 2는 2학년, 3은 3학년, 4는 4학년, 5는 5학년, 6은 6학년을 의미한다.

② 심리적 변수: 자긍심은 하나의 변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신뢰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hronbach's alpha)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값(이하 α 값)이 0.6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데 만족도의 α 값이 .748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위질문으로 ‘나는 나 자신을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3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와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편이다’ 3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를 역코딩하여, 총 6개의 합인 평균값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높음을 나타낸다.

(2) 중위수준

① 사회적 자본 변수: 선생님 관계는 어머니에게 ‘귀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를 물었다. 매우 불만이다(1)~매우 만족한다(5) 1문항과, 그의 자녀에게 “학생은 현재 다니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를 물어 매우 만족한다(1)~매우 불만이다(5) 1문항을 역코딩한 값을 이용하여 평균을 산출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선생님 관계가 좋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지지는 “귀하는 자녀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해 다음의 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를 물었다. 하위문항은 각각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 ‘숙제확인’, ‘공부 직접지도’, ‘준비물 챙겨주기’, ‘자녀와의 대화’, ‘자녀 친구들을 집에 초대’, ‘자녀 칭찬하기’, ‘어머니회 등의 학교 봉사 활동’ 모두 8개 문항의 하지 않는 편이다(1)~매우 자주 한다(3)는 총합의 평균값이다. 지수의 신뢰도 검정은 크론

〈표 5〉 분석에 포함된 변수의 측정

변수		응답자	측정
종속변수	학업성취	어머니	매우 못하는 수준(1) ~ 매우 잘하는 수준(5)
독립변수	사회인구학적변수	성별	아동 여자=0 남자=1
	심리적변수	학년	아동 1학년=1 2학년=2 3학년=3 4학년=4 5학년=5 6학년=6
		자긍심	아동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5)
	사회적자본	선생님관계	어머니·아동 매우 불만이다(1) ~ 매우 만족한다(5)
		어머니 지지	어머니 하지 않는편이다(1) ~ 매우 자주한다(3)
	가족구성	재혼가족	어머니 중도입국자녀=1, 일반자녀=0
		형제자매수	어머니 아동의 형제 자매수
		출생순위	어머니 첫째자녀=1, 둘째자녀=2, 셋째자녀=3, 넷째자녀=4
	부모의인적자본	아버지 학력	어머니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학=5 대학원=6
		어머니 학력	어머니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학=5 대학원=6
		어머니 한국어실력	어머니 서툰편이다(0) ~ 매우 잘한다(16).
		어머니 취업여부	어머니 미취업=0, 취업=1
	가족의사회·경제적배경	거주지	아동 농촌=0 도시거주=1
		가구소득	어머니 월평균 가구 총소득
	어머니(이민자)출신국유형	중국	어머니 (기준집단)
		베트남	어머니 베트남=1, 기타=0
		필리핀	어머니 필리핀=1, 기타=0
		일본	어머니 일본=1, 기타=0
기타나라		어머니 기타나라=1, 기타=0	

바하의 알파 값 사용하였다. 신뢰도 값(이하 α 값)이 0.6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지지와 대화의 α 값은 .753이므로, 신뢰할 수 있다. 어머니 지지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지지가 높음을 나타낸다.

② 가족구성 변수: 재혼가정은 중도입국자녀이면 1점, 아니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아동의 형제자매 수는 아동의 어머니에게 “귀하의 한국인 배우자(동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몇 명입니까?”라고 물었다. 아동 본인을 포함, 1명부터 4명까지 존재한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아동의 어머니에게 “자녀들의 생일 성별 취학 여부를 첫째 자녀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를 물었다. 자녀들의 생년월일의 응답지와 다문화아동에게 “학생은 언제 태어났습니까”를 물어 동일한 생년월일을 추출하여 출생순위를 식별하였다. 1은 첫째, 2는 둘째, 3은 셋째, 4는 넷째를 의미한다.

③ 부모의 인적자본 변수: 아버지 학력은 어머니에게 “귀하의 배우자는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습니까?”를 물었다. ‘무학’(1점) ‘대학원’(6점)에 이르는 값으로 측정하였다. ‘잘 모름’은 무응답 처리하였다. 어머니 학력은 어머니에게 “귀하는 학교를 어느 수준까지 다녔습니까?”를 물었다. ‘무학’(1점) ‘대학원’(6점)에 이르는 값으로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은 “귀하의 한국어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를 물었다. 하위질문은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이고 ‘잘하는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서툰 편이다’(2점), ‘매우 서툴다’(1점)의 총합의 결과이다.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점수는 1점부터 16점까지 존재한다. 어머니 취업은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를 물었다. 1점은 취업, 0점은 미취업으로 미취업을 기준집단으로 삼았다.

(3) 거시수준

①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가구소득은 어머니에게 “귀하의 월평균 총소득의 대략 얼마입니까?(세금 공제 전)”라고 물었다. 가구소득은 월평균 가구 총소득(단위: 원)으로 측정하였다.

거주지는 ‘동’ ‘읍’ ‘면’으로 ‘동’을 1점으로 ‘읍’과 ‘면’을 0점으로, 즉 농촌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도시거주’로 가변수로 만들었다.

② 이민자(어머니) 출신국 유형: 출신국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일본,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디아가 있었으며, 중국을 기준집단으로 베트남을 1, 필리핀을 2, 일본을 3, 사례 수가 적은 태국,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인디아를 기타 나라로 분류하였다.

V.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은 <표 6>과 같다. 다문화아동의 아버지 연령대는 20대 1명(0.3%), 30대 33명(10.5%), 40대 224명(71.6%), 50대 55명(17.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대는 20대 79명(25.2%), 30대 150명(47.9%), 40대 81명(25.9%) 50대 3명(1.0%)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연령대는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대와 어머니의 연령대를 비교하면, 어머니의 연령대가 월등히 젊다.

부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38명(12.1%), 중학교 졸업 59명(18.8%) 고등학교 졸업 169명(54.0%), 대학 졸업 34명(10.9%), 대학원 졸업 9명(2.9%)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21명(6.7%), 중학교 졸업 49명(15.7%) 고등학교 졸업 152명(48.6%), 대학 졸업 84명(26.8%), 대학원 졸업 7명(2.2%)으로 나타났다. 부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고, 모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비교해보면, 모 학력이 부 학력보다 높다.

모 출신국은 베트남 88명(28.1%), 필리핀 96명(30.7%), 중국 73명(23.3%), 일본 38명(12.1%), 기타나라 18명(5.8%)로 나타났다. 모 출신국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기타나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제한된 몇몇 나라에서 입국함을 반영한다.

다문화아동의 어머니의 취업 상태는 취업 193명(61.7%), 미취업 113명(36.1%)이다.

다문화아동의 학년은 1학년 116명(37.1%), 2학년 36명(11.5%), 3학년 31명(9.9%), 4학년 35명(11.2%), 5학년 41명(13.1%), 6학년 32명(10.2%)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4학년, 5학년, 2학년, 6학년, 3학년 순으로 높다. 1학년이 매우 높은 것은, 국제결혼의 역사가 짧은 베트남 여성들의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아동의 성별은 남자 149명, 여자 164명으로 여자가 조금 더 많았고, 아동의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는 1명 59명(18.8%), 2명 171명(54.6%), 3명(19.2%), 4명 15명(4.8%), 5명(0.6%)가 있었다. 형제자매 수는 2명, 3명, 1명, 4명, 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형제자매수가 보통 1-2명인 것인 것을 뜻한다.

아동의 가족구조는 중도입국 가정인 재혼가정이 25명(8.0%), 중도입국 가정이 아닌 가구가 288명(92.0%)로 조사되었다.

거주지는 도시로 분류되는 동이 86가구(27.5%), 농촌으로 분류되는 읍이 67가구(21.4%), 면이 160가구(51.1%)로 도시 거주자들보다 농촌 거주자들이 많다.

가족소득은 150만원 미만인 98가구(31.3%),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56가구(17.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73가구(23.3%), 300만원 이상이 29가구(9.3%)로 나타났다. 가족소득은 15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순으로 높다. 가족소득 200만원 미만이 49.2%를 차지하여 저소득 가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명	%	변수	구분	명	%	
부 연령	20대	1	0.3	모 취업 여부	미취업	113	36.1	
	30대	33	10.5		아동 학년	1학년	116	37.1
	40대	224	71.6			2학년	36	11.5
	50대	55	17.6			3학년	31	9.9
모 연령	20대	79	25.2			4학년	35	11.2
	30대	150	47.9			5학년	41	13.1
	40대	81	25.9	6학년		32	10.2	
	50대	3	1.0	아동 성별	남	149	47.6	
부 학력	초등학교	38	12.1		여	164	52.4	
	중학교	59	18.8	아동의 형제자매 수 (본인 포함)	1명	59	18.8	
	고등학교	169	54.0		2명	171	54.6	
	대학	34	10.9		3명	60	19.2	
	대학원	9	2.9		4명	15	4.8	
5명	2	0.6	가족구조		재혼가정	25	8.0	
모 학력	초등학교	21		6.7	초혼가정	288	92.0	
	중학교	49	15.7	거주지	동	86	27.5	
	고등학교	152	48.6		읍	67	21.4	
	대학	84	26.8		면	160	51.1	
	대학원	7	2.2	가구소득	150만원미만	98	31.3	
모 출신국	중국	73	23.3		150-199만원	56	17.9	
	베트남	88	28.1		200-299만원	73	23.3	
	필리핀	96	30.7		300만원이상	29	9.3	
	일본	38	12.1	모 취업 여부	취업	193	61.7	
	기타나라	18	5.8		전체	313	100.0	

주: ‘전체 사례 수’와 ‘변수별 범주 사례 수의 합’이 다른 것은 무응답 범주가 포함되어 때문이다.

2. 상관관계 분석

<표 7>에서 학업성취와 주요변수들과 상관관계를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미시수준의 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아동의 성별과 학업성취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학년은 학업성취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심리적 변수인 자긍심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수준의 변수 중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와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보면 자긍심($r=.259$), 아동의 학년($r=.193$)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수준의 변수인 사회적 자본 변수, 가족구성 변수, 부모의 인적자본 변수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인 선생님 관계와 어머니지지 변수도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 변수 중 재혼가족은 학업성취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의 형제자매수와 아동의 출생순위는 학업성취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인적자본 변수 중 아버지학력은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상관관계가 없었고 어머니 학력,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어머니 취업여부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위수준의 변수 중에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와 상관관계 정도를 비교해보면 어머니 한국어실력($r=.310$), 어머니지지($r=.242$), 어머니학력($r=.224$), 선생님관계($r=.208$), 재혼가족($r=.120$)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수준의 변수인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어머니(이민자) 출신국 유형 변수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관계를 분석하였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중 거주지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가구소득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이민자)출신국 유형 중에서 어머니의 출신국이 베트남인 아동과 학업성취의 관계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나머지 필리핀, 일본, 기타의 나라에서 온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아동과 학업성취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아동 학업성취와 어머니 한국어실력($r=.310$), 자긍심($r=.259$), 어머니지지($r=.242$), 어머니 학력($r=.224$), 선생님 관계($r=.208$), 아동의 학년($r=.193$), 거주지($r=.128$), 어머니 출신국 베트남($r=-.145$), 재혼가족($r=-.120$) 순으

〈표 7〉 회귀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표

(N=313)

	Y	X ₁	X ₂	X ₃	X ₄	X ₅	X ₆	X ₇	X ₈	X ₉	X ₁₀	X ₁₁	X ₁₂	X ₁₃	X ₁₄	X _{15.1}	X _{15.2}	X _{15.3}	X _{15.4}	
Y 학업성취	1.000																			
X ₁ 아동의 성별 남제(D)	-.029	1.000																		
X ₂ 아동의 학년	.193**	.016	1.000																	
X ₃ 자긍심	.259**	-.040	-.070	1.000																
X ₄ 교사와의 관계	.208**	-.203**	-.085	.315**	1.000															
X ₅ 어머니 지지	.242**	-.049	-.112	.183**	.239**	1.000														
X ₆ 재혼 여부 중도입국(D)	-.120*	-.045	-.030	-.152**	-.020	.014	1.000													
X ₇ 아동의 형제자매 수	-.004	-.105	.251**	.022	-.019	-.052	-.044	1.000												
X ₈ 아동의 출생순위	.098	-.026	.205**	.002	-.066	-.042	.077	.291**	1.000											
X ₉ 아버지 학력	.027	.110	-.126*	-.028	-.026	.028	.139*	-.034	-.055	1.000										
X ₁₀ 어머니 학력	.224**	.099	.207**	.036	-.027	-.004	-.074	.070	.132*	.122*	1.000									
X ₁₁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310**	-.012	.223**	.052	-.047	.140*	-.131*	.079	.130*	.120*	.309**	1.000								
X ₁₂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D)	.028	-.060	.122*	.014	-.077	-.008	-.068	.015	.058	.000	.116*	.137*	1.000							
X ₁₃ 거주자 도시 거주(D)	.128*	.058	.044	.040	-.151**	.004	.003	-.047	-.047	.094	.049	.122*	.187**	1.000						
X ₁₄ 가구소득	.016	.025	.085	.045	-.069	.048	-.002	.002	-.048	.227**	.087	.102	.110	.225**	1.000					
X _{15.1} 어머니 출신국 베트남(D)	-.145*	-.013	-.349**	-.008	.052	.145*	.104	-.185**	-.166**	.080	-.506**	-.263**	-.055	.061	.023	1.000				
X _{15.2} 어머니 출신국 필리핀(D)	.065	.004	-.007	-.006	.057	.054	.008	-.013	-.101	-.154**	.414**	-.059	-.023	-.068	-.150*	-.416**	1.000			
X _{15.3} 어머니 출신국 일본(D)	.081	.057	.270**	.032	.001	-.168**	-.110	.305**	.387**	.013	.123*	-.008	.103	-.097	-.005	-.232**	-.247**	1.000		
X _{15.4} 어머니 출신국 기타(D)	-.048	-.016	-.098	.081	.007	-.132*	-.073	.015	-.057	-.038	-.037	-.105	.019	-.121*	-.037	-.154**	-.164**	-.092	1.000	

주: * p < 0.10, ** p < 0.05

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또한, 다문화아동 학업성취와 아동의 성별, 아동의 형제자매 수, 아동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가구소득, 어머니 출신국 필리핀, 일본, 기타 나라가 상관관계가 없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수준인 0.6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3.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 간의 관계 수준만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다른 변수들의 효과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아동의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여, 유의미한 영향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학업성취에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준의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탐색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모델 1은 미시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하여 아동의 성별, 아동의 학년, 자긍심 변수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모형의 유의수준은 $F=10.511$, $p<.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11.2%이었다. 미시수준의 요인 중 아동의 학년($p<.01$), 자긍심($p<.01$)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 모델 2는 중위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하여 선생님 관계, 어머니지지, 재혼가족, 아동의 형제자매수, 아동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어머니 한국어실력, 어머니취업여부가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모형의 유의수준은 $F=7.914$, $p<.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23.6%이다. 재혼가족($p<.10$)일수록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선생님 관계($p<.01$), 어머니지지($p<.01$), 어머니 학력($p<.05$), 어머니 한국어실력($p<.01$)이 학업성취를 높게 하는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모델 3은 거시수준의 변수만을 투입하여 거주지, 가구소득, 어머니 출신국 유형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회귀모형의 유의수준은 $F=1.942$, $p<.1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거시수준의 요인 중 거주지($p<.05$)가 도시일수록 학업성취가 높았다. 거시수준의 변수가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4.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 모델 중에서 중위수준의 모델이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표 8〉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 독립모형

(N=313)

	모델 1 미시수준		모델 2 중위수준		모델 3 거시수준	
	<i>b</i>	β	<i>b</i>	β	<i>b</i>	β
사회인구학적 변수						
아동의 성별(남자D)	-.031	-.018				
아동의 학년	.097***	.207				
심리적 변수						
자긍심	.350***	.276				
사회적 자본						
선생님 관계			.313***	.241		
어머니 지지			.039***	.164		
가족구성						
재혼가족			-.392*	-.117		
아동의 형제자매 수			-.068	-.063		
아동의 출생순위			.102	.073		
부모의 인적자본						
아버지 학력			-.007	-.007		
어머니 학력			.142**	.149		
어머니 한국어실력			.055***	.238		
어머니 취업(취업D)			-.030	-.01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도시D)					.303**	.159
가구소득					.000	-.009
어머니(이민자) 출신국 유형						
중국(기준변수)						
베트남					-.225	-.115
필리핀					.098	.050
일본					.181	.071
기타					-.078	-.019
상수	1.819***		.588		3.406***	
<i>R</i> ²		.112		.236		.049
수정 <i>R</i> ²		.101		.206		.024
<i>F</i>	10.511***		7.914***		1.942*	

주 * $p < 0.10$, ** $p < 0.05$, *** $p < 0.01$

〈표 9〉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분석: 종합모형

(N=313)

	모델 4 미시수준+거시수준		모델 5 중위수준+거시수준		모델 6 미시+중위+거시수준	
	<i>b</i>	β	<i>b</i>	β	<i>b</i>	β
사회인구학적 변수						
아동의 성별(남자D)	-.019	-.011			.034	.019
아동의 학년	.084**	.177			.089**	.184
심리적 변수						
자긍심	.435***	.336			.255***	.195
사회적 자본						
선생님 관계			.305***	.228	.237**	.178
어머니 지지			.060***	.232	.055***	.207
가족구성						
재혼가족			-.273	-.076	-.320	-.087
아동의 형제자매 수			-.117	-.098	-.148*	-.121
아동의 출생순위			-.004	-.003	.082	.054
부모의 인적자본						
아버지 학력			-.053	-.053	-.020	-.019
어머니 학력			.087	.089	.109	.104
어머니 한국어실력			.071***	.309	.062***	.260
어머니 취업(취업D)			-.122	-.067	-.108	-.057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거주지(도시D)	.274**	.141	.387***	.199	.343**	.172
가구소득	.000	.011	.000	-.030	.000	-.003
어머니(이민자) 출신국 유형						
중국(기준변수)						
베트남	-.088	-.042	.047	.024	.158	.074
필리핀	.117	.058	.255	.129	.237	.117
일본	.048	.019	.575***	.228	.387*	.153
기타	-.079	-.019	.214	.050	.222	.053
상수	1.407***		.601		-.536	
<i>R</i> ²		.172		.293		.367
수정 <i>R</i> ²		.135		.237		.298
<i>F</i>	4.687***		5.179***		5.316***	

주 * $p < 0.10$, ** $p < 0.05$, *** $p < 0.01$

<표 9>는 거시수준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미시수준의 변수와 중위수준의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4는 미시수준 변수와 거시수준 변수를 함께 투입한 모델이고 모델 5는 중위수준 변수와 거시수준 변수를 투입한 모델이며 모델 6은 미시, 중위 거시수준의 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델이다. 모델 4, 5, 6은 각각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17.2%, 29.3%, 36.7%를 설명하고 있다.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모형(full model)이 모델 6이므로, 모델 6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아동의 다문화아동의 성별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현대 사회가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 수가 적어짐에 따라 남아에게 집중되었던 교육 투자를 여아에게도 동등하게 투자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다문화아동이 남아 선호사상이 적은 출신국 배경을 지닌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취가 높아졌음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아졌다. 이는 이정선(1996)이 부모의 기대와 요구가 학업성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그는 부모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과 자녀의 학습 동기나, 자율적 학습습관을 유년기부터 생성시키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하였다.

재혼가족은 상관관계 결과와 독립모형 결과와는 다르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데 다른 변수들에 의해 그 강도가 약화하거나, 은폐됨을 알려주는 억제변수(suppressor variable)로 볼 수 있다.

형제자매 수는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김현숙(2011)은 빈곤학생의 경우는 형제자매 수가 학업성취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연구도 마찬가지로 빈곤 가정이 많아 형제간에 가족의 자원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지 못하는 변수였다.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출생순위가 낮을수록 형제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연구대상이 아직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이고, 형제들도 1-2명뿐인 학생들이 많아서 영향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 부모의 학력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지 못했고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요인이었다. 많은 선행연구와 달리, 아버지의 학력의 영향력이 없는 것은 한국이 가부장적 사회로 자녀의 교육을 맡지 않기 때문이며, 어머니의 학력이 영향력이 없고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의 영향력이

있던 것은, 질적 연구인 오성배(2005)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더라도, 다문화아동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자녀에 대한 지지 및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학업성취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미취업을 할지라도 자녀와 한국어로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조사대상이 취업자 중 비정규근무자가 많은데, 사실상 취업한 어머니와 미 취업한 어머니가 다문화아동과 지내는 시간이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가족소득은 다문화아동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학령기가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 배경에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Duncan, 1998)과 상반되고, 서울의 초등학교 4학년 1811명을 대상으로 한 구인회(2006)의 연구에서 가족소득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일관된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던 것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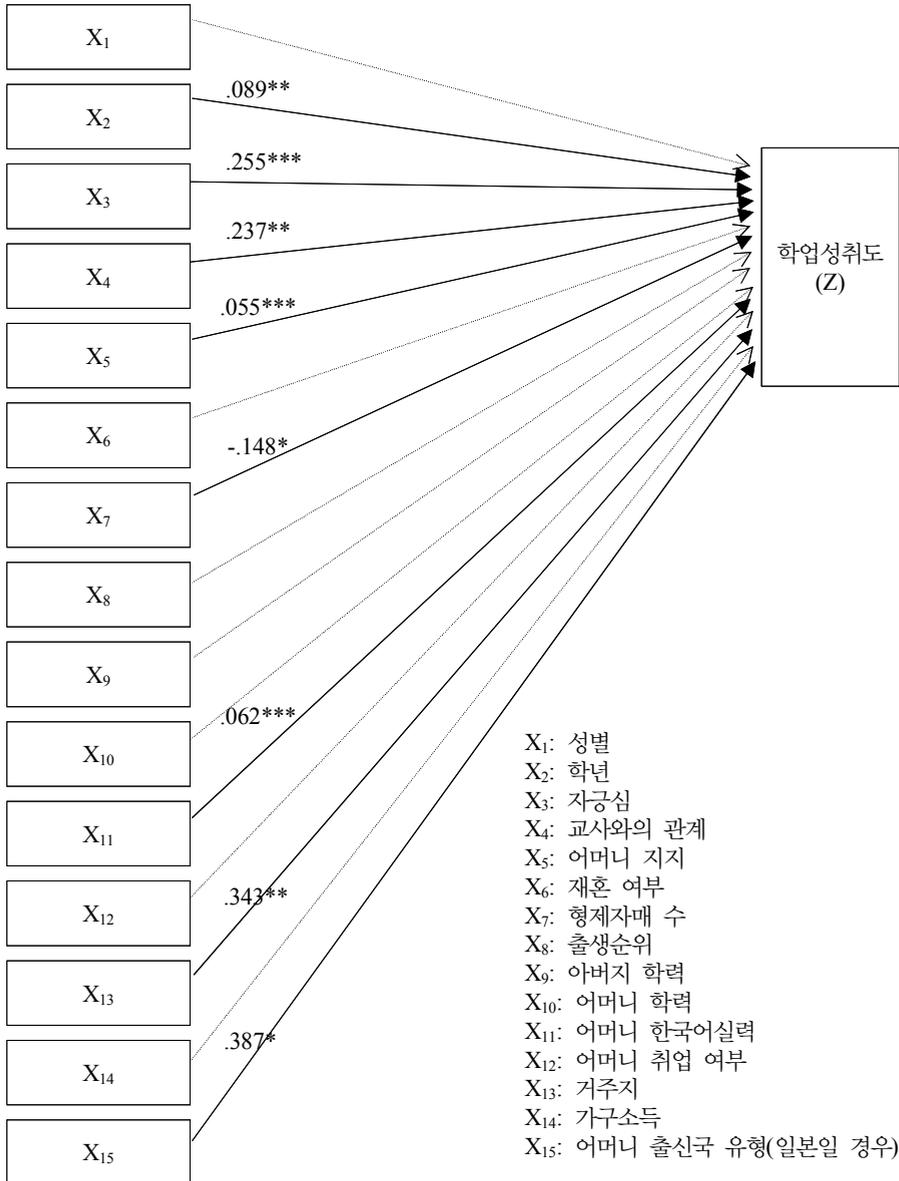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이 도시에 거주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았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낮은 교육기회의 접근과 관련이 있어서, 낮은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는 이정선의 연구 결과(2005)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일본인 어머니를 둔 아동이 학업성취가 높았다. 이는 일본인 출신국 어머니들이 비교적 한국에 오래 거주하여 한국어실력이 좋고, 학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도식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도식을 작성하였다. <표 9>의 모델 6의 결과에서 회귀계수 값이 적어도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들을 추려내어 실선으로 표시하고 그 회귀계수를 표기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출신국 유형’은 어머니 출신국이 일본인 경우에만 분석모형에 나타났다.

<그림 2>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모형’이다. 학업성취도(Y)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년(X_2), 자긍심(X_3), 교사와의 관계(X_4), 어머니지지(X_5), 형제자매수(X_7), 어머니 한국어실력(X_{11}), 거주지(X_{13}), 어머니 출신국: 일본인 경우(X_{15})이다.

〈그림 2〉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중회귀모형



학업성취도(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는 성별(X_1), 재혼 가족(X_6), 출생순위(X_8), 아버지 학력(X_9), 어머니 학력(X_{10}), 어머니 취업 여부(X_{12}), 가구소득(X_{14})이다.

Ⅵ. 토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5-7월간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인 전북, 전남, 충남, 경북 지역의 다문화가족 아동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313사례를 기초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15개 독립변수를 선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긍심이 높을수록, 선생님 관계가 좋을수록, 어머니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 한국어실력이 좋을수록, 거주지가 도시일수록, 어머니 출신국이 일본일수록,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가 높아짐을 발견했다. 또한, 다문화아동의 형제자매 수가 많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졌다. 그러나 다문화아동의 성별과 재혼가족여부, 아동의 출생순위, 아버지 학력, 어머니학력, 어머니 취업여부, 가구소득, 어머니 출신국이 베트남, 필리핀, 기타나라인 경우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중위수준의 변수 중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현옥·황보명(2009)년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 듣기능력과 말하기 능력이 5세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면, 현재의 다문화아동의 미래의 지위와 계층에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업성취가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주류사회 통합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국가의 정책에서,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면, 다문화아동 어머니의 언어 통합을 먼저 정책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어머니의 한국어실력과 함께 독립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변수인 자긍심, 사회적 자존인 어머니의 지지, 선생님 관계가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자원이 되고 있음은 아동의 자긍심을 높이고 어머니의 지지를 높이고 선생님 관계를 높이는 정책이 다문화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인회. 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29.
- _____. 박현선·정익중. 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0(3): 269-295.
- 김경근. 1996.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동과 그 배경-경제발전과 교육열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6(1): 33-49.
- 김광혁. 2006. “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 _____. 2008. “지역사회자본과 가족소득 변화가 아동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5: 1-28.
- 김용래. 1987.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아개념과 불안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분석.” 《교육연구논총》 3: 33-79.
- 김의철·박영신·곽금주. 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 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 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김이선·마경희·선보영·최호림·이소영.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현숙. 2011. “부모의 인적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0: 123-150.
- 김현주·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 김혜경. 2010.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생활 만족도 및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태·안태숙·남현주. 2006. 『미군 관련 혼혈인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 여성가족부.
- 박영신·박영균·김의철·한기혜. 2011.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한국청소년연구》 22(3): 5-41.
- 설동훈·김순규. 2011.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교육과 문화다양성』. 세이브더칠드런.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박경태·이란주. 2004.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오계훈·김경근. 2001. “가족구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1(2): 101-123.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이미정. 1998. “가족 내에서의 성차별적 교육투자.” 《한국사회학》 32(1): 63-97.
- 이선희. 2008.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재분·김혜원·변종임·채재은. 2009. 『다문화가족의 역량계발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모색』. 한국교육개발원
- 이정선. 2005. “사회자본 구축을 통한 농어촌 학생의 학업 격차 개선 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 37(1): 131-150.
- 이혜경. 2005. “혼인 이주와 혼인이주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세희·이봉주. 2009. “최저기준 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3): 243-265.
- 장상수·손병선. 2005. “가족 배경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9(4): 198-230.
- 정익중·권은선·박현선. 2011. “아동의 학업성취 발달궤적의 예측요인과 발달 산물.” 《한국아동복지학》 34: 63-93.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주동범. 1998. “학생배경과 학업성취: 어머니의 자녀교육에의 관여가 매개하는가?” 《교육사회학연구》 8(1): 41-56.
- 최현욱·황보명. 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이 자녀의 한국어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315-329.
- Brophy, Jere E., and Thomas L. Good. 1970. “Teachers’ Communication of Differential Expectations for Children’s Classroom Performance: Some Behavioural Dat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1(5): 365-374.
- Duncan, Simon. 1995. “Theorizing European Gender System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4): 263-284.
- Haveman, Robert, and Barbara Wolfe. 1994. *Succeeding Generation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s in Childre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offman, Lois W. 1974.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0(2): 204-228.
- McLanahan, Sara S. 1985.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pp. 35-48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reg J. Duncan, and Jeanne Brooks-Gun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Rosenthal, Robert, and Lenore Jacobson. 1966. *Teachers’ Expectancies: Determinants*

of Pupils' IQ Gains." *Psychological Reports* 19(1): 115-118.

Zick, Cathleen D., W. Keith Bryant, and Eva Österbacka. 2001. "Mothers' Employment,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mediate Child Outcomes." *Social Science Research* 30(1): 25-49.

(2012. 5. 4. 접수; 2012. 5. 31. 수정; 2012. 6. 7. 채택)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Yang-Hwa Jung

Daejeon Research Institut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identify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t is based on the data came from nationwide representative sample surveys on multicultural children (Jeonbuk, Jeonnam, Chungnam, and Gyeongbuk provinc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expressed as follows.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is closely linked with problems of integration of language about foreign mothers in Korea. This indicates national policy must improve korean language level of multicultural children's mothers to raise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But there are limits to improve korean language level of multicultural children's mothers (According to the advanced study, Korean language level of foreign mothers was 5 years old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approach to improving mothers support, children's pride an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Keywords: multicultural children, foreign mothers, academic achievement, mothers support, pride, relationships with teachers

연구논문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반미희*·김석호**·이정환***

1998년과 2006년 사이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의 변화를 살펴본다.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는 제도개선과 사회적 자본의 확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1998년에 조사된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은 산업연수생(D-3)이고, 2006년에 조사된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은 고용허가제로 허가된 비취업(E-9)이다. 이러한 체류자격 차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조건, 작업장 환경, 사회적 자본 등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998년과 2006년 다른 두 시점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스트레스 설명모형을 구축한다. 스트레스 설명모형에는 직무 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사회적 자본이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한다. 특히 외국인노동자가 가진 사회적 자본은 이들의 문화적 적응과 스트레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1998년과 2006년에 조사된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이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원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인한 직무환경 변화로 직무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 고용허가제, 문화적응, 사회적 자본

* 현대리서치연구소 연구원. banmihee@hanmail.net.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eokhok@skku.edu.

***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jungwlee@chol.com.

I. 서론

199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2009년 9월 말 현재, 그 수가 53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115만 명 정도이며, 불법체류율은 15.9% 정도이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증가는 국제노동이동의 결과물이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문제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문제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들과 제도적 차원의 것들로 대별된다. 외국인노동자가 작업장에서 겪는 문제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언·폭행·성폭력, 신분증 압류, 감사·외출통제·감금 등이며, 제도적인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의 체계적인 배제, 불법체류자 단속 무원칙성, 외국인보호소 차별, 강제 출국 시 불법체류 범칙금 부과 등의 문제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다(설동훈, 2002). 사회소수자로서 겪게 되는 불공정한 대우와 사회적 차별은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스트레스를 심화시킨다. 외국인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새로운 환경적응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이들의 노동생산성은 낮아지며 다른 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영적인 차원과 문화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정기선(1994, 1998, 1999, 2003), 석현호·정기선·장준오(1998), 박형기(2003), 이명희·박정일·구정완·임현우(1997)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 연구는 대부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로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을 강조한다. 기존 연구가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반경이 작업장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과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이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처럼 작업장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10여 년 넘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삶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와 정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었을 것이며, 삶의 영역도 작업장 중심이 아닌 작업장 밖 세계로 더욱 넓어졌을 것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고용허가제와 방문허가제 실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작업장 환경 개선, 인권상황 호전, 거주지 장기화, 연결망의 다양화 및 확대 등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인노동자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도 다변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가 제도개선과 사회적자본의 확대에 의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98년과 2006년에 조사된 외국인노동자 자료를 분석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변화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원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실제로 1998년에 조사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은 산업연수생(D-3)이고 2006년 조사된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은 고용허가제로 허가된 비취업(E-9)이다. 이 체류자격 차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조건, 작업장 환경, 사회적 자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이를 암시한다. 따라서 두 자료에 포함된 외국인노동자들의 스트레스도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1998년과 2006년 다른 두 시기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 동일한 스트레스 설명모형을 구축할 것이다. 스트레스 설명모형에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사회적 자본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노동자들이 가진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자본은 이들의 문화적 적응과 스트레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사회적 자본의 스트레스에 대한 직접효과와 문화 적응 스트레스원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도 시도할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의 변화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도적 변화에 의한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2009년 9월 말 국내에 체류하는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노동자¹⁾는 총 523,516명이며, 합법체류자는 462,947명으로 불법체류자(16세부터 60세 사이)는 58,181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183,997명, 방문취업제로 취업한 노동자 수는 307,329명이다. 이는 집계된 단순 기능 인력 외국인노

1) E-8, E-9, E-10, H-2(법무부 분류) + C-4, D-3(저자 추가): 추가한 부분도 단순기능인력. 다만 이 제도로 인한 신규체류자가 없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으로 추정됨.

동자 수의 80%에 해당되는 수이다(법무부, 2009). 2009년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 연보를 바탕으로 각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의 불법체류율 15.9%보다 높은 불법체류율을 보이는 체류자격은 10개이며, 이 중 연수취업의 불법체류율이 9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업연수(89.8%), 단기사용(81.8%), 그리고 단기종합(69.9%) 순이다. 불법체류자들은 단순 기능인력 외국인일 확률이 높고, 이들은 장기간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살려 불법체류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포함시켜 연구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수준은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2003)의 국제 이주 과정 4단계 모델을 적용해 판단해 볼 수 있다. 국제 이주 과정 4단계 모델의 첫째 단계는 고국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젊은 노동자가 일시적으로 이주하여 소득을 고국에 송금하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외국인노동자가 체류 연장의 필요성을 느끼며 동일한 출신지 사람이나 친족과 유대감을 갖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장기간 거주하면서 가족이 재결합하며,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이입지 사회에 대한 지향이 증대되는 상태이다. 네 번째 단계는 이입국 정부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사회경제적 한계화 및 영구적 소수인종 집단이 되는 영구적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이주 역사가 20년에 이르고, 민족 집단별 게토(ghetto)도 서울과 경인 지역 일부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내 외국인노동자 유입수준은 4단계까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정환·이성용, 2007). 다시 말해, 한국 노동시장 인력부족 현상 심화와 외국 인력 유입에 대한 호의적 정책들의 실행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무여건과 생활환경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에 관한 연구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2.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변화된 외국인노동자의 삶

1)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력 정책 변화

외국인노동자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적인 거주기간과 근로상태를 결정짓는 정부의 정책변화일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외국인의 유입률은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국정부 외국 인력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91년 11월 ‘해

외진출 기업의 현지 고용인력 기능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취업사실이 확인되면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허가권을 부여한 것이다. 1993년에는 11월 '외국인산업연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95년에 최저임금 적용, 산재보험 적용의 개선책을 발표하였지만,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1997년 IMF를 맞이하고 정부는 1998년에 내국인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 제도는 외국 인력을 내국 인력으로 대치시켰을 때 회사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결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삶은 IMF와 그 직후에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1998년에는 연수취업제도를 시행하여 기존 연수기간 2년과 1년 취업기간을 둔 변형된 산업연수생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2001년 연수기간 1년과 취업기간 2년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1999년에는 해외동포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 후 해외동포에 관한 국내 취업인 2002년 12월부터 실시된 특별고용허가제로 불리는 취업관리제가 실시된다. 2002년부터는 미등록외국인 즉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2003년에는 3년 이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2003년 8월까지 출국기한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2003년 8월에는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

2) 고용허가제 이전 실시된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법규와 문제점

고용허가제 이전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안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먼저 1991년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있다. 이 제도는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이 연수기간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노동자와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제도인 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 인력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법무부훈령(제294호)을 통해 마련하였다. 하지만 산업연수생 제도는 연수를 가장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사실상 근로를 허용하는 편법적인 제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실제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보호, 근로기준법, 산재 보상법 등 모든 법적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러한 편법성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도 비용부담이 적은 산업연수생제도를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하는 고용허가제보다 선호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산업연수생제도는 오히려 불법체류자 증가를 조장한다고 비난을 받았다(류혜정, 2004).

산업연수생제도의 다른 문제점은 연수추천을 위임받은 기간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건설협회로 나뉘어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 책임 소재 불분명성 때문에 다양한 송출비리가 발생했으며, 산업연수생제도 개선 논의 과정 중 이 세 조직 역할 조정문제 때문에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았다(최홍엽, 2008).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을 막기 위해 이들의 임금 중 상당부분을 강제로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한 일이다. 이 제도는 공식적으로 1999년 폐지되었지만 비공식적 관행으로 최근까지 남아 있다(고형면, 2006). 2002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기협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보증금 귀속금과 이에 대한 예금이자로 모두 565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혜원·이철순, 2004).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외국인정책위원회는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였다.

3) 고용허가제의 도입

2004년 8월 17일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이 제도는 한국 정부와 인력 송출국 정부 간의 협약(MOU)²⁾을 체결하여 정부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만이 외국인력 송출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고용허가제 도입 논의는 1995년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8년의 도입 과정을 거친 후 2003년 7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병행한다는 조건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 도입 초기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이전까지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야기한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외국인 인력 정책 차원에서 단순 기능 인력의 취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 강화되었다(고혜원·이철순, 2004).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은 인력난을 겪는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여 인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우선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4)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노동자의 삶에 미친 영향

고용허가제 이후 수행된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300개를 대상으로 2005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 65%정도가 고용허가제 시행이 외국

2) 2009년 기준 고용허가제 관련 MOU 체결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동티모르,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15개국이다.

인노동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감소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60.7%였다. 그리고 노동부는 2005년 고용허가제 도입 1주년 성과와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통해서 “제도 개선 이후 입국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고용허가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고용허가제 실시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근로 환경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조사가 있는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조사도 있다.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수행한 ‘고용허가제 시행 1년,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임금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도 고용허가제의 시행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이동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라고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후 외국인노동자의 삶은 실제로 여러 변화가 있었다. 첫째, 외국인노동자는 합법적인 체류상태를 갖게 되었다. 둘째, 사업장 내에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노동생활도 보장되었다. 하지만 송출비리 문제와 저임금 및 과도한 근로시간 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의 직무와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이국생활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 수준과 원인들도 달라졌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원이 변화했다고 가정한다.

3.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1)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스트레스는 ‘팽팽하게 죄다’라는 의미로 외부의 압력과 긴장을 뜻한다(김병숙·김봉환·김완석·이종목, 1999: 367). 한스 셀리에(Hans Selye)는 생활 스트레스(The stress of life) 연구에서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힘에 의해 생리적 항상성이 무너지려할 때 이를 다시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 취해지는 일종의 적응증후군(adaptation syndrome)”으로 정의한다(Selye, 1956). 사람은 팽팽히 죄는 압력과 긴장 상태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반응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스트레스원에 대한 반응이 스트레스이다. 즉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해로운 육체적 및 정신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그에 대한 방어 반응이다.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나 압력을 받게 되면 긴장, 흥분, 불안과 같은 생리적인 반응을 보

인다. 스트레스원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신체적 복원 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이 스트레스다(김병숙 외, 1999: 367)

2) 직무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란 개인 특성과 직무 특성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개인이 정상적 기능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심리적·신체적 조건을 변화시키거나 저해하는 직무관련 요소가 작업자와 상호작용하는 상황이며, 개인 능력이나 그가 가진 자원과 환경 요구의 부적합, 개인 욕구와 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무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정의된다(정수진 외, 1998: 484). 쿠퍼와 마셜(Cooper and Marshall, 1976)은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환경 요인으로 정의한다. 프렌치와 그의 동료들(French, Rogers and Cobb, 1980)은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자원·환경 요구와의 부적합, 개인의 욕구와 더불어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 직무 환경과의 부적합으로 스트레스를 정의한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정기선(1998, 1999, 2003), 이명희 외(1997), 박형기(2003)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이들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주로 직무스트레스원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기선(1999)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직무 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가족 스트레스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직무 스트레스원 중 직무만족도는 스트레스에 일관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은 정신신체증후군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가족문제가 많을수록 불안증후군과 정신신체증후군을 겪는다. 또한 정기선은 높은 사회적 자원이 반드시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명희 외(1997)의 연구에서는 43개 항목의 스트레스 증후군을 어느 정도 자주 경험하는지를 질문하여, ‘항상’ 3점, ‘자주’ 2점, ‘가끔’ 1점, ‘전혀’ 0점으로 측정하고, 합산한 점수가 63점 이상이면 고위험 스트레스군, 62-23점이면 잠재적 스트레스군, 22점 이하는 건강집단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외국인노동자의 47.2%가 고위험 스트레스군에 속해 있으며, 건강집단군에 속해있는 노동자가 없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높은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를 보여준다. 박형기(2003)는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근로 조건 및 사회적 조건 중에서 어떤 변수가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직장 내 요인들과 사회

생활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더 중요한 요소인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으로는 직장 관계 변수들이 사회생활 관계 변수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직장 밖 단체들의 효과는 스트레스 증가에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이들 단체를 더 자주 찾는 선택효과로 설명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기존 연구 중 직무 스트레스원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고용허가제 및 방문허가제 등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외국인노동자 직무 스트레스원에 해당하는 작업장 환경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직무 관련 요인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제도와 불법 노동자 신분이었던 외국인노동자가 고용허가제를 겪으면서 느끼는 직무 스트레스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1998년 산업연수생이었던 외국인노동자와 2006년 고용허가제도 아래 외국인노동자 간의 직무스트레스원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8년의 직무스트레스원은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원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더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3) 문화적응 스트레스

어느 사회나 외국인에 대한 고정 관념과 차별은 있지만, 그 차별의 정도는 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정진경·양계민, 2004) 이전까지 한국사회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태로 외국인에게 배타적차별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유명기(1997)는 외국인노동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문화의 속성을 우리끼리 문화의 배타주의, 위계의식과 권위주의, 육체노동 천시와 적당주의, 빈부차별과 인종차별, 의사소통 문제 등 다섯 분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최근 외국인노동자 문제 진단과 처방을 이민족이질문화에 대한 한국 문화의 강한 부정적인 완고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인의 유별난 배타성 때문에 외국인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고, 동남 아시아계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김영란(2008), 유명기(1995), 김현주·전광희·이혜경(1997), 작업장 내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정기선, 1999), 그리고 질적 연구(유명기, 1997)가 있다. 외국인노동자는 이주 후 새로운 문화, 규

범 가치관에 적응해야 하고, 한국사회와 사람을 이해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야 한다(김영란, 2008) 외국인노동자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김영란(2008)은 단일 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적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사회에서의 이주자의 적응을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적응으로 한국어 수준,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적응 정도, 사회적 연결망 및 모국 문화의 접촉 정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를 분석해,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이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도가 높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유명기(1995)는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는 직장 중심의 환경을 문화주체들이 상호 접촉하는 장소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의 갈등을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라는 문화 주체들이 갖는 인식 차이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문화 마찰의 기본 배경은 언어, 의식주 생활,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작업 관행,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다. 그는 한국인의 인식과 그 속에 내포된 한국 문화의 속성은 외국인노동자와의 문화 마찰의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김현주·전광희·이혜경, 2007)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절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터득하는 과정을 한국에서의 사회적응(assimilation)으로 보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cross-cultural communication) 및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에서 문화적응을 쉽게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외국인노동자는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높아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에 지속적인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1998년과 2006년 사이의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에 대한 연구는 직무스트레스 이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같은 다른 부분도 같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정도이다. 결혼 이주 여성이나 유학생의 증가로 문화적응에 관한 요구는 높아지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전담단체보다는 다문화 터울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낯선 타지에 와서 다른 문화차이를 겪는 스트레스는 높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원도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같은 제도개선의 직접적 영

향을 받는 직무스트레스원과는 달리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은 지속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오히려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원보다 문화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열악했던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강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사회적 자본을 통한 간접효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통해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기존 연구에서 자주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4) 스트레스와 사회적 자본

사람은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치, 신념, 규범 등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현대 사회에서 연결망이 더 강조되는 이유는 상호의존성의 증가 때문이다. 뒤르케임은 자기 충족적인 삶이 가능했던 근대 이전의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부분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각기 다른 기능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유기적인 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야만 하고 이러한 상호의존성 때문에 연결망이 증가한다고 보았다(김용학, 2004).

린(Lin, 1982)도 사람들의 지위 획득 과정에서 약한 연결이 사회집단들을 이어주고 여러 지위 사이를 연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사람들은 약한 연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갖는 권력부위신을 동원하고, 그것을 자신의 지위 획득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린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투자로 보며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외국인노동자 국제 노동 이동이 발생하는 과정에도 나타난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에서의 연속 회전을 거친 사회적 자본은 국제 노동 이동에 대한 접근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사회적 자본은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 형태로 존재한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효과를 개인·가족·가구 등의 사회적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형성한다(설동훈, 1999) 사회적 자본은 노동력이 유입되는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의 정보와 정착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게 되며, 국제 노동력 이동의 사회적 자본은 “노동력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선행 외국인노동자 및 비외국인 노동자를 혈연·지연·학연 등을 통하여 연결시키는 대인 연대의 집합”이다(Massey, Arango, Hugo, Kouaouci, Pellegrino and Taylor, 1993: 448).

외국인노동자는 출신 국적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이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박경태 외 1999). 사회적 자본은 국외 이주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한번 구축된 후에 급속히 확장되고 견고해지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국가 간 이주 노동력을 발생, 유지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은 송출국에서 사회적 자본과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자본이 있으며, 송출국에서 사회적 자본은 국외 이동에 필요한 금전적인 비용,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공동체의 역할, 이동에 필요한 정보, 이동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회적 규범 등을 사회적 자본을 통해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박경태 외, 1999). 그리고 거주국인 한국 내에서 사회적 자본은 두 국가 간의 이주자들이 일정한 수를 넘기면서 이주 연결망이 형성된다. 바로 이주자, 이전 이주자 그리고 이출지 및 이입지의 비이주자를 연결하는 친족 또는 친구 등의 인간관계가 형성된다(석현호, 2000). 외국인노동자는 혈연관계, 교우관계와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노동력 유입국에 있는 사람로부터 도움을 얻는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은 외국인노동자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외국인노동자 내부 집단에서 새로운 연결망을 확장시킨다. 외국인노동자 사회적 자본은 이주의 처음부터 정착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효과를 줄여주는 완화요인은 조직적 속성들이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원에 대한 지각과 인식을 변경하고, 평가 과정 후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매개하고, 그러한 반응들에 의해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낮춘다(Muchinsky, 2000). 이런 완화 요인 중 외국인노동자에게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는 1998년과 2006년 각각 조사된 자료에서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단체나 모임 참여의 빈도 차이로 인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2006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보면 단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2006년 당시 외국인 지원 단체는 130개로 나타났고, 2007년에는 149개 2008년에는 564개, 그리고 2009년에는 734개의 외국인 지원단체가 증가해 왔다. 즉,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1998년보다 2006년이 더 크고 지원단체나 모임도 더 많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보다 2006년에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정기선(1999)은 사회적 지원의 조절 효과와 관련하여 높은 사회적 지원이 반드

시 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조절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그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모임이 그 단체라는 선택효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원을 줄이는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따라 정적이고 부적인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때,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본국 관련 사회적 자본인지, 한국사회에서 얻어진 사회적 자본인지를 구분해서 살펴본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사회적 자본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인이다.

한국인 관련 사회적 자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외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나 공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외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 중에서 불과 그의 동료(Ball, Giles and Hewstone, 1984)에 의하면, 자기 문화권 언어 사용은 집단인식을 나타낸다. 한국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의 경우 사회적 거리감은 다른 민족 집단과 달리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킨로취(Kinloch, 1973)의 연구는 인종 집단 간 관계가 사회구조 내에서 각자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사회구조 내에서의 상호간 집단정의를 반영하고 집단 간 갈등은 서로 가깝고 동질적인 집단일수록 경쟁적이란 것이다. 이 논의에 따르면 오히려 조선족의 경우 사회적 거리감이 높을 수도 있다.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민족이지만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조선족 경우는 서운한 감정을 느끼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다른 외국인노동자는 문화와 언어조차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높은 이질성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인과의 관계나 한국인 단체 참여가 오히려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 보다 사회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많게 형성된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06년에는 산업연수제나, 불법체류신분에서 고용허가제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외국인 한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4.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는 분석모형을 1998년과 2006년 자료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1998년 외국인노동자보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에서 직무스트레스원의 영향강도

가 약화되었을 것이다. 외국인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관련 변수이다. 이 요소들은 관련 제도에 의한 영향력을 많이 받으며, 2004년 개정된 고용허가제의 영향력 또한 2006년 외국인노동자에게 나타날 것이다.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문제는 직무관련 스트레스원에 비해 등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국과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문화적응의 문제는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사회는 최근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1998년 외국인노동자에 비해 2006년 외국인노동자는 넓어진 활동 영역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1998년 외국인노동자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스트레스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스트레스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원은 외국인노동자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적인 영향 모두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2006년에 비해 적을 것이므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보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이론들과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설 1.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직무 스트레스원에 의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에 의해 더 증가할 것이다.

가설 3-1.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사회적 자본에 의해 덜 감소될 것이다.

가설 3-2-1.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본국인 관련 자원이면 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다.

가설 3-2-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이 한국인 관련 자원이면 스트레스가 증가될 것이다.

가설 3-3. 사회적 자본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8년 자료와 2006년 외국인노동자 조사 자료이다. 1998년 자료는 석현호·정기선·이정환·이혜경·강수돌(2003)에 의해서 수집된 외국인 노동자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이 조사 자료는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제도업체의 주소목록을 이용한 지역집락표집으로 수집되었다.³⁾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23개를 사용한다.

2006년 자료는 외국인노동자의 HIV/AIDS에 대한 지식과 인식 및 성행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한국 UNAIDS 정보지원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이다.⁴⁾ 이 중 각 문항의 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070부를 분석한다.

〈표 1〉 각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수의 가중치 전후 수치 비교, 2006년

각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가중치 전 외국인 수		가중치 후 외국인 수 ⁵⁾	
	명	%	명	%
중국 조선족	214	21.3	1,231	59.4
베트남	177	17.6	198	9.6
필리핀	179	17.8	204	9.9
태국	225	22.4	277	13.4
인도네시아	211	21.0	160	7.7
계	1,006	100.0	2,070	100.0

3) 석현호 외(2003) 참고

4)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건강 연구를 위한 설문지’에서는 대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5개국 출신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표집의 기준으로 삼은 변수는 성(性), 연령, NGO 단체 참여 여부다. 성비는 조선과 한족은 5:5, 나머지 국가의 출신 노동자들은 7:3이 되도록 하였다. 연령은 20대와 30대의 비율이 최소한 조선족은 60%, 다른 민족은 70%가 되도록 하였다. NGO 단체 참여 여부는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가 종교단체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 단체를 통한 조사 표본은 30%가 넘지 않도록 했다. 조사지역은 서울 경인지역이며 전체 외국인의 65%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표본추출은 기존 외국인노동자의 통계 자료에 근거한 할당표집(quota sampling)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할당표집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2006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준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가중치를 부여한 기준은 법무부 2006 통계연보에서 합법노동자+불법노동자의 수를 각 국가별로 비율을 맞춘 것이다. 이때 합법 체류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 체류자격: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상용(C-1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산업연수(D-3), 연수취업

〈표 2〉 각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가중치 산출 기준

(단위: 명, %)

	중국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총체류 외국인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율												
사증면제(B-1)	0	0	0.0	137	118	86.1	21	4	19.0	12,224	7,307	59.8	3	0	0.0
관광통과(B-2)	257	252	98.1	139	112	80.6	243	138	56.8	27	18	66.7	199	171	85.9
단기상용(C-2)	3,747	3,512	93.7	562	476	84.7	909	372	40.9	13	10	76.9	77	38	49.4
단기종합(C-3)	8,561	8,062	94.2	621	405	65.2	3,756	2,809	74.8	30	27	90.0	1,731	331	19.1
단기취업(C-4)	2	2	100.0	2	3	150.0	147	145	98.6	147	4	2.7	2	1	50.0
산업연수(D-3)	4,207	2,992	71.1	7,181	3,086	43.0	5,926	2,371	40.0	5,986	506	8.5	6,914	2,091	30.2
연수취업(E-8)	2,105	525	24.9	10,894	4,739	43.5	7,756	1,829	23.6	7,171	741	10.3	9,397	1,668	17.8
비전문취업(E-9)	65,464	10,290	15.7	17,755	3,440	19.4	18,419	4,770	25.9	15,646	3,746	23.9	7,050	1,723	24.4
방문동거(F-1)	108,544	7,492	6.9	185	84	45.4	993	371	37.4	87	47	54.0	68	17	25.0
총합	192,887	33,127	17.2	37,476	12,463	33.3	38,170	12,809	33.6	41,331	12,406	30.0	25,441	6,040	23.7

본 연구는 LISREL 8.8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추정 방식을 이용했다. LISREL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에 용이하며, 잠재변수가 다른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내생변인을 포함하는 경로모형에도 적합하기 때문이다(김상욱, 1998).

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이전과 이후의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를 다룬다.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원인 중, 직무 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그리고 사회적 자본 변수를 사용한다.

첫째, 1998년 직무스트레스원에 사용될 변수는 ‘근로조건만족도’로 정기선(2003)에 의하면, 직업스트레스원 중 외국인노동자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 이 문항은 말은 일, 고용기간, 임금, 노동시장, 작업량, 작업장 환경, 작업장 규칙, 의료혜택, 숙소시설, 급식, 오락시설, 단체교섭, 노무관리방식, 고충처리에 대한 14개 항목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말은 일, 고용기간, 노동시간, 작업량을 제외한 10개의 문항을

(E-8), 비취업(E-9), 제조업(E-9-2), 건설업(E-9-3), 농축산업(E-9-4), 냉장냉동(E-9-6), 음식업(E-9-A), 청소업(E-9-B), 간병가사(E-9-C), 건설업(E-9-D), 자차수리(E-9-E), 제조업(E-9-F), 농축산업(E-9-G), 연근해업(E-9-H), 육탕업(E-9-I), 재료수입(E-9-J), 냉장냉동(E-9-K), 방문동거(F-1)

1998년 직무스트레스원으로 사용하였다.

2006년 직무스트레스원에 사용될 변수는 ‘직장 내 발생문제 강도’로 임금문제, 작업량, 작업시간, 한국인 동료/상사와의 관계, 취업사기, 사고 질병, 기타문제의 7개 항목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같은 요인으로 묶이지 않는 작업시간, 기타문제를 제외한 5개 문항을 2006년 직무스트레스원으로 사용하였다.

직무만족도는 이전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이다(정기선, 1999)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가 중요시된 배경으로는 인간은 일과 직무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본 분석에 사용될 직무만족도에 대한 문항은 현재의 일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는 상호적이다(Bateman and Strasser, 1983). 직무만족도가 낮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직무만족도가 낮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홉킨스 증후군 체크리스트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통해 겪는 전반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를 직무 스트레스원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직무만족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부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직무스트레스원’을 측정할 문항은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발생 강도를 묻는 질문이다. 본 질문은 7가지 항목은 ‘전혀 심각 안했음’부터 ‘매우 심각했음’으로 측정된 5점 척도를 사용한다. 하위 항목은 임금 문제, 작업량, 작업 시간, 한국인 동료/상사와의 관계, 취업사기, 사고/질병, 기타문제가 있다. 이 중에서 ‘작업시간’⁶⁾과 ‘기타문제’⁷⁾를 제외한 나머지 5문항을 사용한다.

이 중에서 객관적 지표인 ‘근무시간’은 외생변수로 ‘직무만족도’와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발생 강도를 묻는 질문’은 내생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변수는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식 생활 방식의 어려움’, ‘한국 사람들이 본국 사람들의 생활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한국 사람들은 본국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차별 대우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동의’부터 ‘매우 동의 안함’의 5점 척도로 구성된다.

6) 문항 내 ‘작업량’과 ‘작업시간’의 공분산이 높아서 제외함.

7) ‘직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발생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 의해 ‘기타문제’ 제외

셋째, 사회적 자본은 참여모임과 단체 친구의 수로 구성된다. 참여모임 또는 단체를 묻는 문항은 “귀하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또는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습니까? 귀하가 참여하는 단체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로 ‘본국 친구모임’, ‘본국 사회/종교단체’, ‘한국인 친구모임’,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그리고 ‘기타’로 구성된다. 친구 수를 묻는 문항은 마음을 터놓고 있는 본국 또는 한국의 친구의 여부를 놓고 마음을 터놓는 친구의 수를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한다.

본 연구의 최종내생변수인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홉킨스 증후군 체크리스트(the Hopkins Symptom Checklis, 1974; 정기선, 2003에서 재인용)를 사용한다. 측정 문항은 지난 1달 동안 11개의 문제를 얼마나 자주 겪으셨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은 ‘전혀 없었음’을 1점으로 ‘매우 자주’를 5점으로 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한다. 선정된 문항은 두통, 가슴 통증, 힘이 없고 몸이 축 처짐을 묻는 신체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증후군인 ‘정신 신체증’, 신경과민, 이유 없이 두려움을 묻고 있는 ‘불안증후군’ 그리고 불면증, 입맛 없음, 죽고 싶은 생각이 들음, 외로움, 우울함, 세상에 흥미를 잃음을 묻고 있는 ‘우울증후군’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따라 ‘죽고 싶은 생각이 들음’은 ‘우울증후군’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우울증후군’만을 분석에 사용한다. ‘우울증후군’을 조사하는 이유는 기존의(선행연구) 한국에서 진행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스트레스원보다도 ‘우울증후군’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선(2003)에 따르면, 1996년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겪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증후군은 외로움, 불면, 입맛 없음, 우울함으로 나타났다. 1998년 조사에서는 불면, 입맛이 없음, 외로움, 그리고 우울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외국인노동자의 각 조사별 스트레스 중 ‘우울증후군’ 비교

우울증후군	1996년			1998년			2006년(가중치 후)		
	평균	경험빈도(%)		평균	경험빈도(%)		평균	경험빈도(%)	
		상당히 자주	매우 자주		상당히 자주	매우 자주		상당히 자주	매우 자주
불면	2.33	13.8	4.3	2.62	20.6	6.9	2.10	5.8	4.3
입맛이 없음	2.09	11.0	4.8	2.47	13.9	5.3	2.02	8.2	1.9
외로움	2.25	1.9	1.2	2.45	12.1	8.6	1.94	5.8	3.1
우울함	2.08	9.3	5.5	2.43	14.3	6.3	1.95	6.5	3.1
일에 흥미를 잃음	1.58	3.6	1.9	1.76	3.1	2.7	1.73	5.8	2.7

본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개인적 변수)는 국적, 성별, 혼인상태, 연령, 학력, 임금, 근로시간 그리고 거주 기간을 통제한다. 연구의 목적이 스트레스의 사회적 자본과 직무 스트레스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해 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 자원의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국적, 성별, 연령, 학력, 임금 그리고 거주기간이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다음과 같다. 1998년 국적은 필리핀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더미 변수화 한다. 2006년 국적은 필리핀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를 더미 변수화 한다. 성별은 남자를 1로 하여 역시 더미변수를 만든다. 혼인상태는 미혼은 1, 기혼은 0으로 역시 더미 변수화 한다. 연령은 만나이로 응답자가 설문지에 기입한 것을 사용한다. 학력은 교육 년 수로 변환한다. 임금은 월급여로 본봉, 시간외 수당, 부수입, 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을 사용한다. 근로시간은 보통 직무 스트레스원으로 분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분류해 통제하며, 다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원과는 이론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연관시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거주 기간은 입국년도와 월을 몇 개월 거주한 값으로 산출한 것을 사용하며,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한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측정모형은 18개의 외생변인과 4개의 내생변인으로 구성된다. 외생변인은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국적변수인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 인도네시아, 성별, 혼인상태, 연령, 학력, 임금, 근로시간, 거주기간으로 11개로 구성된다. 다른 외생변인은 사회적 자본 변수로 본국 공동체모임, 본국 친구모임, 본국 종교단체, 한국인 종교단체, 한국인 사회단체, 본국 친구 수, 한국 친구 수로 7개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적 자본 변수를 합한 총 외생변인은 18개다.

1998년 내생변인은 단일문항인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원’은 근로조건만족도로 임금, 작업장 환경, 작업장규칙, 의료혜택, 숙소시설, 급식, 오락시설, 단체교섭, 노무관리방식, 고충처리로 구성된다,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은 사고방식차이로 한국인 근로자들과 의사소통어려움, 한국식 작업방식적응 어려움, 한국인 근로자들

은 우리생활방식 이해 못함, 한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스트레스원 중 우울증후군을 나타내는 5개의 변수는 잠을 청하기 어렵다, 입맛이 없다, 외로움을 느낀다, 우울함을 느낀다. 일에 흥미를 잃어버린다는 총 4문항이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 측정모형은 18개의 외생변인과 4개의 내생변인으로 구성된다. 외생변인은 통제변수로 사용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국적변수인 중국조선족,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성별, 혼인상태, 연령, 학력, 임금, 근로시간, 거주기간으로 총 11개와 사회적 자본 변수인 본국친구모임, 본국사회종교단체, 한국인친구모임, 한국인사회종교단체, 기타단체, 본국인 친구 수, 한국인 친구 수로 총 7개이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사회적 자본 변수를 합한 외생변인은 총 18개이다.

2006년 내생변인은 단일 문항인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원’을 구성하는 변수는 임금문제, 작업량, 한국인동료/상사와의 관계, 취업사기, 사고/질병으로 문제발생강도를 나타낸다.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구성하는 변수 4개 사고방식차이로 의사소통 어려움, 한국생활방식적응어려움, 한국인이 우리 생활방식을 이해 못함, 한국인이 우리나라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음이다, 그리고 스트레스원 중 우울증후군을 나타내는 5개의 변수는 불면증, 입맛 없음, 외로움, 우울함, 세상일에 흥미 없음이다.

스트레스(우울증후군)에 대한 구조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는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우울증후군)에 분석모형을 적용한 결과이다. 스트레스를 최종 내생변인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직무스트레스원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직무스트레스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증가 할수록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에도 확인되는 결과이며, 특히 ‘직무만족스트레스원’으로 사용한 ‘근로조건만족도’는 기존 연구에서 직업스트레스원 중 외국인노동자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판명된 것이다(정기선, 2003). 1998년 외국인노동자 조사에서 감안해야 할 점은 1997년 IMF 관리체제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한국정부는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인노동자 대신 내국인고용자를 대치했을 시 고용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표 4〉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변인 간 LISREL 추정결과 (N=423)

변인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우울증후군 (스트레스)	
	r	$\beta^{1)}$	r	$\beta^{1)}$	r	$\beta^{1)}$	r	$\beta^{1)}$
내생변인								
직무만족도							-0.127	-0.011
직무스트레스원 (근로조건만족10개)	-0.503	-0.459***					0.305	0.324***
문화적응스트레스원							0.238	0.294***
외생변인								
본국인공동체모임					0.050	0.073	-0.091	-0.076
본국인친구모임					0.068	0.026	-0.009	0.064
본국인종교단체					0.017	-0.010	-0.033	-0.047
한국인종교단체					0.024	0.030	-0.065	-0.027
한국인사회단체					0.012	-0.025	-0.090	-0.054
본국 친구의 수					0.029	0.022	0.082	0.041
한국 친구의 수					0.049	0.038	0.006	-0.027
통제변인								
중국 조선족	-0.055	-0.185***	-0.077	0.112*	0.090	-0.061	-0.077	-0.132*
중국한족	-0.170	-0.175**	0.159	0.304***	0.098	-0.047	-0.085	-0.229**
베트남	0.087	-0.075	-0.153	-0.016	-0.114	-0.218**	-0.133	-0.051
인도네시아	-0.074	-0.109*	0.161	.246***	-0.181	-0.294***	0.204	0.117
성별	-0.100	-0.118**	0.009	0.036	0.034	0.044	-0.082	-0.145**
혼인상태	0.053	0.056	0.055	0.085	-0.110	-0.04	0.004	-0.108
연령	0.015	0.018	-0.038	0.083	0.114	0.074	-0.039	-0.087
학력	-0.011	-0.034	0.078	0.116*	0.042	0.075	0.040	-0.047
임금	0.196	0.136**	-0.101	-0.096	-0.050	-0.103	-0.033	0.076
근무시간	0.002	-0.046	0.082	0.128*			-0.050	-0.123*
거주기간	0.164	0.069	-0.077	-0.005	-0.110	-0.141*	-0.030	0.037
R ²	0.325		0.113		0.114		0.264	
χ^2	1,138.800 (d.f=470)							
모형부합치	GFI=0.876, AGFI=0.804, NFI=0.865, CFI=0.912, IFI=0.915							

주: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또한 1998년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체류자격이 산업연수생인데 이 당시 월평균 임금은 57만원으로,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20만원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보호, 근로기준법, 산재 보상법 등 모든 법적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이며, 인권유린, 열악한 근무환경 등 여러문제점이 많은 제도였다. 이러한 편법성으로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부터 폐지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직무스트레스원이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예상을 쉽게 할 수 있다.

1998년 분석자료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회적 자본’의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이다. 1998년 분석자료 결과 본국 공동체모임, 본국 친구모임, 본국 종교단체, 한국인 종교단체, 한국인 사회단체, 본국 친구 수, 한국 친구 수의 총 7개 문항의 사회적 자본 변수가 스트레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단적으로 1998년 설문문항과 2006년 설문문항을 비교해도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1998년 설문에는 본국인 공동체, 본국인 친구모임, 본국인 종교단체, 한국인 종교단체, 한국인 사회단체의 5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2006년 설문에서는 본국인 친구모임, 본국인 사회/종교단체, 한국인 친구모임, 한국인 사회/종교단체, 그리고 기타단체를 묶으면서 주관식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998년 설문문항을 묶기도 하고 주관식 문항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이들의 총 사회적 자본의 빈도결과를 살펴보다라도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조사결과는 본국인 공동체(26명, 6.1%), 본국인 친구모임(32명, 7.6%), 본국인 종교단체(38명, 9.0%), 한국인 종교단체(16명, 3.8%), 한국인 사회단체(11명, 2.6%)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6년 외국인노동자 조사 결과는 본국인 친구모임(964명, 46.6%), 본국인 사회/종교단체(401명, 19.4%), 한국인 친구모임(178명, 8.6%), 한국인 사회/종교단체(255명, 12.3%), 그리고 기타단체(290명, 14.0%)로 나타났다.⁸⁾ 이와 같이 1998년 당시에 사회적 자본은 외국인노동자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스트레스에도 별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8) 다만, 조사방법이 1998년에는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주소목록을 모집단으로 하는 지역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2006년에는 할당표집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2006년 조사에서 설문의 표집의 기준으로 삼은 변수 중 NGO 단체 참여 여부를 사용했다는 점과 그 NGO 단체 참여 여부는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가 종교단체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 단체를 통한 표본크기는 30%가 넘지 않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대 표집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표 5〉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변인 간 LISREL 추정결과 (N=2,070)

변인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원		문화적응 스트레스원		우울증후군 (스트레스)	
	r	$\beta^{1)}$	r	$\beta^{1)}$	r	$\beta^{1)}$	r	$\beta^{1)}$
내생변인								
직무만족도							-0.121	-0.080***
직무스트레스원 (발생문제강도 5개)	-0.068	-0.141***					0.041	0.174***
문화적응스트레스원							0.108	0.141***
외생변인								
본국친구모임					-0.096	-0.147***	-0.183	-0.152***
본국사회/종교단체					-0.166	-0.22***	0.090	0.063*
한국인친구모임					-0.130	-0.131***	-0.010	-0.069**
한국사회/종교단체					0.022	-0.02	0.018	-0.069*
기타단체참여					0.281	0.188***	0.022	-0.141***
본국 친구의 수					0.012	0.093***	-0.080	-0.064*
한국 친구의 수					-0.109	-0.084**	0.030	0.022
통제변인								
중국 조선족	-0.127	-0.315***	-0.388	-0.03	0.043	-0.246***	0.206	0.135**
베트남인	-0.057	-0.119***	0.159	0.202***	-0.035	-0.176***	-0.024	0.066*
태국인	0.110	0.049	0.370	0.358***	-0.046	-0.206***	-0.246	-0.197***
인도네시아인	0.037	-0.029	0.165	0.182***	-0.090	-0.218***	0.033	0.072*
성별	-0.020	-0.07**	0.243	0.174***	0.045	0.082**	-0.134	-0.157***
혼인상태	-0.044	-0.051*	0.087	-0.001	-0.085	-0.038	-0.079	-0.033
연령	-0.011	0.000	-0.195	-0.045*	0.082	0.008	0.090	-0.027
학력	-0.023	-0.04*1	-0.052	-0.038	-0.045	-0.02	-0.004	0.017
임금	0.087	0.192***	-0.094	-0.033	0.035	-0.05*	0.137	0.057*
근무시간	-0.059	-0.077***	0.116	0.110***			0.161	0.162***
거주기간	0.051	0.039*	0.067	0.115***	-0.009	0.034	0.131	0.097***
R^2	0.089		0.283		0.161		0.213	
χ^2	2506.368 (d.f=300)							
모형부합치	GFI=0.932, AGFI=0.872, NFI=0.897, CFI=0.908, IFI=0.909							

주: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우울증후군)에 관한 <표 5>를 살펴보면, 우울증후군을 최종 내생변인으로 구성하였을 경우 직무스트레스원 그리고 문화적응스트레스원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이다. 직무스트레스원과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이 증가 할수록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고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증가한다.

직무스트레스원을 1998년과 2006년을 서로 비교했을 때, 2006년($\beta=0.174$)은 1998년($\beta=0.324$)보다 적은 영향력을 보인다. 이는 가설 1과 같이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직무스트레스원에 의해 더 증가할 것이다’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1998년과 2006년을 서로 비교했을 때, 2006년($\beta=0.141$)은 1998년($\beta=0.294$)보다 적은 영향력을 보인다. 이는 가설 2와 같이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직무스트레스원에 의해 더 증가할 것이다’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의 상대적인 부족과 더불어, 한국내 외국인에 대한 인식, 거기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계 단순기능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2006년보다 1998년은 더 열약했을 것이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환경적인 상황도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의 강한 영향력에 일조했을 것이다.

또한 1998년과 2006년의 분석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사회적 자본’과 스트레스의 강한 유의미한 결과이다. 본국친구모임이 적을수록, 기타단체참여가 적을수록, 한국인친구, 모임이 적을수록, 본국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와는 증가한다. 반대로 본국사회/종교단체 모임이 적을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외국인노동자일수록 본국사회/종교단체를 더 많이 찾는 선택효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가설 3-1과 같이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보다 사회적 자본에 의해 덜 감소될 것이다’를 완전히 성립시키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자본과 스트레스와의 강한 연관성을 알 수 있다.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우울증후군)에 대한 전체영향이 유의미하고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직무스트레스원(-0.185), 본국 친구모임(-0.173), 문화적응스트레스원(0.141), 기타 단체 참여(-0.114), 한국인 친구모임(-0.087), 직무만족도(-0.080), 한국사회/종교단체(-0.072), 본국 친구의 수(-0.051) 순이다. 이는 1998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대해 유의미한 전체영향이 직무스트레스원(0.329)과 문화적응스트레스원(0.294) 뿐이며, 사회적 자본 부분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과 대조된다.

〈표 6〉 외국인노동자의 우울증후군 결정요인 경로분석

결정요인	1998년			결정요인	2006년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전체 영향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전체 영향
내생변인				내생변인			
직무만족도	-0.011		-0.011	직무만족도	-0.080***		-0.080***
직무스트레스원	0.324***	0.005	0.329***	직무스트레스원	0.174***	0.011**	0.185***
문화적응스트레스원	0.294***		0.294***	문화적응스트레스원	0.141***		0.141***
외생변인				외생변인			
본국인공통체모임	-0.076	0.022	-0.055	본국친구모임	-0.152***	-0.021***	-0.173***
본국인친구모임	0.064	0.008	0.072	본국사회/종교단체	0.063*	-0.031***	0.032
본국인종교단체	-0.047	-0.003	-0.050	한국인친구모임	-0.069**	-0.019***	-0.087***
한국인종교단체	-0.027	0.009	-0.018	한국사회/종교단체	-0.069*	-0.003	-0.072**
한국인사회단체	-0.054	-0.007	-0.061	기타단체참여	-0.141***	0.027***	-0.114***
본국 친구의 수	0.041	0.006	0.047	본국 친구의 수	-0.064*	0.013**	-0.051*
한국 친구의 수	-0.027	0.011	-0.016	한국 친구의 수	0.022	-0.012**	0.010
통제변인				통제변인			
중국 조선족	-0.132*	0.021	-0.111	중국 조선족	0.135**	-0.015	0.120**
중국한족	-0.229**	.088*	-0.141	베트남인	0.066*	0.022*	0.088**
베트남	-0.051	-0.069*	-0.120	태국인	-0.197***	0.033*	-0.164***
인도네시아	0.117	-0.004	0.113	인도네시아인	0.072*	0.005	0.078**
성별	-0.145**	0.026	-0.119*	성별	-0.157***	0.049***	-0.108***
혼인상태	-0.108	0.016	-0.092	혼인상태	-0.033	-0.001	-0.035
연령	-0.087	0.049	-0.038	연령	-0.027	-0.007	-0.034
학력	-0.047	0.061*	0.014	학력	0.017	-0.006	0.010
임금	0.076	-0.063*	0.013	임금	0.057*	-0.029***	0.028
근무시간	-0.123*	0.043*	-0.080	근로시간	0.162***	0.027***	0.189***
거주기간	0.037	-0.044	-0.006	거주기간	0.097***	0.023***	0.120***

주: 1)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이며, 통계적 유의도는 비표준화계수에 대한 검증임.

2) * $p < .05$, 단측검증. ** $p < .01$, 단측검증. *** $p < .001$, 단측검증.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의 직접효과는 본국친구모임(-0.152)의 참여가 낮고, 기타단체 참여(-0.141)가 적으며, 한국인 친구 모임(-0.069)나 한국사회/종교단체(-0.069)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 반대로 본국 사회/종교단체(0.063)의 참여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진다. 각 변수의 유의미한 간접효과에서는 기타 참여 단체 참여와 본국인 친구의 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설 3-3 ‘사회적 자본은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를 부분적으로 성립시킨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외국인노동자와 2006년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의 변화, 그리고 1998년과 2006년 사이의 주요 정책변화인 고용허가제 이전에 입국한 노동자와 이후에 입국한 노동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 형성 메커니즘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논의했다.

1998년과 2006년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와 사회적 자본 사이 차이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와 정착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1998년 조사 때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측면과 작업장 위주의 생활범위를 갖고 있던 외국인노동자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허가제 같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외국인 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지원단체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자본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의 증가는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원의 변화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스트레스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은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직무만족도나 직무스트레스원이 시기와 제도의 영향으로 변화된 영향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에 강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외국인에 대한 정부 정책은 다문화사회 아래 여러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단체 지원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부재

를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종류에 따른 여러 스트레스원의 감소와 증가에 대한 결과는 정기선(1999)의 연구결과와 같은 선택효과로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도움을 얻기 위해 관련 자원을 찾게 되고, 해당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더 자세한 분석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1998년과 2006년 조사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이로 인한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원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인한 직무환경 변화로 직무스트레스원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문화적응스트레스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에 영향을 주었지만, 단편적인 직무관련 스트레스원 감소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속적인 스트레스원인 문화적응스트레스원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새로운 문화권에서 적응하고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형면. 2006.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황과 전망.” 《민족연구》 28: 6-19.
- 고혜원·이철순. 2004.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과정.” 《한국정책학회보》 13(5): 17-42.
- 김병숙·김봉환·김완석·이종목. 1999. 『직업심리학』. 박문각.
- 김상욱. 1998. 『사회통계학』. 미간행원고.
- 김영란. 2008.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담론201》 11(2): 103-138.
- 김용학. 2004. 『사회연결망이론』. 박영사.
- 김현주·전광희·이혜경. 1997. “국내 거류 한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인문학보》 40: 105-139.
-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ps.go.kr/>
- 류혜정. 2004. “고용허가제 약인가. 독인가.” 《월간 복지동향》 73(11월호): 16-20.
- 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국제노동력이동과 사회적 자본: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겨울): 819-849.

- 박형기. 2003. “외국인노동자의 근로 및 사회적 조건과 심리적 적응.”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 _____. 정기선·이정환·이혜경·강수돌. 2003.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_____. 정기선·장준오. 1998. 『외국인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2.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시민권.” 《시민과 세계》 2: 345-356.
- 유명기. 1995. “재한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 145-181.
- _____. 1997. “외국인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 69-97.
- 이명희·박정일·구정완·임현우. 199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9(2): 309-319.
- 이정환·이성용. 2007.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의 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30: 147-168.
- 정기선. 1994. “해외 일시취업과 스트레스” 《한국사회학》 28: 115-141.
- _____. 1998.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이혜경·정기선·강수돌·설동훈·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pp. 105-159.
- _____. 1999.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1999(12): 61-78.
- _____. 2003. “외국인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호·이혜경·강수돌·정기선·이정환 공저. 『외국인노동자의 정신건강』. 지식마당. pp. 325-351.
- 정수진·고종식. 1998. 『산업 및 조직심리학』. 삼우사.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최홍엽. 2008.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노동법연구》 25: 185-211.
- Ball, P., H. Giles, and M. Hewstone. 198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Intergroup Theory with Catastrophic Dimensions.” *European Developments in Social Psychology* 2: 668-694.
- Bateman, Thomas S., and Stephen Strasser. 1983. “A Cross-Lagged Regression Rest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Tension and Employee Satisfac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3): 439-445.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Cooper, C. L., and J. Marshall. 1976. “Occupational Source of Stress: A Review of Literature Relating to Coronary Heart Disease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49:11-28

- French, J. R. O., W. Rogers and S. Cobb. 1974. "Adjustment as Person-environment Fit." pp. 316-333 in *Coping and Adaptation*, edited by G. V. Coelho, D. A. Hamburg, and J. E. Adams. New York: Basic Books.
- Kinloch, Graham C. 1973.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Social Distance in Hawaii."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57: 156-167.
- Lin, Nan. 1982. "Social Resources and Instrumental Action." Pp.131-145 in *Social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 edited by Peter Marsden and Nan Lin.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Massey, Douglas S., Joaqui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c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 Muchinsky, Paul M. 2000. 『산업 및 조직심리학』. 유태용 옮김. 시그마프레스.
- Schuler, R. S.. 1980. "Definition and Conceptualization of Stress in Organiz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5: 184-215.
- Selye, H. 195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2012. 3. 3. 접수; 2012. 3. 31. 수정; 2012. 5. 1. 채택)

Stres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Mihee Ban

Hyundai Research Institute

Seokho Kim

Sungkyunkwan University

Jungwhan Lee

Cheongju University

This study was focused on a stres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between 1998 and 2006. The stress of foreign workers have been affected on the social system and social capital. In 1998, the status of stay for foreign workers was industrial training (D-3). In 2006, however, the status of stay for them was changed to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This difference for the status of stay resulted in the transition of working status, working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This study argued the stress model to explain to the change with the data in 1998 and 2006. The stress model was included in the factor of job stress, the factor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ocial capital. The social capital of foreign workers, especially, have influenced the stress and cultural assimilation of them. This study proved not only the direct effects on the stress of social capital but also the indirect effects on the factor of acculturation stress with this id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ocial capital of foreign workers was increased and the factors of stress were changed between 1998 and 2006.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system such as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resulted in the change of working environment. This change affected to decrease the impact power of the factor of job stress. This study also showed the necessit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or of cultural assimilation, which influenced the stress remarkably.

Keywords: Foreign workers, stress, employment permit system, acculturation, social capital

연구논문

한국내 외국인 무슬림들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과정: 전주 이슬람 성원(聖院)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예찬*

본 연구는 전주 지역의 이주 무슬림들이 한국사회로 이주함으로써 이전과 달리 종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종교로 인해 어떤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관한 연구다. 또한, 사회적인 적응하면서 무슬림들 간의 관계망 형성 및 한국사회, 한국인과의 관계 맺기 양상에 관한 연구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한국의 다문화 관련 논의 중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새로운 연구 주제로 살펴보았으며, 한국사회의 담론 속에서 이주 무슬림들의 적응과정 중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주 무슬림은 한국사회에서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엄격히 종교 교리를 지키지 못한다 하여도 그 안에서 스스로 무슬림적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성원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종교 공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슬람을 강조하여 이주 무슬림에게 동질감 및 일체감을 주었다. 또한, 성원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적응하는 데 있어서 받은 갈등과 혼란에 대해 심리적 완충재의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기능도 한다.

주제어: 이슬람, 무슬림, 이주민, 사회적 관계, 다문화주의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yechan@jbnu.ac.kr.

I. 서론

1. 연구목적

1980년대의 이주노동자, 1990년대의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유학생 등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이주를 해오면서 오늘날 한국은 이른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¹⁾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도 사회구성원이 되어 살아가는 외국인 거주자들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거주자들은 한국에 오기까지 이주 노동, 국제결혼, 유학, 사업 등 다양한 이유와 계층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거주자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제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와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주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종교에 대한 논의는 적은 편이다. 물론 이주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실질적인 동기 즉, 결혼이나 노동과 이주자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종교를 같은 차원에 놓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 사회 내에서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를 지지하는 다문화주의의 주된 논의의 대상은 이주노동과 국제결혼이다. 이에 반해 한국사회 내 수많은 종교 중 특히 이슬람은 테러리즘과 연관된 것으로 여겨져 다문화주의와는 동떨어진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한국의 이슬람을 대표하는 ‘한국이슬람중앙성원²⁾’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9개의 성원과 50-60여개의 임시예배소가 있으며 국내 거주 무슬림³⁾들은 약 10-1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에 대한 시선은 여러 사건이 얽히게 되면서 곱지 않은 양을 보였다.

김선일 씨 피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이슬람 성원에도 협박 전화가 잇따라 걸려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이태원동 이슬람 성원에는 오늘 새벽 3시반부터 성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20여 차례 걸렸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협박범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발신지를 추적하고 있으며 전국의 40여개 이슬람 성원에 경찰병력 3백여명을 추가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이슬람 신도들도 피살소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5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593,665명)의 2.2%이며, 2008년 891,341명보다 215,543명이 증가(24.2%)하였다.

2) 성원(聖院)은 모스크와 같은 말로 이슬람의 예배당이다.

3) 무슬림(Muslim)은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를 뜻한다.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는 오늘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MBN, 2004.6.23.).

실제 김선일 피살사건 이후 단순히 협박 전화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돼지의 피가 이슬람 성원에 뿌러지거나 피한이 난입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때의 격앙된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이슬람은 우리와 동떨어지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서구의 부정적인 지배적 담론의 영향과 지난 김선일 피살사건과 샘물교회 피랍사건 등 여러 사건으로 인해 이슬람은 곧 아랍이며, 테러와 복수, 폭력의 종교라는 인식이 깊게 남아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 개신교의 영향⁴⁾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례로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슬람에 대한 비방론⁵⁾을 들 수 있다.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로 대변되는 폭력적 이미지, 일부다처제와 히잡⁶⁾으로

-
- 4) 윌리엄 와그너 박사는 32년 동안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사역했으며 미국과 유럽 교회에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그는 “무슬림은 208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고 한다. UN 통계에서도 2050년 전 세계 청년의 절반이 무슬림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강조했다. 와그너 박사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선교사를 의미하는 ‘다와’는 한국이 보낸 선교사보다 많다. 그들은 유학생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모스크’를 세우며 이슬람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 세계 1,000여 개의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고 있는데, 파손된 교회를 사들여 ‘모스크’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이 결혼을 할 때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기독교인과 결혼한다. 이슬람권에서는 아내를 택할 때 하는 거짓말은 인정하기 때문이며 많은 여성이 거짓말을 믿고 결혼했다가 무슬림이 된다. 와그너는 한국이 이슬람의 포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이슬람은 1988년 한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화하여 아시아 이슬람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한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미래한국》, 2007.9.27.).
 - 5)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이슬람 비방론은 외국 이슬람 신자들이 유학·이민·결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해 국내에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이슬람이 국내 ‘좌빨’들과 힘을 합쳐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이슬람교가 한국을 ‘점수’하기 위해 전면 공세를 펼친다는 주장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선교사가 무려 1-2만명에 이르고, 국내 이슬람 신자가 30만명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동의 석유 부자나라들이 막대한 자금으로 이를 뒤에서 지원하면서 국내에 이슬람 은행과 대학 건립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따라붙는다. 여기에 ‘결혼·출산 전략살’도 나돈다. 2007년 한 해에만 한국 여성 2500여명이 한국에 이주한 이슬람 신자들과 결혼했다는 소문이다. 이런 음모론은 점점 발전해 “이슬람은 이미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한국을 찍어두고, 2020년 이슬람화 목표를 세웠다”며, “2005년 11월 이슬람 한국 전래 50주년 기념식에 모인 이슬람권 지도자들이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하려는 ‘비전 2020’을 발표했다”는 그럴듯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살이 붙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보고서라는 것도 등장했다. 이희수 교수가 우려한 이른바 ‘이슬람의 8단계 침투 전략’이 바로 이 문건에서 나왔다는 소문이다. 이슬람교 인구가 1% 안팎일 때는 평화를 사랑하는 소수그룹을 지향하며 잠복(1단계)하다가, 이슬람 선교를 서서히 진행시켜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면 이슬람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인종청소와 대학살까지 자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00%를 이루게 되면(8단계) 이슬람 율법이 헌법에 우선하는 신정일치체제를 구현한다는 주장이다(《한겨레》, 2009.1.23.).
 - 6) 히잡(hijab)은 이슬람의 전통복식 중 하나로 이슬람 여성들 가운데 특히 시리아, 터키 등 아랍권

연결되는 여성억압 등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이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분명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이슬람권 노동자, 유학생이 한국사회로 진출하면서 무슬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초국가적 이주 네트워크로서 기능도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사회에 있되 시선에서 제외된 채 마치 투명인간처럼 인식됐던 이슬람은 비록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김선일 피살사건, 샘물교회 선교자 피랍사건이나 이슬람권 이주민들의 이주로 인해 점차 한국사회에서 서서히 수면위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외중에도 여전히 무슬림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 지역의 이주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이주함으로써 인해 이전과 달리 종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은 어떤 것인지, 종교로 인해 어떤 갈등을 겪으며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 적응과 무슬림들 간의 관계망 형성 및 한국사회·한국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검토

이주민들이 해당 이주사회로 편입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이주사회의 가치가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어느 순간에서는 타협과 갈등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주민들은 본국과 다른, 이주사회에서 오는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고민과 갈등을 하며 그 안에서 나름의 적응전략을 마련한다. 이때 종교는 단순히 특정 대상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공동체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각자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양상이 나타난다. 이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적응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종교적 역할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이주민은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주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사회의 가치를 준수하느냐, 한다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된다. 본국에서 가졌던 특정 종교 언어의 사용이나 히잡이나 수염, 터번 등의 외양적 모습, 예배와 음주, 음식금기 등을 철저히 지키느냐와 다소

여성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쓰는 쓰개이다. 그 밖에 이란 등지의 쉬아파 여성들이 입는 차도르(chador),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입는 아바야(abayah), 아프가니스탄 등 아라비아반도 일부와 베두인족 일부가 입는 부르카(burqah)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신체 대부분을 가리는 것과 달리 히잡은 머리와 가슴 일부만 가린다.

유연하게 적용하느냐의 입장은 민족 혹은 종교적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주민의 유입과 통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이미 늘어나는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들을 통합할 것인지 그 속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이 다양하다. 독일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타성으로 이주민을 일시적인 거주자로 바라보았으며 독일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속에 이주민이 동화되는 ‘독일 민족 중심의 선택적 동화주의’를 취했다. 즉, 독일의 우수한 선도문화를 중심으로 이주민이 통합이 되어야 사회적 분열을 막고 이주민의 문화적 계도화가 예방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타성은 이주민의 귀화 신청 시 무슬림을 따로 테스트하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이철용, 2007). 이주민 특히 무슬림이 이주사회로 동화되지 못하고 인종차별을 겪고 백인 위주의 사회 속에서 비주류로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영국사회역시 마찬가지다. 일상적으로 실직과 인종차별, 미디어에서 비취지는 부정적인 시선 등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안신, 2009). 프랑스와 스웨덴은 ‘동화(assimilation) 속의 통합과 배제의 공존’, ‘동화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병행’이라는 각기 다른 정책을 취하며 이주민을 통합시키려 한다. 그 안에 제한된 권리와 배제, 평등의 원칙에 따른 권리 보장과 동화 등 각 국의 전략은 다르지만 정책의 이면에 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통합시키고자 한다는 점에는 같다(곽원섭, 2007).

이주민은 배타적인 이주사회 분위기 속에서 저마다 각기 다른 적응양상을 보인다. 김정학(2004)에 따르면 호주의 휘지계 인도인들은 의례행위나 의사소통과정에서 힌두어를 사용, 힌두어를 잘 알지 못 하는 젊은이들이 힌두어를 익히게 하며 이와 더불어 전통음악계승을 통해 궁극적으로 집단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다. 이런 점은 양철준(2006)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단의 종교적 정체성 유지는 한편으로 이주사회로 보다 적응하고자 하는 이들과 갈등을 빚기도 한다. 호주의 휘지계 인도 무슬림들은 가급적 이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상들을 지양하려는 이들과 무슬림적 정체성 약화를 우려하여 자국에서 보다 종교적 규율을 강조하는 이들이 대립하면서 서로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충돌하면서 급기에 집단의 분화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김정학, 2003).

또는 이주민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종교적 규범을 변용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당국에서 공인한 종교로 개종을 하거나 본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유, 불, 선이 혼합된 종교관에서 공식종교의 조건에 맞게 유일신과 교리, 선지자의 개념

을 도입, 변형시켰다(신윤환, 1996). 미국의 무슬림들 역시 미국적 가치와 이슬람적 가치 속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도 미국교회의 운영방식에 따라 모스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이맘은 종교적 활동에만 전념하는 여타 이슬람 국가의 이맘과 달리 행정이나 카운슬링을 하고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세미나를 여는 등 사회적 활동까지 겸하면서 변모를 꾀한다(이희수, 2004).

한편으로 이주민이 이주사회에 사회·문화적 적응을 함에 있어서 종교와 종교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있다. 그중 미국, 호주 등 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정착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많다(설병수, 2001; 정효진, 2003).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면 첫째, 이주 한인들은 기독교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 및 심리적·정서적 만족감을 얻는다. 이주민은 해당 이주 사회에서 소수자, 이주민에 불과하기에 적응과정에서 낮은 사회에서 오는 불안감과 불안정한 경제적·사회적 지위로 인해 심리적·사회적 갈등을 겪는다. 이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친분을 나눌 대상을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의사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이주를 함으로 상실했던 기존의 사회적 지위가 교회 내에서 직분을 통해 새롭게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심리적·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둘째, 교회는 심리적 완충제 역할을 넘어서 “영어교육, 고용상담, 직업적·법률적·의료적 상담, 주택봉사, 간호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한다(김일수, 1990: 175). 특히 영주권 관련 법적 지원이나 여타의 프로그램 제공은 일정한 신도를 확보함에 있어서 기폭제가 되기에 교회차원에서 관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뉴욕 한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미국 내 여타 한인들 및 호주 한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주민들은 교회 내에서 지역별, 연령별로 나뉜 각종 소모임 등 촘촘히 짜인 공동체 활동과 더불어 교회에서 제공하는, 적응에 필수적인 각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한편으로 이주민의 종교에 대해 해당 이주사회의 이해도와 관련이 있다. 김선임(2010)과 이정환(2003)에 따르면 한국으로 이주한 필리핀인이 미국 내 한인 연구에서 볼 수 있었던 점과 마찬가지로 종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정서적 만족감을 얻으며 의료 및 법률서비스 등 여타의 지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필리핀 이주민 공동체가 가톨릭을 매개로 하여 형성, 유지될 수 있었던 점은 한국사회에서 가톨릭이 낮은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 병원 가톨릭 의사회 소속 의사의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등 한국의 가톨릭 단체와 연결이 되어 긴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점도 작용한다.

한국에서 이주 무슬림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의 문화 변이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 속 코슬림과의 공존과 상생을 위하여”라는 대주제 속에서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를 다룬 1차년도 연구⁷⁾와 혼인을 통한 정착 과정과 문화적응양상을 다룬 2차년도 연구⁸⁾ 및 황병하(2008, 2010)를 꼽을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시각은 종교적·문화적 변수 및 계층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이주 외국인들이 적응함에 있어 인종과 민족적 변수를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현황파악에 그쳤다면 이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 행위로 나타나기에 종교적·문화적 변수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유학생 등 이른바 고급인력들의 유입이 두드러지는데 근래의 연구 대상이 외국인노동자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9.11테러 이후 이슬람국가에서 서구권으로 유학을 지양하기에 국내로 유입되는 무슬림들의 계층이 다양해져서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자와 더불어 유학생, 전문기술인력으로써까지 연구의 대상을 확장했다.

한국에서도 이주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체로 이들은 일시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일 뿐 정착,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 살아갈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주민은 잠시 온 ‘손님’의 개념일 뿐 함께 살아갈 ‘이웃’이 되지 못 하는 것이다. 인종·문화적인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고 이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한다. 그 정도가 유럽 사회보다 약하다하여도 기저에 깔린 인식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개인의 이주는 국가의 개입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수의 이주민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에 거주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럽사회의 이주민의 동화와 이화, 통합의 과정을 선례로 삼아 일방적인 배제보다는 이주민 통합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7) 한국사회 내 터키인 무슬림 이주자의 현황 및 사회적 조직(김대성, 2008), 한국 이주 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집단화(김효정, 2008), 한국 이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사회적 연결망(안정국, 2008), 한국 이주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오종진, 2008), 한국 이주 아랍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조희선, 2008),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조희선 외, 2008a),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조희선 외, 2008b).

8) 한국사회 이주 비아랍국민(터키인과 이란인)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김대성, 2009), 한국 이주 남아시아 남성 무슬림 근로자의 문화적응모델연구(김효정, 2009), 한국 이주 인도네시아 여성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안정국, 2009),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오종진, 2009), 한국 이주 아랍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조희선, 2009), 한국 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연구(조희선 외, 2009).

3. 연구과정과 방법

연구자가 전주이슬람성원에 처음 방문했던 건 2009년 9월 라마단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당시 연구자가 지내던 연구실에 방글라데시인 무슬림이 있어 전주에 이슬람성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호기심 차원에서 무작정 방문했다. 연구자가 낯선 존재임에도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모두들 환영해줬으며 이슬람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줬다. 또한 이튿날에 열린 이드 알 피트르 축제(Eid ul-Fitr)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자신의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주일에 2-3회씩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이슬람에 대해 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몇 주가 걸리는 등 전반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예배를 드릴 때 아랍어로 진행이 되었으며 성원에서 만날 수 있었던 무슬림도 영어와 각자의 모국어를 사용했기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성원에는 한국인 무슬림 가족이 있었으나 직장생활을 하는 관계로 거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이주 무슬림을 논문 주제로 삼고 2010년부터 예비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전주 성원에서 개설한 아랍어 수업을 신청하여 수강하면서 이주 무슬림들과 라뵘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나 이주 무슬림들과 진도차이가 나서 따로 수업을 받았으며 수강생 전원 남성 무슬림이어서 쉽사리 말을 걸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구자의 호기심을 전주 성원 이맘은 관심으로 받아들여 소개를 시켜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극적이거나 이맘의 며느리에게 역으로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기회를 엿보아야 했다. 그러던 중 그나마 친밀한 관계를 맺은 몇몇 이주 무슬림은 귀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조사는 답보 상태에서 2010년 말 장기간에 걸친 예비 현지조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2010년이 되어 말레이시아로 약 한 달간 해외 조사를 나가 실제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의 생활을 엿보고 돌아온 후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현지조사와 달리 새로운 이주 무슬림들이 전주 성원에 다니기 시작해 이들의 적응과정을 볼 수 있었으며 지난 5월에 있었던 전주 무슬림 연례 야유회에 따라갔던 것이 계기가 되어 연구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이전에 성원에서 만나도 가볍게 인사만 나누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 같이 여행을 떠나 놀고 먹으며 친분을 쌓을 기회를 얻은 것이다. 특히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말레이시아 무슬림인 야스민의 도움을 얻어 다른 무슬림과 연결해나갈 수 있었으며 덕분에 많은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전주 성원 이맘의 아들로 이주 무슬림 1.5세대인 하산이 서울생활을 접고 전주

로 귀향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는 이전에 연구자가 매일 자신의 아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것에 호감을 표해 그동안 함부로 말을 걸 수 없었던 남성 무슬림들을 연결해주어 조사가 가능하게 했다. 이들을 통해 전주 성원을 중심으로 하여 국적, 성별, 직업과 관계없이 이주 무슬림을 알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무슬림의 요청에 의해 모든 인명은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현재 전주에 살며 전주 성원을 다니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과거에 살았던 이들은 현재 살고 있는 해당 지역을 표기하였다. 인터뷰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영어나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 통역하는 방법을 취하였기에 깊은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끝으로 이주 무슬림이 논문 주제로 정해지기 전,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슬람 성원에 다녔기에 연구자의 연구목적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진 인터뷰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II. 전주 이슬람 성원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

1. 한국에서 이슬람의 역사: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

1920년대 약 200여명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이 볼셰비키 혁명 이후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망명,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역사상 명맥이 끊겼던 이슬람과의 접촉이 20세기에 들어 다시 시작되었다. 투르크계 무슬림들은 1945년 한국의 독립과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해외로 이주하기 전까지 서울 인근에서 상업과 국제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민족학교와 이슬람 성원을 세웠으며 코란을 발간하고 무슬림 묘지를 확보하였다. 투르크계 무슬림의 점포에서 일하던 몇몇 한국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그곳의 무슬림과 접촉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당시 만주에 거주했었고 후에 무슬림으로 개종하여 오늘날 한국인 무슬림 1세대로 인정받는 윤두영(Imam Muhammad), 서정길(Haji Sabri), 김진규(Haji Omar)의 주장에 따르면 만주에는 많은 이슬람 성원과 무슬림 공동체가 있었으며 이들과 접촉했던 한국인들도 몇몇 개종했다고 한다.

〈그림 1〉 터키 군부대에서 입교선서를 하고 있는 한국인(좌)과 터키 종군 이맘으로 부임하여 한국 이슬람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베이르 코치(우)



자료: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http://cafe.daum.net/islamworld>)

이후 오늘날 한국 이슬람 형성의 발판이 되었던 계기는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에 이슬람 국가로서 유일하게 터키가 참전하면서부터다. 당시 한국인 무슬림이었던 김진규(Haji Omar)가 터키군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던 사촌 신백철에게 부탁하여 금요합동예배 참가가능여부를 타진하였는데 결국 1953년 말에 이르러 터키군의 승낙을 받아 금요합동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을 사상·문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또한 1955년 종전 이후 터키군에서는 종교적 대민접촉불가를 철회하고 부분적 대민 접촉을 묵인하였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압둘가푸르 카라이스마일오울루(Abdulgafur Karaismailoglu) 터키 제 6여단 종군이맘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선교에 발벗고 나서게 된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김진규와 윤두영을 필두로 한 한국인 39명이 개종을 하면서 한국인 무슬림 1세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급기야 1955년 9월 15일 김진규와 김유도가 중심이 되어 ‘한국 이슬람 협회’를 결성하였다. 신도 70여명과 더불어 초대 최장에 김진규, 부회장겸 사무국장에 윤두영이 추대되어 활동을 하면서 한국인에 의한 이슬람 선교의 물꼬가 터졌다.

〈그림 2〉 한국이슬람중앙회를 만든 한국인 무슬림



자료: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http://cafe.daum.net/islamworld>)

한국인 무슬림들은 압둘 가푸르 이맘을 초청하여 이슬람 강연을 열고 이듬해에는 협회 산하 ‘청진학교’를 설립하여 중등교육 및 이슬람 교육을 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후 주베이르 코치(Zubeyir Koch)가 새롭게 터키 종군이맘으로 부임하면서 선교활동은 더욱 가속화되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근대 한국 이슬람 역사상 최초인 임시 이슬람 성원을 만들게 된다. 성원에는 ‘멘테레스’ 당시 터키 수상 및 여러 이슬람권 지도자들이 다녀갔으며 또한 이 시기 208명의 한국인이 입교하였다.

한국인 무슬림들은 터키군의 철군 이후에도 조직적으로 국내 선교활동 및 다른 이슬람 국가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슬람 국가와의 유대강화와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 각 이슬람 국가를 순방하며 한국이 실정을 알리고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보에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관심을 보여 1962년 압둘 라작 부수상 내외를 시작으로 하지 노아 국회의장 등이 내방해 성원 건립 기금을 지원받기도 하였으나 극심한 재정난으로 성원 건립은커녕 이슬람 협회가 분열되는 침체를 맞기도 하였다.

약 10여 년간의 난관을 극복하고 분열된 여러 이슬람 단체들은 1965년 하나로 통합하여 오늘날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의 전신인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를 발족하였다. 67년 3월에는 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을 하여 공인된 교단으로 인정받

〈그림 3〉 초창기 이문동 임시 성원에 모인 한국인 무슬림들(좌)과 서울중앙성원 개원 당시 국민들을 영접하는 최규하 전 국무총리(우)



자료: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http://cafe.daum.net/islamworld>)

았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 이슬람의 대부로 추앙받는 파키스탄 종교지도자인 사이드 무하마드 자밀(Saiyd Muhammad Jamil)의 도움을 받아 체제를 정비하고 전세계 이슬람 국가들에 한국인 무슬림들의 활동과 더불어 성원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1970년 중동지역과의 교류를 염두한 박정희 대통령이 한남동에 있는 시유지를 이슬람 성원 건립 부지로 1,500평을 하사하면서 성원 건립은 물살을 타게 된다. 적극적인 호소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국이 원조하여 결국 성원 건립 모금액을 확보, 1976년 5월 중앙 성원이 건립하게 된다. 그리고 건립 기념행사로 “소수 무슬림 국가에 있어서의 이슬람 포교” 라는 주제로 국제 이슬람 학술대회도 개최하였다. 터키군의 금요합동예배 때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슬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지 20여년 만에 정식 이슬람 성원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는 단순하게 하나의 예배 공간이 들어선 것을 넘어서 한국 내 무슬림들을 지원하는 곳이자, 이슬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이들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곳, 한국을 찾는 외국인 무슬림이 들릴 수 있는 곳 등 한국사회와 이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성원 건립과 더불어 1970년대 당시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 국내 이슬람 선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비록 취업이나 유학 등의 여타의 목적을 가지고 개종한 이도 있었지만 당시 약 3 천명이던 한국인 무슬림은 개원 후 3년 간 1만5천명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위세는 지방으로 확대되어 1976년 말 부산에서는 압둘라힘 김

명환을 중심으로 임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80년 전국에서 두 번째 성원이 건립되었다. 이후 1981년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세 번째 성원이, 이어서 1986년에는 안양과 전주에 각각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슬람 성원이 건립되었다.

지방 성원 건립과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원 하에 이슬람 대학 설립이 논의되었고 연합회 산하의 대학생들은 한국 내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여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 중동으로 파견된 수십만의 한국인 근로자들은 귀국 후 힘든 종교생활을 이유로 변심하였고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또한 1세대 원로 무슬림들이 사망함으로 내부적으로 세대교체의 변화를 겪으며 조직 내부의 교권 분쟁도 벌어졌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 무슬림들이 근로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여 때로는 예배를 드릴 시 공간이 부족하여 밖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다. 또한 그동안 대개 한국인 무슬림만 모였다면 이후 각 성원마다 내부적으로 성원 구성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외국인노동자, 유학생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당시 전국 5개의 이슬람 성원으로는 예배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곳곳에 예배소와 이슬람 센터가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러 전국에 8개의 이슬람 성원 및 약 60여개의 예배소가 있으며 한국에는 한국인 무슬림 약 3만5천여명을 포함하여 10여만이 넘는 무슬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전주 이슬람 성원의 역사

예나 지금이나 전주는 대도시도 아니고 대규모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듯 외국인이 유입이 힘든 여건 속에서 1976년 서울 중앙 성원, 1979년 부산, 1981년 경기도 광주에 이어 1986년 전국에서 5번째로 이슬람 성원이 들어서게 된다. 아직도 한국에서 낯선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중동의 종교로 인식하는 이슬람과 이슬람 성원이 전주에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 무슬림이 있었다.

당시 전북, 익산 등지의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덕진광장 사거리 인근에 공간을 만들어 예배를 드리고 이슬람에 대해 공부를 하였다. 그러던 중 1984년 현재 전주 성원의 이맘인 학압두 이맘⁹⁾과 한국인 선교사 이행래, 문세조가 여러 도시의 무슬

9) 본래 이름은 압둘 와합 자히드(Abdul Wahab Zahid)로 2005년 귀화를 하면서 학압두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했다.

〈그림 4〉 전주 성원이 막 세워졌을 당시와 현재의 성원 모습



림을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이들이 지하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인 무슬림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학업 두 이맘이 기존에 알고 지내던 이집트 사업가 압둘 라티프 알-살리프 형제를 통해 성원 건축금으로 23만 달러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중앙 성원이 전주 성원의 건립을 추진하여 1986년 11월 28일 전주 인후동 2가에 ‘전주 이슬람 성원(전주 아브바크르 알-시디끄 성원, Jeonju Masjid Abu Bakr al Siddiq)’이 개원하게 되었다.

1984년 나는 여기 전주 왔어요. 다른 한국 사람 선교사, 이행래하고 문세조하고 여기 같이 왔었어요. 학생들 만나 또 문세조 친구 만났어요. 또 난 같이 이슬람 했어요. 이슬람 무슨 종교, 유일신 하나님 믿어, 선교했어요. 성원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인 무슬림)학생들 많아, 전북대학교, 익산대학교 학생들. 1985년 나는 돈 만들었어. 여기 성원 없어. 원래 작은 성원 있었어요. 지하, 작은 성원. 여기 바로 앞에 덕진광장 사거리 지하에. 우리는 만나서 예배했어요. 이집트 사람, 나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만들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돈을 다 줬어요. 나는 서울의 중앙 성원에 돈을 쥐서 성원을 만들었어요. 1986년 11월 28일에 열었어요. 외국인 무슬림은 한명도 없었어요(전주성원 이맘, 60대 남성).

무슬림의 회사금과 서울 중앙 성원의 노력으로 전주에 이슬람 성원이 들어섰지만 전라도에서 굳이 전주가 선택되었던 점에는 지역적 안배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6년 5월 서울, 1979년 9월 부산, 1980년 4월 경기도 광주, 1986년 4월 경기도 안양 등 이슬람 성원은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에만 있었을 뿐이었다. 충청 이남에 이슬람 성원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전주로 결정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당시 한국인 무슬림 사회에서 주축으로 활동했던 이행래, 문세조의 고향이 광주와 익산 등 전라도였는데 서울 중앙 성원과의 거리적 여건을 따져 보았을 때 광주는 멀었으며 익산은 상대적으로 도시가 작았다. 이에 반해 전주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가 들어설 정도로 인근의 도시에 비해 큰 도시면서 지리상 광주보다는 서울과 가까운 도시라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전주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이슬람에 개종한 한국인 무슬림들이 있었다. 이들은 지하 단칸방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으나 이슬람 교리 및 아랍어를 깊게 알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이에 누군가가 상주하며 이들을 지도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과 지역적 분배의 차원 속에서 전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전주성원 개원 당시 학압두 이맘(오른쪽)과 한국인 이슬람교 지도자들



전주 성원의 개원식 당시 한국에 이슬람이 전파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주베 이르 코치 이맘이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 개원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이슬람 선교에 있어 기대를 모았다. 이러한 기대에는 쿠웨이트 종교성에서 파견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선교사인 학압두 박사가 전주 성원의 이맘으로 부임한 것이 한몫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래 이슬람 법학을 전공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의 대학에서 법학교수를 지냈던 그였기에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당시 전주 인근의 무슬림들은 십 여명 정도의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여 고등학생, 직장인 등 다양했다. 전주 성원의 초창기 시절에는 청년부를 중심으로 대내외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했다.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과 연계하여 캠프를 하는 등 서울이나 여타 성원들과 교류를 했으며 내부적으로도 코란 및 교리에 관해 공부를 했다.

이는 당시 전주지역 무슬림들이 20대로 시간적인 여유와 더불어 시대적인 흐름상 사상과 철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는 분위기와 더불어 이주 무슬림들이 없어서 교리 등에 대한 이해를 원하면서도 반면에 한국인만 있었기에 이들만의 모임과 활동이 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 이슬람에 대해 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반응도 작용했다.

만약 비무슬림이 이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알려주되 그 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믿는 이슬람의 특성 상 선교나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 다만 TV나 라디오 등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갖고 이슬람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일반인에게 이슬람과 전주 성원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1998년 즈음 종교 간의 화합이라는 취지하에 원불교 방송에서 매주 1회 라디오 이슬람이라는 코너를 마련해서 이슬람에 대해 방송을 하기도 했다. 3년여 간 진행된 방송덕분에 일반인에게는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를, 무슬림들에게는 이슬람 교리를 알려주는 기회를 얻기도 했다.

전주 성원이 세워졌을 당시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땠나요? (특별한 홍보 없이) 개인 행동했어요. 친구랑 다른 친구의 친구, 그렇게 했어요. TV에서 가끔 우리한테 왔었어요.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먼저 관심을 가졌어요. TV나 한국 라디오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3년 동안 이슬람 가르침에 대해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다른 홍보 없이 그리고 우린 따로 믿으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으니까(전주성원 이맘, 60대 남성).

그러나 시간이 흘러 초기 활동했던 한국인 무슬림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 활동을 하면서 초기 전주 성원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무슬림들이 유입이 되지 않으면서 점차 성원의 활동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이 유입되면서 현재 약 300-400여명의 외국인 무슬림들과 약 200여명 가량의 한국인 무슬림이 있다. 그러나 한국인 무슬림들은 교적부에만 등록이 되어있을 뿐 실제 매주 성원에 나와 예배 생활을 하는 이들은 약 5명 내외에 불과해 오늘날 외국인 무슬림들이 전주 성원의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Ⅲ. 종교적 매개체로서의 역할: 이슬람의 다섯 기둥

무슬림은 하나님(알라, Allah)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무슬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슬람의 다섯 기둥(Five Pillars of Islam)’이 있다.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신앙의 증언(샤하다, Shahadah), 하루 5번의 예배(살라, Salat),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사(자카트, Zakat),¹⁰⁾ 라마단 달의 단식(씨얌, Siyam 혹은 싸움, Sawm) 끝으로 경제적·신체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일생에 한 번 행하는 성지순례(하지, Hajj)로 이뤄진다.

‘이슬람의 다섯 기둥’은 무슬림이 된 후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무슬림으로서 종교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무슬림은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알라 외에 신은 없다)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수-룰라”(무함마드는 신의 사자이다)라는 신앙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알라)과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믿음을 표하면서 무슬림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게 된다. 신앙의 증언은 비무슬림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때 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중에서도 자주하는 말로, 이는 무슬림이 스스로 신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재인식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무슬림은 그의 삶 속에서 나머지 4가지 기둥을 실천한다. 그 중 단식이나 성지순례는 일 년 중 특정기간에 행해진다면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이뤄지는 의례이다.

10) 자카트는 ‘정화’와 ‘성장’이란 의미로 이슬람에서는 금 85그램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는 1년 중 2.5%를 희사금으로 내놓아 궁핍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 무슬림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재산이 정화된다고 여긴다(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2003).

1. 예배(Salat)

1) 예배의 시간 및 방법

무슬림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 걸쳐 총 5번 예배를 드린다. 5번의 예배는 각각 파즈르(새벽예배, Fajr), 주흐르(낮예배, Zuhr), 아스르(오후예배, Asr), 마그립(저녁예배, Magrib), 이샤(밤예배, Isha)로 태음력인 이슬람력에 따라 그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나 새벽예배는 약 새벽 4시경, 낮 예배는 약 정오 1시경, 오후 예배는 약 오후 4시경, 저녁 예배는 약 오후 7시경, 저녁 예배는 약 오후 9시 경에 드린다. 매일 예배시간이 변경되는 만큼 성원에서는 매달 예배시간을 알리는 표를 배포한다. 기독교처럼 여타의 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정해져있다면 이슬람에서 예배는 특정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이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의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예배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 잠들기 전까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슬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앞서 반드시 그 전에 ‘우두’라는 세정행위를 해야 한다. 예배는 신과의 접촉이자 대화이기에 반드시 세정행위를 통해 불결한 몸과 마음이 깨끗이 해야 한다. 그래서 무슬림은 성원에 도착하면 먼저 우두실에 들어가 씻으며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한다. 우두실이라고 해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옆 세면공간에서 씻는 것이다. ‘우두’는 먼저 “비스밀라(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한 후 깨끗한 물로 양손과 입, 코, 얼굴, 팔꿈치, 머리, 귀, 발 순으로 각각 3번씩(머리, 귀는 1번) 씻어야 한다. 만약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 할 경우 모래로 대체 세정을 하기도 한다. 우두 후 대소변을 보거나 방귀를 끼었을 때 혹은 성적 욕망을 느끼거나 구토, 피를 흘릴 경우 몸이 불결해졌다고 여겨 이전에 했던 우두가 무효가 되므로 다시금 해야 한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우두를 진행하며 우두가 무효가 되는 사항까지 정해져있을 만큼 몸을 정갈히 하는 것은 무슬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무슬림에게 있어 우두는 의례를 진행하기에 앞서 성(聖)과 속(俗)의 경계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신 앞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갓 이슬람에 개종하여 익숙하지 않은 초심자에게 우두를 했는지를 물어 보며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예배의 방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카바(Ka'bah)¹¹⁾라는 제단을 향해 드리는데 카바는 이슬람에서 인류의 조상이라 믿는 아담이 세운 것으로 전해지는 제단으로 무슬림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이다. 이곳은 무슬림들이 매년 성지

11) 한국에서 메카의 방향은 서북서 285도로 이슬람 성원에 가면 메카의 방향 표시가 되어 있다.

〈표 1〉 의무예배의 종류

예배명	임의예배 (순나)	의무예배 (파르드)	임의예배 (순나)
새벽예배(파즈르, Fajr)	2	2	0
낮예배(주흐르, Zuhr)	2(4)	4	2(4)
오후예배(아쓰르, Asr)	2(4)	4	0
저녁예배(마그립, Magrib)	0	3	2
밤예배(이샤, Isha)	2(4)	4	2(4)
금요일예배(주무아, Jumuah)	2	2	2

자료: 『예배입문』, p.17.

순례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는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예배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기에 집이나 직장 등에서 메카의 방향을 숙지하고 있으며 여행 중일 때는 나침반을 활용하여 이를 정확히 알아낸 후에 예배를 드린다.

예배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모인 이들 중에 목소리가 좋은 이가 예배를 알리는 외침인 ‘아잔’¹²⁾을 한다. 이슬람국가라면 예배시간마다 미나렛이라는 첨탑에 올라가 소리를 외치거나 확성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한국에서 그럴 수 없기에 성원 내에서 아잔을 한다. 아잔을 하는 이를 ‘무앗진’이라 하며 아잔은 신의 유일성과 무함마드의 지위, 성원에 예배드리러 올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잔을 시작으로 예배는 다음 표와 같이 진행된다.

예배는 각각의 시간에 따라 임의예배인 순나와 의무예배인 파르드 동작의 횟수에 차이가 있으나 2라크아¹³⁾를 기본으로 하는 동작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의무예배인 파르드는 꼭 해야 할 예배라면 임의예배인 순나는 말 그대로 강제력이 없이 개인에 따라 임의적으로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좋다고 여기기에 권한다.

한편으로 이슬람에는 특별한 성직자 제도가 없다. 물론 여럿이 모여 예배를 드릴

12) 아잔은 다음과 같다.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4회) 나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언합니다.(2회) 나는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자임을 증언합니다.(2회) 예배드리러 올라.(2회)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성공을 빌러 오라(2회)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2회)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만약 새벽예배라면 ‘성공을 빌러 오라’는 말 뒤에 ‘예배가 잠보다 낫다’는 말을 덧붙인다.

13) 1라크아는 먼저 서서 가슴에 손을 모은 후 개경장이라는 기도문을 외운다. 그 후 허리를 굽히고 양손바닥은 무릎에 대는 반절을 한다. 다시금 허리를 편 후 엎드려 절을 한다. 잠시 후 몸을 일으켜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서면 1라크아가 된다. 이를 다시 반복하면 2라크아가 되며 2번째 라크아가 끝나면 잠시 앉아 ‘타샤후드’라는 기도문을 암송한다. 또한 각 동작들마다 예배 인도자가 정해진 구절을 구명한다.

때 이맘(Imam)이라는,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긴 하지만 이맘은 특정한 자격을 따지기보다 모인 이들 중 신앙심이 깊은 이라면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다.¹⁴⁾ 다시 말해서 여타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성직을 위한 특별한 과정이나 절차를 수행하여 성직자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모인 이들 중 나이나 사회적 지위, 학식 등과 관계없이 오직 신앙심이 깊은 이가 예배를 인도한다. 이슬람에서는 신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며 공동체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신과 개인이 중간에 매개자를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개인의 신앙을 더 강조한다. 때문에 특정한 이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에서는 누구나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과 더불어 예배가 설교나 여타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각 가정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환경에 노출되어 자라다보니 기본적인 예배절차나 코란에 대해 숙지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이 밑받침이 되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전주성원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교사로 파견된 시리아 출신의 이맘이 있어 그가 주로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의 부재 시 어느 누구라도 이맘을 대신하여 예배를 진행한다.

이슬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르마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원에 도착한 무슬림들이 저마다 우두를 끝내고 예배실로 모인다. 금요일이기에 2라크아의 기도를 하는 순나를 마친 후 본격적인 예배가 시작하길 기다린다. 이윽고 시간이 되자 ‘알라 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로 시작하는 아잔의 외침이 들려온다. 두 명 이상의 무슬림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 중에 한 명이 예배 인도자가 되는데 성원에서는 특별히 이맘의 부재가 아닌 이상 이맘이 행하는 편이다. 예배 인도자가 앞에 서서 진행을 하면 참석한 다른 신자들은 그 뒤에 서서 어깨를 맞대고 일렬로 늘어선다. 절은 인도자의 리드에 따라서 진행이 되며 먼저 가슴에 손을 얹은 후 기도문을 읊는데 이때의 기도문은 개경장 및 인도자가 선택한 코란의 한 구절이다. 저마다 속으로 기도문을 따라 외우며 잠시 후 허리를 굽혀 양쪽 무릎에 손을 대는 반절을 한 후 다시 차렷 자세를 했다가 절을 한다. 이때 이맘이 땅에 닿아야 하고 양손은 어깨 넓이로 퍼서 엎드린다. 잠시 후 몸을 일으켜 잠깐 앉아 있다가 다시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선다. 이를 다시 반복해 2라크아가 끝나면

14) 이맘 추대에 대해 무함마드는 “코란을 가장 잘 암송하는 자가 이맘으로서 가장 먼저 추대되며,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이맘에 추대되느니라. 만일 같은 조건을 가졌다면 연장자가 이맘이 되어야하느니라.”고 말했다 한다.

〈그림 6〉 전주 이슬람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남성 무슬림들



주: 이맘의 진행 아래 일렬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자료: 영삼성: 내 삶의 Pathfinder (<http://www.youngsamsung.com>)

공식적으로 금요합동예배가 끝이 난다. 이후 다시금 임의예배인 순나를 위해 2라크아를 하는 것으로 예배가 마무리 된다. 위의 과정에 따라 예배를 드리면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 예배가 끝난 후 잠시 성원에 남아 대화를 하다가 저마다 일상생활로 돌아간다.

예배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은 숙련자에게는 익숙한 일이겠지만 이제 막 이슬람에 입문한 초심자에게는 우두에서부터 예배 시 각각 동작이 낯설뿐더러 동작마다 예배 인도자가 읊는 구령이나 기도문이 아랍어인 관계로 이를 숙지시키기 위해 예배입문에 관한 책자가 따로 나와 있다. 또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담은 코란이 아랍어로 쓰인 관계로 아랍어의 숙지를 중요하게 여겨 성원차원에서 아랍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신에게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자신의 모국어로 해도 상관없지만 공식적인 예배 시 세계 어느 곳에서 그

누가 예배를 드려도 아랍어로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주성원에서는 매일 저녁예배 후 코란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갖는다.

2) 예배 장소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릴 때 개개인이 각자 알아서 하거나 혹은 여럿이 모여서 드리기도 한다. 예배장소 또한 이슬람성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여기나 이는 강제사항이 아닐 뿐 집이나 학교, 직장 심지어 도로 등 특별히 불결하지만 않다면 어느 곳에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릴 수 있다. 예배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국가의 경우 길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가급적 성원이나 집 등에서 드리는 편이다.

보통 예배는 각자 알아서 드리는 편이지만 금요일 정오경에 합동으로 드리는 ‘주므아’는 개인예배로 대신할 수 없기에 성원에 가야 한다. 코란에서는 이 날 만큼은 반드시 성원에 모여 합동으로 예배드릴 것¹⁵⁾을 명령하고 있다. 특히 남성 무슬림의 경우 성원에서 주므아 예배를 합동으로 드리는 것이 의무이다. 때문에 평소에는 주로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생활을 하지만 금요합동예배만큼은 근처에 있는 성원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금요합동예배를 통해 무슬림들은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서로 간의 사회적 연결망이 공고화되며 이슬람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긴다.

하지만 비이슬람국가라는 한국사회의 특성 상 근무 혹은 수업 등으로 인해 의무 예배인 금요합동예배에 참석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예배시간이 아무리 점심시간에 진행된다 하여도 평일에 이뤄지며 성원까지 왔다가 다시금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가기에 시간이 빠듯할뿐더러 약 오후 1시경에 진행이 되어 점심시간과 미묘하게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국가의 경우 성원이 도시 곳곳에 있기에 언제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상 성원의 수가 많지 않기에 참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이슬람 성원은 전주에 하나 있기에 전라북도 지역은커녕 전주에서도 참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평일에 이뤄지는 예배 때는 대개 약 10여명 미만이 참석을 하며 의무적으로 성원에서 드려야하는 금요합동예배 때도 20-30여명 정도만 참석을 할 뿐이다.

15) “민는 자들이여! 금요일에 예배시간이 알려지면 모든 용무를 멈추고 알라를 염원하기 위해 서둘러라. 너희들이 안다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으니라.”(62장 9절)

〈그림 7〉 예배를 위해 모인 무슬림들



주: 익산에 사는 한 무슬림이 이제 막 터미널에 도착했음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자 잠시 예배를 미루고 기다리고 있다.

원래 무슬림이라는 게 기도를 꼭 이슬람성원에서 안 해도 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든지 할 수 있고. 특별히 모여서 하는 건 금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직장문제로 거기서 허가를 해주면. 금요일에는 일을 해야 하니까 허가를 해주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여건에 맞춰서 올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고(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학교 건물 같은데 (예배실) 없어요. 그래서 기도 하고 싶으면 기숙사에, 집에 가야해요. 실험하다가 집에 가도 괜찮아요. 아니면 실험실에서 (기도) 해요. 외국인 친구가 연구실 고참이라서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이슬람 친구는 안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 가야돼요. 말레이시아에는 건물 하나 마다 (예배실)이 있어요. 여기서는 힘들어요. 남자는 성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 Have to go. 주르마는 남자만 가요. 여자는 괜찮아요. 여기만 주르마 때 성원에 가요. 말레이시아에 있었을 때는 안 가요. 여기는 무슬림이 안 많아서 여자도 가요. 여기는 예배 때 한 30명? 안 많아요. 평소에 사람이 안 많죠? 왜냐하면 힘들니까. 매일 매일 성원에 마그립, 이샤 때 5명 정도만 가요. 힘들니까. 너무 가고 싶는데 여자도 별로 없으니까. 성원에 주르마 때도 없으니까(야스민, 20대 여성, 학생).

금요합동예배에 참석하지 못 한다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휴일인 주말에 대거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건이 되는 주말은 약 30-40여명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무슬림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 수는 금요합동예배와 그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슬람 성원에서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는 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굳이 성원에 올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일상 속에서 바쁘면 금요합동예배 역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파티마에게 그동안 왜 보이지 않았냐고 물으니 매주 금요일마다 바빴다면서 주말에도 성원에 온다는 연구자를 오히려 의아하게 바라봤다. 오히려 주말에는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면 연구자를 만류했다. 그녀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기에 평일 근무 시간 중 쉽사리 나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주말에는 성원에 가기보다 평소 신경을 못 써준 두 아이들을 돌보느라 여의치 않았고 여차피 금요일이 아닌 이상 성원에 가는 것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하면 좋은 것’이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무슬림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개인의 믿음에 달린 것이기에 무슬림으로 태어나 자랐다 하여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성원에 가지 않는다. 성원에 가는 것 뿐만 아니라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5번의 기도를 해야 함을 알면서도 임의로 하루에 1번만 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라나는 한국에 온지 약 1년이 된 유학생으로 고국에 있을 때에도 성원에 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고국에서는 남성들만 성원에 다녔을 뿐 여성들은 각종 예배시간 및 축제 때 성원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다. 때문에 한국에 도착했을 당시 오히려 여성들이 성원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었다. 그녀의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에 충실할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기도를 원하면 하게끔 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릴 정도로 독실한 신자라면 아버지는 축제나 금요합동예배에만 성원에 다녔을 뿐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5번의 기도를 지키지는 않았다. 물론 이러한 자유로운 신앙생활은 각 가정마다,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경향이 짙다.

성원에 안 가고 학교에 이슬람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편이에요. 성원에 안 다녀요. 예배를 원래 5번 해야 하는데 아침에만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지만 이것도 마음대로. 원래 5번 해야 하는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편이에요. 원래 집에서 드렸어요. 사람 맘에 달려있으니까. 무슬림이라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어도. (중략) 우즈베키스탄에

서 여자들은 성원에 안 다녀요. 남자들만 다녀요. 한국에 와서 좀 놀랐어요. 여자들도 다니니까. 친구,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있는데 이드 때 갔다 왔다고 하는데. 웬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안 다녀요. 이드 때도, 주마 때도 아예 안 다녀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할 때도 여자들은 무덤에 안 가요. 남자들만 가고. 시신을 성원에 가져가고 이후에 무덤에 가져가도 여자들은 참석을 안 해요. (중략) 이태원에 갔을 때 예배하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남자들은 성원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여자들은 집에 가서. 못 하면 밤에 한꺼번에 해도 되요. 제 때 하는 게 더 좋은데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언니는 스카프 써요. 우리는 달라요. 스카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하라고 안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엄격히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대로 말고 자기 마음대로. 엄격하게 하라는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익숙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성원에도 안 다니고 집에서 혼자하고. 우리 가족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루 5번 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는 이드나 그런 명절 때 아니면 금요일에 보통 성원에 가서 하는데 하지만 하루에 매일 5번 기도 안 하세요. 우리는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고. 우즈베키스탄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말레이시아는 누구든지 스카프 써야 되요. 아랍도 똑같아요. 우리는 스카프 쓰는 사람도 있고 혈령한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현대화된 스카프를 쓰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스카프 쓰는 규칙은 얼굴만 보이고 긴 치마를 입어서 손목이랑 발목까지 안 보이게 해야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나라에 따라 달라요(라나, 20대 여성, 학생).

이와 같은 무슬림들이 예배참석에 관한 문제는 금요합동예배 후 가지는 설교시간(쿠프바, Khutbah)에 언급이 된다. 쿠프바는 예배 후 이맘이나 모인 이들 중 신앙심이 깊다고 여기는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코란의 구절을 중심으로 무슬림들이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일상생활에서 교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는 시간이다. 이때 이들은 “사정 상 주르마에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원이 먼 관계로 예배시간에 늦게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 고국이라면 가까운 거리의 성원에서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던 것이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저마다 공통된 답은 “알라를 진심으로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 피치 못 할 사정은 어쩔 수

〈그림 8〉 예배 후 쿠프바(Khutbah)를 나누는 모습



주: 좌측은 전주 성원 이مام이, 우측은 신자 중 독실한 이가 이مام을 대신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공식적으로 “바쁘다고 예배에 잘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좋은 무슬림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언급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물론 누군가에게 신앙심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슬람이기에 한국생활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가능한 의무를 다 해서 신 앞에서 보다 나은 무슬림이 되길 권한다.

이처럼 가급적 의무예배를 지키고 성원에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슬람 가르침에 대해 서로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나은 신앙생활이라는 입장과 한국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내면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여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따른 성원참석여부 비중과 함께 믿음의 강요가 아닌 자유로운 상황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신앙생활이라는 인식도 더해진다.

신앙은 한 개인과 신과의 문제이기에 겉으로 보이는 행위 자체만 가지고 알기알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편으로 하루 다섯 번 예배시간을 알리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슬람 국가와는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본국보다 느슨해진, 예배의 개인화가 이뤄진 경향도 있을 것이다.

3) 예배 시 남녀 공간의 분리

전주성원에는 1층에 소예배실, 2층에 대예배실이 있다. 1층에서 드릴 경우 오른쪽에 커튼을(과거에는 칸막이를 놓아 공간을 확보했었음.) 2층에서 드릴 경우 왼쪽에 커튼을 치고 해당 공간에서 여성 무슬림들이 예배를 드린다. 2층의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약 참석한 남성 무슬림들이 많아 공간이 협소할 경우 여성 무슬림들은 3층으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 때때로 사람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남성 무슬림과 같이 일렬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서 드려야 한다.

만약 예배를 드리러 갔었을 때 제대로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예배실에 들어가기 보다는 남성 무슬림에게 부탁하여 처리된 후 들어간다. 일례로 소예배실로 들어가려는 연구자를 서둘러 잡은 파티마는 히잡의 남은 천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눈만 보이게 한 채 소예배실 앞에서 한 남성 무슬림에게 말을 걸었다. 곁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소예배실에서 남녀의 공간을 나눠줬던 칸막이가 옆으로 치워져있었던 것이다. 파티마의 부탁을 들은 한 남성 무슬림이 구석에 있던 칸막이를 예배실 오른쪽에 놓아줘서 그때야 들어갈 수 있었다. 여성 무슬림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약 10명 남짓한 남성 무슬림들 뒤로 조용히 칸막이 너머로 가서 자리를 잡고 예배가 시작하길 기다렸다.

이와 같은 공간분리는 전주성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성원이라면 남녀의 예배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서울 중앙 이슬람 성원의 경우에는 아예 입구에서부터 나뉘어져 남성은 오른쪽으로 여성은 왼쪽의 계단으로 성원에 들어간다.

여자들은 예배를 집에서 해요. 왜냐하면 여자랑 남자가 한 곳에서 예배를 하면 여자 때문에 남자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예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생각이 여자한테 가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는 성원에 가면 남자랑 여자랑 예배하는 곳이 달라요. 이태원에 가면 여자들은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남자들도 따로 있고, 서로 거의 안 봐요. 넓은 곳은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자들은 작은 계단으로 들어가고, 서울에 우즈베키스탄 언니

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여자들은 이드나 그런 예배를 할 때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들어간다고(라나, 20대 여성, 학생).

이러한 남녀의 공간 분리는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만약에 자신의 아내를 부를 경우에도 커튼을 함부로 젖히지 않고 커튼 너머에서 이름을 부른다. 또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남성 무슬림이 다른 물건을 가지러 들어왔다가 여성 무슬림이 있는 걸 알았을 경우 황급히 놀라 밖으로 나가며 연신 미안함을 표한다.

이처럼 여성이 위층이나 커튼 등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남녀차별이라기 보다는 구별의 의미가 크다. 이슬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로 어깨를 맞닿은 채로 드린다. 또한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숙이고 절을 하고 다시 이를 반복하는 등 동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때 남녀가 서로 어깨가 닿는다거나 여성이 앞에서 혹은 아래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예배는 오로지 신만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기엔 이성과의 접촉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성적인 욕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그럴 경우 우두가 무효가 되어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연유로 나타난 공간분리는 예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 일례로 라마단 기간 중 성원에서 식사를 할 때 소예배실과 사무실로 남성과 여성이 식사를 하는 장소가 구분이 되어 각자 식사를 했다. 이때에도 남성

〈그림 9〉 여성 무슬림을 위한 예배 공간



주: 좌측이 대예배실, 우측이 소예배실이다.

은 여성이 식사하는 장소인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음식만 전달해주었다. 성원뿐만 아니라 지인을 집으로 초대할 때도 마찬가지로여서 카짐 부부가 집에서 송별회를 열었을 당시 남성들은 안방에서, 여성들은 거실 겸 부엌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식사를 했었다.

2. 이슬람의 주요 의례: 라마단(Ramadan)과 이드 알 피뜨르(Eid ul-Fitr)

1) 라마단(Ramadan)

너희 선임자들에게 단식이 의무화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도 단식은 의무라
인내심을 통하여 의로워질 것이다. [코란 2:183]

그러므로 라다만 달에 임하는 너희 모두는 단식을 하라. [코란 2: 185]

해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력으로 9월인 라마단을 맞이하여 단식을 행한다. 이는 무슬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할 신앙의 실천이자 의무이다. 라마단 달의 단식이 무슬림의 5대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라마단달의 단식이 처음부터 지켜야할 의무였던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 선지자로 추앙받는 무함마드가 코란을 계시 받고 이슬람을 퍼뜨리기 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의 단식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의무화된 것은 624년(이때는 히즈라 2년으로 코란은 610년 라마단 달에 계시되었음) 이후, 코란 2장 183-185절이 계시된 후이다.

라마단 단식의 목적은 단순히 해가 떠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식을 하라’는 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를 행하는 것에 있다. 아랍어로 단식은 씨암(Siyam)이라 하는데 이는 절제하다는 뜻으로 단식기간 중 식욕과 성욕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함으로 인해 인내심과 자제심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오로지 신만을 위해 행동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된다.

오직 무슬림만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라마단은 남녀노소,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단식을 한다는 점에서 평등함을 느끼고 이슬람적 정체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강화된다. 특히 이주무슬림에게 단식은 유입국에서 수적으로 소수인 무슬림 집단의 무슬림 정체성과 지위를 유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Rippon, 1993: 134; 김준환, 2009: 70 재인용).

〈그림 10〉 Ramadhaan High-Way Code



주: 라마단 기간이 되면 성원에서는 라마단 기간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권하는 일에 대해 알려주는 ‘Ramadhaan High-Way Code’를 붙여놓는다.

또한 단식은 내적 수련의 한 과정인 동시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심정을 공감하게 해주기도 한다.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굶주림을 겪으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며 자신보다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알게 되며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로써 라마단 기간 동안에 타인을 돕는 희사를 많이 한다.¹⁶⁾

16) 무슬림들은 “가장 축복받은 희사는 라마단 달의 희사이니라” [al-Tirmizi and al-Baihaqi], “하나님은 빵 한조각, 종려나무 열매 하나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면 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니 자선을 베풀라고 지시한 집주인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것을 불우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준 그 집의하인입니다” [al-Hakim],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Bukhari and Muslim], “지옥에 갈 것

라마단 기간이 되면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 하는 어린이, 단식을 하면 병이 깊어지는 환자, 고령으로 인해 단식이 불가능한 자, 산모나 월경 중인 여성, 정신 이상자, 여행 중이어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무슬림들이 일제히 단식에 들어간다.

히즈라 1432년 라마단 달의 단식이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시작됐다. 한여름에 시작한 라마단이기에 무더위로 인한 갈증과 기나긴 낮 시간으로 곤욕을 치를 법도 하지만 기금적 라마단을 지키고자 했으며 무슬림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라마단 달은 사탄이 활동을 하지 못 해 나쁜 길로 유혹할 수 없는 달¹⁷⁾로 여기기 때문에 틈이 나는 대로 코란을 읽어 궁극적으로 라마단은 신앙심을 강화시키는 기제가 된다.

나는 라마단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라마단 기간에는 사탄이 없다. 그래서 더 코란을 외우고 기도를 한다. 여름이라 덥지만 괜찮다. 어렸을 때부터 금식을 연습해서 괜찮다(야스민, 20대 여성, 학생).

공식적인 라마단 시작일¹⁸⁾이 되면 하얀 실과 검은 실이 구별되기 전¹⁹⁾인, 즉 해가 뜨기 전인 새벽부터 저녁의 일몰까지 일체의 음식과 음료의 섭취, 성관계를 금한다. 또한 타인을 험담하거나 중상모략, 싸움 등을 해서도 안 된다. 게다가 오직 신만 생각해야 하는 기간이기에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오락이나 음악 등을 듣는 것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 이슬람에 관련하여 지식을 쌓기를 권한다. 무

이 두렵다면 털 익은 종려나무 열매 하나라도 자선을 베푸십시오, 그것도 없다면 온정의 고운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Bukhari and Muslim],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인척간에 사랑을 나눌 때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장수하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Abu-Naim] 등 회사에 관하여 매우 강조를 하는데 그 중 라마단 달의 회사를 가장 축복받는 일이라 생각한다.

17) “라마단 달이 시작이 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지옥의 문이 닫히며 사탄은 사슬에 묶이느니라.” [Bukhari and Muslim]

18) 라마단은 해마다 조금씩 빨라진다. 이슬람력은 윤달이 없이 12개의 태음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력보다 11-12일이 적기 때문이다. 해마다 라마단이 다가오면 전문가단이 구성되어 초승달을 관측하고, 최고종교지도자가 초승달을 육안으로 관찰한 후 라마단의 시작날짜를 공포하며, 같은 이슬람국가라도 교리에 따라 하루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달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라마단을 시작하지만, 지역에 관계없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초승달이 보이는 날짜를 따르는 신자들도 있다. 대략 2005년 10월 5일-11월 4일, 2006년 9월 24일-10월 24일, 2007년 9월 13일-10월 13일, 2008년 9월 2일-10월 1일, 2009년 8월 22일-9월 21일, 2010년 8월 12일-9월 10일, 2011년 8월 1일-8월 31일경이 라마단 기간이다. [출처] 라마단 [Ramadan] | 네이버 백과사전

19) “하얀 실이 검은 실과 구별되는 아침 새벽까지 먹고 마시라. 그런 다음 밤이 올 때까지 단식하라” [코란 2:187]

슬림들은 새벽이 되어 새벽예배(파즈르)의 아잔이 시작되기 전 싸후르(Sahoor)라는 아침식사를 서둘러 마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 목으로 넘기는, 그 무엇도 입에 대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 낮시간 동안에는 담배조차 피지 않으며 하루를 보낸다. 이윽고 저녁이 되면 저녁예배인 마그립 아잔과 함께 단식을 깨는 식사인 이프타르(Iftar)를 한다.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르면 싸후르는 가능한 늦게, 이프타르는 가능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프타르 식사 후에는 이튿날의 새벽예배 전까지 얼마든지 먹고 마시는 게 가능하다.

평소에는 성원에 잘 가지 않거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무슬림이라 해도 가끔적 라마단 기간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 성원에 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해도 라마단은 이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의미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침에 한번만 기도를 하지만) 라마단은 해요. 이번에도 한 달 동안. 아침 새벽부터 일몰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처음에는 룸메이트가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 룸메이트는 중국인인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예전 룸메이트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하게 봤어요. ‘언니 아침에 운동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나중에 설명해줬더니 이해해줬어요. 지금 룸메이트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아침에 잘 때 하니까. 라마단은 세계적이니까 어디든 똑같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라마단 때 한국 시간에 맞는 시간표가 나와요. (라마단 때 같이 밥을 못 먹었는데)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은 설명해줘서 괜찮아 했어요. 보통 친구들은 태국 사람인데 라마단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국에도 무슬림이 있으니까 라마단에 대해 알고 있어서요. 하지만 한국 친구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봤는데 나중에 괜찮아졌어요(라나, 20대 여성, 학생).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라마단기간을 통해 저는 한 단계 성숙해집니다. 라마단기간에 금식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믿음으로 지키는 약속이기에 이를 통해 인내심을 기르고, 정신적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라마단기간이라고 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나 임산부 등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식사를 하고, 후에 건강해졌을 때 그 기간만큼 금식을 행하면 됩니다(무슬림 편, 이슬람 성원에서 3일 중 전주 성원 무슬림 인터뷰).²⁰⁾

20) 영삼성: 내삶의 Pathfinder(<http://www.youngsamsung.com>)

〈그림 11-12〉 이슬람 중양회에서 배포한 라마단 시간표



주: 라마단 기간이 되면 온-오프라인을 통해 라마단 시간표가 배포된다. 시간표에는 하루 5번의 예배시간 및 해가 뜨는 시간이 표기되어 있다. 새벽예배와 오후 예배가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유는 각각 그 전과 후에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림 13〉 소예배실에서 식사를 하는 남성 무슬림들(좌),
사무실에서 식사를 준비 중인 여성 무슬림들(우)



전주성원에서는 성원 차원에서 라마단 기간 동안 이프타르 식사를 제공했다. 2011년에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9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으며 식사가 있는 날이면 무슬림들은 성원에 모여 다 같이 음식을 먹으며 예배를 드렸다. 매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으나 식사비용을 대는 경제적인 여건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매일 식사를 준비할 인력 등의 문제가 있기에 주말에만 제공을 한다. 각 식사마다 남성 무슬림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가 비용을 대면 음식을 만드는 이, 뒷정리를 하는 이로 업무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했다. 이프타르 식사 제공은 의무가 아니지만 다른 무슬림들을 위해 각자 자신들이 가진 물질 혹은 봉사, 시간 등을 내놓는 회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음식은 보통 바나나와 사과, 수박 등 각종 과일과 오이, 당근 등 야채 그리고 카레를 제공하는 편이다.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단식과 일몰 후 가족 및 친구들끼리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친목 다지기 그리고 예배 등을 통해 서로간의 형제애를 느끼며 이슬람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가 되면 개인적인 일로 평소에 성원에 자주 오지 못 했던 이들이나 멀리 사는 이들도 가급적 이프타르 식사에 참석하여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단식의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서로를 독려한다.

〈그림 14〉 전주 성원에서 제공한 라마단 기간 이프타르 스케줄 표

Schedule of Iftar and Dinner party in Ramadan

<i>Date</i>	<i>Host</i>	<i>Program</i>	<i>Group Activities</i>
06/08/2011	Brother Mufti	Program after Asr prayer	Cocking group: Brother Asif Cleaning group: Brother Nasser
07/08/2011	Bangladeshi's Brothers		Cocking group: Brother Masud Cleaning group: Brother Shaheer
13/08/2011	Brother Nasser		Cocking group: Brother Nasser Cleaning group: Brother Asif
14/08/2011	Jeonju Muslim Group	Program after Asr prayer	Cocking group: Brother Shaheer Cleaning group: Brother Masud
15/08/2011	Brother Dahi		Cocking group: Brother Nasser Cleaning group: Brother Asif
20/08/2011	Brother Shamshi	Program after Asr prayer	Cocking group: Brother Asif Cleaning group: Brother Masud
21/08/2011	Brother Alm		Cocking group: Brothers' Bangladeshi Cleaning group: All groups
27/08/2011	Indian's Brothers	Program after Asr prayer	Cocking group: Brother Shaheer Cleaning group: Brother Nasser
28/08/2011	Brother Masud		Cocking group: Brother Masud Cleaning group: Brother Shaheer

주: 모처럼 할랄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무슬림들 사이에서 호응이 좋은 편이다.

〈그림 15〉 전주 이슬람 성원에서 갖는 Ramadan Meeting 스케줄 표

Ramadan Meeting
Schedule of all programs

1. Saturday 06/08/2011

Time	Speaker	Subject
17:30	Br. Sayed	Why fasting Ramadan “benefit & punishments”
18:00	Br. Samad	When the Muslim broken his fasting
18:20	Br. Mufti	History of Islam in Syria
19:00	Br. Mufti	Question & answer

2. Sunday 14/08/2011

Time	Speaker	Subject
17:30	Br. Ayman	The best worship in Ramadan
18:00	Br. Masud	How the Prophet Muhammad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worship Allah subhanhu wa ta'alla during the last 10 days in Ramadan
18:20	Br. Nasser	History of Islam in Egypt
19:00	Br. Mufti	Question & answer

오후 6시가 넘어가자 하나 둘씩 속속들이 무슬림들이 성원에 도착했다. 평소 이프타르에는 약 10-15명 정도의 여성 무슬림들이 참석했는데 오늘은 라마단 기간 중 성원에서 제공하는 마지막 이프타르 식사일이어서 그런지 약 20-25명 정도의 여성 무슬림들이 참석을 했다. 덕분에 그동안 여성들이 식사를 했던 사무실은 공간이 좁아 터질 것 같았으나 비좁으면 비좁은 대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사는 남성 무슬림들이 준비하기에 여성 무슬림들은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커다란 쟁반에 에피타이저로 대추야자와 음료수, 바나나와 수박 등의 과일이 나왔다. 남성들은 1층의 소예배실에서 여성들은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모여 앉아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식사를 알리는 외침이 들리자 하루 종일 공복 상태였던 것을 감안해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서로 물도 마시지 못 해 얼굴에 힘든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띠며 서로의 음식을 챙겨주기 바빴다. 간단하게 먹은 후 예배시간이 되자 남성은 2층 예배실로, 여성은 3층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 본격적인 식사를 시작했다. 개인접시에 인도식 카레와 밥을 담아 각자에게 나눠줬는데 무슬림들은 저마다 각자의 친구들과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프타르 파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음식이 제공되어 모두 배부리 먹었다. 특히 기숙사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이때가 그동안 먹지 못 했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이를 놓치지 않고 양껏 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먹고 난 자리를 치우는 이, 바쁜 생활 속에 서둘러 돌아가는 이, 혹은 밖으로 나와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이도 있었다. 밥을 먹자마자 무슬림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하며 놀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각자의 국적도, 인종도 다른 아이들이 간단한 한국어와 몸짓을 통해 놀이를 이어나갔다. 개중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 했던 아이가 그 사이에 학교를 다니면서 제법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몇몇 남성 무슬림들은 탁구대 주변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탁구시합을 구경했다. 잠시 후 저마다 사정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고 8시 30분이 되자 남은 무슬림들은 타라위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시금 예배실로 향했다. 예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으며 쉬지 않고 계속 드렸다. 밤샘을 하고 새벽에 드리는 예배인 라일라툴 까드르 역시 이와 비슷하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마지막 10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이때가 되면 밤을 새면서 코란을 읽으며 잠시 잠을 자더라도 새벽 2시 30분 정도가 되면 일어나 예배를 드린다. 이 역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되며 예배 후 아침을 먹고 오전 예배를 드린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예배시간에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약 40-50명이 넘는 무슬림들은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가 10여명이 남았다. 여성 무슬림 역시 거의 다 돌아가고 3명만 남아 밤샘

을 준비했다. 아무리 마지막 10일을 중요하게 여겨도 한국에서의 생활도 있기에 밤샘은 대개 부담스러워하는 편이다(2011년 8월 28일 라마단 기간 중 이프타르 나누기).

저녁예배인 이샤예배 후에는 타라위흐(Salat at-Tarawih)예배를 따로 드리는데 이는 라마단 달에 행하는 특별한 예배이다. 타라위흐란 ‘앉아 있다, 휴식을 취하다’란 뜻의 타르위하(Tarweeha)의 복수형으로 본래 라마단 달 이샤 예배 후 예배를 드릴 때 각 2(혹은 4)라크아를 한 후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을 타르위하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라마단 달 이샤 예배 후 예배를 드리는 것을 타라위흐라고 하게 되었다.²¹⁾

타라위흐 예배를 성원에서 단체로 모여 드릴 경우 이맘이나 코란 암송이 가능한 이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 카바를 향해 타라위흐 예배를 근행하고자 합니다.’라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여덟 내지는 스무 라크아를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코란을 암송한다.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려 체력적으로 힘이 들기에 중간 중간 잠시 휴식을 취한다. 한 여름에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성원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 절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성인은 물론 라마단의 의미를 아는 아이들도 부모 곁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원래 무함마드는 타라위흐 예배가 의무예배로 비취질 것을 염려하여 성원에서 집단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길 원했다고 하나 두 번째 칼리파인 우마르 본 카뎀 때에 단체로 성원에서 드리던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의무예배는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기에 평소에는 성원에서 볼 수 없었던 무슬림들도 가급적 참여를 하려고 하는 편이다. 무슬림들은 진심으로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전에 자신이 지었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슬림들이 단식과 예배를 통해 라마단 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신으로부터 첫 계시를 받은 달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무함마드가 40세일 때 누르(Nur)산 언덕의 히라(Hira) 동굴에서 명상과 기도를 하던 중 계시를 받았는데 이 날을 라일라툴 까드르(Layilatul Qadr 혹은 Lailatul-Qadr)이라 한다. 이는 권능의 밤(The Night of Power)이라는 뜻으로 이 날의 밤은 다른 천 개월 보다 훌륭하고 신의 권능이 가득한 밤이기에 코란에는 특히 이 날 예배를 드리

21)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 (<http://cafe.daum.net/islamworld>).

면 신이 크게 보상을 한다고 나와 있다.²²⁾ 무함마드 역시 라마단 달의 마지막 10일을 보다 열심히 밤샘 예배를 드리고 코란을 읽었으며 "까드르(권능)의 밤에 신앙심과 보상에 대한 희망으로 라일라툴 까드르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가 이전에 범했던 모든 죄가 용서받노라" 라는 그의 말이 부카리와 무슬림을 통해 전해온다. 때문에 무슬림들은 축복을 받은 밤의 보상을 얻기 위해 그날에 예배를 드리길 희망하지만 이슬람 학자들도 정확히 어느 날인지 알지 못 한다. 다만 학자들의 추측하기로는 라마단 달의 마지막 10일 중 홀수인 날 즉, 21, 23, 25, 27, 29 일째 날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27일째 밤이라 주장하지만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신의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통해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크게 여기는 무슬림으로서의 이 날은 놓칠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고국에서라면 식사시간이나 하루의 업무를 진행할 때 단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감안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배려를 구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단식도 문제지만 성원에서 밤샘 예배를 드리고 이튿날 전과 다름없이 일을 하기로 체력적인 문제가 커져 쉽사리 시도할 수가 없다.

2) 이드 알 피트르(Eid ul-Fitr)

라마단의 시작과 끝은 종교지도자가 초승달의 모양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정확히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때문에 종교지도자의 라마단이 끝났음을 알리는 공표가 나면 그때가 라마단 달의 단식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기뻐하며 3일간에 걸쳐 이드 알 피트르(Eid ul-Fitr) 축제가 열린다. 이 날은 단식을 성공적으로 끝마침에 대한 기쁨과 더불어 신이 그에 대한 보상을 내려주는 날이다. 다시 말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드 알 피트르는 ‘기쁨의 날, 경배의 날, 그리고 협동, 결속, 형제애, 조화, 영혼의 풍요로움’에 대해 신께 감사를 드리며 서로 간에 축하하며 기쁨을 즐기는 날이다(라마단과 단식 2008: 26).

지난 2009년에는 9월20일(일요일)에, 2010년에는 9월10일(금요일), 2011년에는 8월30일(화요일)에 이드 알 피트르 축제가 열렸다.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라마단이 끝난 다음 날 치르는 이드 알 피트르 축제는 한국의 설이나 추석과 같은 이슬람의 명절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무슬림들은 당일 가급적 모두 성원에 모여 예배를

22) “진실로 하나님은 권능의 밤에 계시를 내렸나니 권능의 밤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대에게 설명하여 주리오 권능의 이 밤은 천개월보다 더 나은 밤이니라” [코란 97:1-3]

드리고 축제를 즐긴다. 그리고 3일 간 친척과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유대감과 결속됨을 느낀다. 즉, 단식과 더불어 단식 종료를 기념하는 축제를 통해서도 이슬람 공동체를 인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종교지도자의 공표가 나와 축제가 시작이 되기에 정해지는 대로 점조직같이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해 성원에 모인다. 때문에 그 전날까지도 당장 이튿날이 축제일인지 추측만 할 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2011년 이드 알 피트르 축제는 평일(화요일) 오전에 열렸음에도 전주성원에는 기백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모였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왔으며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남성 무슬림들은 2층의 대예배실을 가득 채우다 못 해 밖에까지 자리를 잡고 예배가 시작되길 기다렸으며 30-40명에 달하는 여성 무슬림들은 3층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이윽고 이맘을 비롯하여 이집트인, 우즈베키스탄인, 방글라데시인 등등이 앞으로 나와 신이 위대하다고 외치는 가운데 이맘이 라마단과 축제의 의미, 마음가짐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교를 하면 각자 돌아가며 모국어로 통역을 해줬다. 그만큼 여러 국적의 무슬림들이 한자리에 모였기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카톨 피트르(Zakatul-Fitr)라는 특별 희사금을 걷는데 희사금은 각 국가에서 한 끼 식사 값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에서는 5천원이다. 자카톨 피트르는 라마단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는 것으로 단식하는 이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언을 했을 때 이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카톨 피트르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평소에 성원에 다니지 않는 이들은 희사금을 내기 위해서라도 한번쯤 성원에 나가기도 한다. 저마다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품었지만 분위기는 자연스러워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고 무슬림들 역시 사진을 찍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라마단을 무사히 마쳤음을 축하했다.

예배의 마지막은 메카를 향해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끝났다. 공식적으로 예배가 끝나면 그동안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여성 무슬림들도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이날을 기념했다. 또한 ‘이드 무바라크(Eid Mubarak)’을 외치는데 이는 ‘이드를 축하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에 고국에서 이드 알 피트르를 맞이했다면 가족과 친척을 불러 성대하게 파티를 열면서 놀지만 타국이기에 고향이 같은 이들이나 친구들끼리 집마다 돌면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논다.

〈그림 16〉 예배 시작 전 이맘의 말을 각 언어마다 통역이 가능한 자가 나와 통역하는 모습(좌), 예배가 끝난 후 서로 축하를 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우)



일례로 2009년 9월 20일에 열린 이드 알 피트르 축제 때 연구자는 한국인 무슬림인 미나와 함께 방글라데시인인 모나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전북대학교 유학생으로 전북대 의대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초대에 대한 답례로 음료수를 사들고 뒤따라가니 미리 음식을 준비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음식을 가져왔다. 카레를 섞은 듯 한 색인 동남아시아식 노란 밥과 치킨카레(카레로 범벅을 한 백숙), 푸딩, 일종의 죽이 나왔다. 푸딩의 맛은 달달했으며 치킨카레는 카레의 본래 향보다는 후추향이 좀 강했다. 같이 갔던 미나의 두 아이는 모나의 아이와 노느라 바빴고 모나는 음식만 준비할 뿐 본인은 먹지 않았다. 음식을 다 먹고 나니 모나의 옆집에서 십여명 가량의 무슬림들이 나왔다. 모나의 옆집에는 같은 방글라데시 출신인 수마이야가 살고 있었으며 이드 축제를 맞아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이다. 다음이 모나의 집 차례였는데 이처럼 축제를 맞이하여 무슬림들은 대부분 각자의 집을 돌며 축하를 하고 음식을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3. 이슬람의 주요 의례: 성지순례(Hajj)와 이드 알 아드하(Eid-ul Adha)

1) 성지순례(Hajj)

성지순례(하지, Hajj)는 무슬림이라면 지켜야할 5가지 의무사항 중 하나로 여타

의 의무사항들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것과 달리 성지순례는 일생에 있어서 건강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때에 해야 하는 의무이다. 성지순례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를 해야 함은 물론 생업활동을 할 수 없기에 그만큼 경제적인 비용을 낼 수 있는 여력과 더불어 고된 일정에 따라 진행이 되기에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지순례는 성지순례기간에 행하는 대순례(하지, Hajj)와 기간 이외에 행하는 소순례(우무라, Umroh)로 나뉜다.²³⁾ 이 중 무슬림들은 대순례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순례기간은 이슬람력으로 둘 히자(Dhu'l-Hijjah) 달인 12월 8일부터 10일이며 마지막 날 희생제인 이드 알 아드하를 치르며 끝이 난다.

무슬림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일련의 절차를 행하면 순례를 하기 이전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받고 새사람이 된다고 믿는다.²⁴⁾ 다시 말해서 유일신 하나님과 구원, 죄사함을 믿어야 성공적인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그 안에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을 되풀이하면서 그들이 놓지 않았던 알라, 즉 신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지난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법원에서는 11월 16일을 이드 알 아드하로 선포하여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성지순례기간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전주 이슬람 성원에서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5명의 성지순례자²⁵⁾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로 보냈다. 성지순례는 일생에 꼭 한번은 해야 할 의무이자 그동안 그토록 가길 열망했던 일로 아직까지 일행 중에 가본 이가 없었기에 출발하기에 앞서 2-3일에 걸쳐 기본적인 성지순례절차 및 마음가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23) 순례에는 대순례(Hajj)와 소순례(Umurah)로 나뉜다. 각자의 순례과정은 이흐람(Ihram)- 따와프(Tawaf)- 싸이(Sai)- 삭발 또는 일부 삭발까지 동일하나 대순례 기간에는 무즈달리파에서의 하룻밤 체류, 미나에서의 삼일밤 체류, 자마르에서 조약돌을 던져야 한다. 또한 순례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고별 따와프를 하며 허용된 짐승을 도살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슬림들의 최대 축제인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이다. 대순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코란 구절이 있다. “대순례는 명시된 달에 행하되 순례를 수행하는 자는 성욕과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지 말 것이며 언쟁도 하지 말라. 단지 선행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내세를 위한 양식을 마련하되 가장 좋은 양식은 이성이 있는 자의 정직한 품행이라. 현명한 자들이 나만을 두려워하라” (코란 2:197)

24) “누군가 성지순례를 정확히 행한다면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갓난아기처럼 되어 돌아올 것이니라” 부카리와 무슬림이 전함

25) 시리아 출신 2명, 모로코 출신 1명, 한국 출신 2명 등으로 이뤄진 순례자들은 성원에서 마련한 선교지원금을 통해 항공료, 체류비 등 경비 일체를 지원받아 갈 수 있었다.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각 이슬람국가마다 일정한 수의 순례자를 정해주는데 한국은 비이슬람국가이기에 비교적 수월하게 비자를 발급받아 순례길에 오를 수 있었다. 전주성원에서 보내준 순례자들은 당시 전주에 살고 있거나 과거 살았던 이들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여행사에 신청한 한국에 사는 다른 외국인 무슬림과도 함께 생활하였다.

〈그림 17〉 이흐람(Ihram)후 공항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순례자들



성지순례를 통해 보다 깊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례기간 동안 2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기에 각별히 안전에 대한 주의, 일행을 잃었을 때의 대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11월 9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에서 연결해준 이란 여행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순례자들은 성지에 도착하기에 앞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신에 대한 믿음을 되새기고 오로지 신실한 마음으로 순례가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며 저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 잡고 나면 신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사상 속에서 모두 똑같은 옷을 입는데 이를 이흐람(Ihram)이라 한다. 순례를 온 무슬림들은 각기 다른 국가, 인종, 성,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는다. 겉보기에는 누가 부자이고 가난한 이인지 알 수 없으며 오직 신 앞에서 어느 누가 신의 명령을 잘 따르며 신앙심이 깊은지, 주위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지만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바느질 하지 않은 두 개의 흰 천으로 몸을 감싸야 하며 여성의 경우 평복을 착용한다. 대순례 기간 동안 해마다 200만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모여들기에 저마다 일행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성들의 경우 복장 색을 통일하거나 특정한 색의 천을 두르는 식으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 같이 갔던 이란인들이 형광주황색으로 된 천을 표식으로 삼았기에 이들과 같이 다녀야 했던 전주성원에서 보낸 순례자들도 이를 달고 다녔다.²⁶⁾

대순례 및 소순례와 관계없이 성지순례의 기본적인 순서는 이흐람(Ihram)- 카바 따와프(Tawaf) 및 싸이(Sai)- 삭발 또는 일부 삭발이다. 여기에 대순례의 경우 미나(Mina)에서 3일 밤 지새기, 아라파트 산(Arafat)²⁷⁾으로 이동, 무즈달리파(Muzdalifa)에서 체류, 자마르에서 조약돌 던지기(Zamarat-자라마틀 아까바)²⁸⁾가 포함되며 전주성원에서 보낸 순례자들은 대순례이기에 위의 과정을 행하였다.

메카의 알 마스지드 알 하람 성원(al-Masjid al-Haram) 중앙에 정육면체의 검은 돌인 카바(Ka'ba 즉, 흑석 Hajar Aswad)²⁹⁾가 있다. 이것이 바로 전세계 무슬림들

-
- 26) 단체생활을 해야 하기에 착용해야만 했지만 한국에서 출발한 순례자들은 순니파이기에 이란인(쉬아파)임을 나타내는 표식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남성들은 해당 내용이 적힌 천과 가방을 착용하기를 꺼려하며 다른 가방을 새로 구입하기도 했다. 순니파와 쉬아파라는 종파간의 차이도 있지만 한편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만큼 이방인, 소수자로 취급을 받는데 사우디아라비아로 성지순례를 와서까지 소수자인 쉬아파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 27) 이곳은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재회한 장소로 열려져있다. 따라서 정오부터 해질녘까지 머물러야 한다. 한편으로 아라파트는 “알았다”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28) 자마르에서 조약돌을 던지는 것 역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일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적자인 이스마일을 자신에게 바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악마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바치려 하기 전 각각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일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응하길 유혹했으나 이들은 악마에게 돌을 던지며 내쫓았다. 그리고 충실히 명령에 순응하여 아브라함은 이스마일을 바치려하였고 그 직전, 하나님이 만류하며 이스마일 대신에 양을 바치게 했다. 조약돌을 던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악마를 내쫓았던 것을 상징한다. 카바의 건립에서부터 자마르에서 조약돌을 던지는 것까지 성지순례와 관련된 일전의 과정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신에 대한 신앙과 복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29) 카바의 건립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먼 옛날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만들고 천사들에게 예의를 갖춰 인사하라고 하셨다. 아담과 아담의 자손의 천사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은 ‘내가 먼저 태어났고 하늘도 날아다니는 등 능력이 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며 거부를 했다. 이에 하나님이 화나서 ‘너는 나의 자비를 못 받는다, 천국에서 나가라’ 하셨다. 그 후 진은 사탄이 되었다고 한다. 무슬림들은 하늘이 7층으로 되어 있으며 지구의 메카와 똑같다고 믿는다. 또한 하늘의 메카와 지구의 메카 위치는 일치하며 7만 천사들이 메카처럼 매일같이 카바를 돈다고 믿는다. 때문에 무슬림들은 지상의 카바를 7바퀴 돌면서 사탄이나 기타 등등의 나쁜 것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따와프라고 하며 7바퀴를 돌면 최대한 카바 가까이에서 2번의 기도를 한다. 그 후 하갈이 했던 것처럼 사페(Safa)와 마루와(Marwa) 언덕을 7번 왔다 갔다 한다. 사페와 마루와 사이에는 녹색 불로 일정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남자들은 그곳을 지날 때 하갈의 애타는 심정을 기억하며 뛰어야 된다. 사페와 마루와 사이를 오가는 것이 바로 싸이(Sai)다. 성지순례절차는 먼 옛날 유대민족의 족장이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인 하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족장인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었기에 그의 부인인 사라가 후사를 염려하여 몸종인 하갈을 후처로 들이게 한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일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도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다. 그 후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일을 질투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의 응답에 따르면 지금의 카바에 하갈과 이스마일, 두 모자를 보내라고 해 이에 따라 아브라함은 약간의 식량과 함께 하갈 모자를 그곳에 두고 떠났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 가운데 어린 아들과 버림받은 하갈은 그럼에도 현실에 비관하거나 신앙심을 잃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주고 간 식량이 떨어지자 혹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냈을까를 생각하여 근처를 7번 헤맸는데 그게 사페와 마루와이다. 그러나 아무도 찾을 수 없어 낙심하여 아들 곁에 오니 이스마

〈그림 18〉 카바를 7바퀴 돌며 따와프(Tawaf)를 하는 순례자들



이 예배를 드리는 방향이다. 카바는 애초에 천사들이 만들었으며 그 후 아담에 의해 재건축 등 5번의 재건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단지 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의미할 뿐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따와프(Tawaf)는 카바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원을 그리고 7바퀴 도는 것이다.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기에 처음에는 원의 끝부분부터 돌면서 서서히 중심부로 파고 들어간다. 끝부분은 사람들의 압박도 덜하기에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지만 그만큼 원이 커서 오랫동안 걸어야 한다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사람들에 치이고 자칫 잘못하면 밀에 깔릴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 무슬림들은 저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흑석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도 자신의 일행을 지키기 위한 몸싸움 역시 치열하다. 순례기간에 모인 모든 순례자들이 이 기간 동안 모두 카바를 돌아야 하기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수 백, 수 천명의 사람들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남성이라 할지라도 밀리면 한순간에 넘어지고 그 누구도 구할 수 없게 되기에 각

일 발 밑에 물이 치솟았다. 이때 하갈이 물을 보고 멈추어라 멈추어라고 했다. 이것이 아랍어로 잠잠(Zam Zam)으로 사막 한 가운데 물이 솟아나니 지나가던 동물과 사람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다. 차후 하갈 모자를 걱정한 아브라함이 돌아와 이들 모자가 살아 있는 모습에 안도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카바를 재건했다고 한다.

일행들은 저마다 길을 뚫는 남성-여성-뒤에서 미는 것을 막는 남성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일렬로 서서 카바를 돈다. 하람성원의 모든 순례자들의 시선은 온통 흑석에 쏠려있다. 이들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이면서도 흑석을 바라보며 각종 코란 구절을 암송하고 신의 은총과 자비를 비는 기도를 한다. 영적으로 충만한 이들은 따와프를 하는 도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격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한다. 흑석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흑석에 가벼운 입맞춤이나 살짝 만져야 되지만 현실적 여건상 불가능하기에 “라 일랄하 일랄라(알라 외에 신은 없다)” 혹은 “알라 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쳐 이를 대신하기도 한다.

따와프가 끝나면 순례자들은 최대한 카바와 가까운 곳에서 기도를 한 후 싸이(Sai)를 한다. 싸이는 사파(Safa)와 마르와(Marwa) 언덕을 총 7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같이 자신과 아들 이스마일의 생사를 염려해 애타는 마음으로 양쪽의 언덕을 오르내린 것을 상징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양측 언덕길 사이에는 초록색 불로 일정한 지점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남성의 경우 이 구간에 다다르면 하가의 심정을 기억하며 무조건 뛰어가야 한다. 여성의 경우 뛰어도 되지만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사파와 마르와 언덕 사이에는 째째(Zam Zam) 샘물이 곳곳에 있어 지친 순례자들이 목을 축일 수 있다.

〈그림 19〉 싸이(Sai)를 하는 순례자들



한국에서 온 순례자들은 애써 순례를 왔기에 가급적 하람성원에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지만 대규모 인파 속에서 일행의 안전과 길을 잃을 위험성, 숙소와 성원까지의 값비싼 교통비, 앞으로 순례를 위한 체력 안배 등의 문제가 거론되어 뜻대로 할 수는 없었다. 때문에 이를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쉽사리 격해진 감정을 주체하지 못 했다.

순례일이 되면 순례자들은 미나(Mina)에서 3일 간(최소 2일) 밤을 보내야 한다. 낮에 다른 곳에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저녁이 되면 이곳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 미나는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신에게 아들을 대신해 양을 바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성지순례를 위해 아예 대규모 천막촌을 건설해 구역별로 순례자들에게 천막을 배정한다. 그러나 200만명 이상의 순례자들을 수용할 수 없기에 천막을 배정받지 못 한 순례자들은 천막촌 곳곳에서 노숙을 하며 밤을 보낸다.

전주성원에서 보낸 순례자들은 11월 14일 저녁, 앞으로 순례를 위한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구운 닭과 각종 과일로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행동가짐³⁰⁾에 대해 숙지한 후 미나에 갔다. 이들은 여행사를 통해 순례를 왔기에 천막을 배정받을 수 있었는데 천막은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있고 천장엔 에어컨이 달려있으며 곳곳에 아이스박스가 준비되어 있다.

〈그림 20〉 아라뫼트 산으로 이동하는 순례자들



30) 이 기간에는 스킨이나 로션 등을 발라서는 안 되며 향수를 뿌려서도 안 된다. 또한 거울을 보아서도 안 되고 남성의 경우 바느질로 된 그 어떤 것도 착용할 수 없으며(심지어 속옷이나 메리야스도 안 됨) 얼굴을 가려서도 안 된다.

〈그림 21〉 악마의 벽에 돌을 던지는 순례자들



마지막 선지자로 추앙받는 무함마드가 미나에 있다가 아라페트 산으로 이동했다고 전해지기에 선지자의 행적을 따라 순례자들은 이튿날 새벽 예배를 드린 후 곧바로 아라페트 산으로 이동을 한다. 채 동이 뜨기 전 저마다 비장한 얼굴을 하고 걸어서 장장 6시간이 걸리는 길을 나서는데 갖길 곳곳에는 신발 등 온갖 잡화물이나 과자나 과일 등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장사꾼들이 있다. 아라페트 산에서는 정오부터 초저녁까지 머무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순례자들은 쉬지 않고 저마다 개인예배를 드리며 코란을 읊는다.

이후 저녁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즈달리파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해야 하지만 여성과 몸이 허약한 이는 제외가 가능하며 먼저 자마르에서 돌을 던질 수도 있다. 자마르, 즉 악마의 벽에 돌을 던지는 일은 매우 혼잡하기에 여성이나 몸이 허약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밤에 미리 던질 수 있게 한 것이다. 같이 갔던 일행 중 한 여성이 몸이 안 좋아 기절을 했던 관계로 패를 나누어 무즈달리파에서 밤샘을 할 이들과 미나로 돌아가 미리 자마르 조약돌을 던질 이들로 나뉘어 순례를 진행했다.

미나로 돌아온 이들은 같이 움직이던 이란순례자들과 함께 돌을 던지러 갔다. 혹여 인파 속에서 길을 잃을 것을 염려한 여행사 직원이 깃발을 들고 앞장을 서고 모두들 그 뒤를 따랐다. 자마르에는 총 3개의 악마의 벽이 있는데 하나의 벽 당 7개씩 하루에 21개의 조약돌을 총 3일간 던져야 한다.

악마의 벽 앞에는 펜스가 쳐있었으며 순례자들은 모두 펜스 밖에서 “비스밀라 히르

하르마 니르하임(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과 “알라 후 아크바르(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질 때 순례자들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수십, 수 백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돌을 던지기에 매우 위험하다. 먼저 미나로 돌아온 이들과 무즈달리파에서 밤샘을 한 이들로 선, 후발대를 나누어 돌을 던지러 갔었는데 그 사이에 2명이 압사당했으며 수시로 앰블런스가 오갔다.³¹⁾ 나뭇의 열을 맞추어 흑석을 도는 파와프 역시 자칫 넘어지면 그대로 깔릴 수 있지만 조약돌을 던지는 것은 개개인이 일제히 달려들기에 밀리기라도 할 경우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첫날 자마르에 돌을 던지러 갔었을 때 그곳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혼란이 가득했다. 파리대왕을 본적이 있는가? 것처럼 폭력적이진 않았지만 그 광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행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휩쓸리다 못 해 제법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솔직히 너무 무섭다 못 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 그래도 이튿날 나는 다시 돌을 던지러 갔다. 내가 살아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지만 해야 하는 일이니까. 덕분에 매 순간 내 삶속에 알라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아미나, 40대 여성, 직장인, 광주거주).

돌을 던질 때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을 봤었는데 그를 구할 수 없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만약 죽었다면 천국에 갔을 거다.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기에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내 친구도 몇 년 전에 파와프를 하다가 죽었다. 누가 밀었는지도 모르며 모든 것은 순간이다. 최대한 조심해서 알라의 은혜 속에서 안전하게 순례를 마치는 게 목표다(노만, 30대 남성, 직장인, 서울거주).

한국에서 참여한 한 순례자 역시 인파에 치여 넘어져 깔리려는 찰나 여행사 직원이 잡아 끌어내서 위기를 모면했다. 마치 눈앞에 악마가 있어 돌을 던져 이를 물리쳐야 할 것 같은 상황 즉 수 백, 수 천 명이 모여 악마에 대한 반감을 표하며 설새 없이 외쳐대는 함성, 혼돈과 무질서가 휩쓰는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3일간의 순례기간 동안 미나에 머무르면서 파와프와 자마르에서 조약돌을 던지기를 반복하면 성지순례는 끝난다.

순례기간 동안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절차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삭발 혹은 머

31) 위급한 상황 시 손쉽게 제지할 수 있게 각 벽마다 망루를 설치했으며 수 십 명의 군인들이 곁에서 대기를 하며 순례자를 통제하려 하지만 워낙 많은 인파들이 설 틈 없이 몰리며 심적으로 흥분된 상태이기에 이를 통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리카락의 일부를 잘라야 하며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끝으로 메카를 떠나기 전 다시 하람성원을 찾아 고별 따와프를 함으로 성지순례는 마무리 된다.³²⁾ 그리고 성지순례를 마쳤다는 것을 축하하며 가령 ‘하지 ○○(이름)’ 식으로 같이 순례를 했던 이들의 이름 앞에 하지를 붙여 부른다. 전세계 각국에서 모인 순례자들은 순례가 끝나면 각자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귀국을 하기도 하고 혹은 메디나로 이동, 예언자 성원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곳은 무함마드의 묘가 있는 곳으로 하디스³³⁾에 따르면 이곳과 하람성원에서 하는 기도는 다른 곳에서 하는 기도보다 10만배의 효력이 있다고 하여 저마다 기회가 되면 최대한 이곳에서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

성지순례를 통해 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경외심을 가지며 고통스런 과정을 겪으며 인내심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이슬람 공동체라는 인식 속에서 소위 말하는 형제애를 나누며 서로 간의 일체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도 나름의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있었다. 일상생활이 아닌 성지순례라는 상징성 그리고 남에 대해 험담을 금하고 혹 마음을 상하게 하여도 이를 용서하길 권하는 하디스가 있지만 한편으로 낮은 곳에서 고된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평소와 달리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전주성원에서 보낸 순례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대사관에서 연결해준 여행사를 통해 순례를 떠났는데 이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였다. 전주성원에서 보낸 5명의 순례자들과 개인적으로 여행사에 신청한 3명의 순례자들 이렇게 한국에서 출발한 총 8명의 순니파 순례자들은 기백명은 되는 쉬아파³⁴⁾ 이란인들과 생활을 해야 했다. 결국 서로 다른 사상과 예배방식으로 인해 언쟁을 벌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령 순니파에서는 하루 5번 예배를 드리지만 쉬아파에서는 3번 예배를 드리며 예배 방식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순니파 여성 무슬림이 1라코아를 할

32) 고별 따와프로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면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짬뽕쌈을 떠가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다. 일종의 성수처럼 받아들이는 짬뽕쌈은 마시면 아픈 곳이 낫고 몸이 정화된다고 믿는다.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서는 순례자들이 퍼온 짬뽕물병을 포장해주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33) 하디스(Hadith)는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과 그의 교우들이 전하는 무함마드의 언행에 대한 기록 또는 전승되는 이야기이다.

34) 순니파와 쉬아파는 무함마드 사후 그의 후계자인 칼리파(Khalifah)의 지위를 놓고 분화되었다. 순니파에서는 이슬람 공동체의 후계자로 혈통이 아닌 무함마드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심신이 깊었던 아부 바르크를 추대하였다. 이후 이들을 아흐 알 순나와 자마아(ahl al-sunnah wa'l-jamaah) 즉 ‘순나와 공동체의 사람들’이라 부르게 되면서 약칭으로 순니가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쉬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 무함마드의 사촌동생이자 사위인 알리를 중심으로 하여 알리의 직계후손으로 이어지는 이맘제를 만들었다. 다시 말해 순니는 이슬람 공동체의 관행인 순나(Sunnah)를, 쉬아는 알리 쉬아(Ali Shia)를 따르는 이들을 지칭한다(양승운 외, 2007).

때 쉬아파 여성 무슬림이 제지를 하기도 했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순니파 남성 무슬림은 당시 자신에게 말을 하지 그랬냐며 격분을 했었다.

이렇듯 이슬람에서 순니파가 약 90%에 달할 정도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순례를 같이 해야 하는 이란그룹에서 그 관계가 역전이 되어 순례기간 동안 소수자가 되었다. 일 년에 한번 메카에 모여 순례를 하면서 이슬람 공동체를 인식하고 일체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종파간의 알력다툼이 미묘하게 작용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여행사 직원이 자꾸 말을 바꾸며 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 회피, 일인당 약 4천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 하게 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한국에서 출발한 이들은 일련의 과정들이 여행사 직원의 능력부족인지, 악의적으로 골탕을 먹이려는 것인지 혹은 순니파와 쉬아파 사이의 종파 문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이 강력하게 의사를 표해도 여행사 직원은 애초에 약속한 것과 달리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순례기간 동안 정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있어야 함에도 이란그룹 중 일부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야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게다가 자신이 잘못된 일임에도 아랍어 설명이 능숙하지 못 하다는 것을 악용하여 잘못을 전가시키기도 했다.

이런 종파문제에 더해서 순니파 내에서도 한 남성이 아내가 2명임을 밝혀 원칙주의자인 다른 남성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원칙주의자인 남성에게 있어서 그가 아무리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선행을 베풀어도 결국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집트와 한국에 각각 아내를 두는 것 역시 과시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었다. 같은 순니파에서도 일부다처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가급적 일정을 따로 소화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

비록 성지순례기간 동안 집단 내 불협화음이 존재했지만 순례 자체가 주는 종교적인 성취감은 크다. 성지순례를 통해 순례자들의 신앙심이 깊어지고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무슬림이 되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솔직히 나는 떳떳하게 완벽한 무슬림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이번 순례를 통해서 내 삶은 많이 바뀐 것 같다.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까? 부족한 내 모습에 많이 부끄러웠다. 앞으로 남은 내 삶에서 알라께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아미나, 40대 여성, 직장인, 광주거주).

이슬람의 성지순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오가고 체류하는 비용,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팍팍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 즉 경제적 조건과 신체적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할 수 있기에 무슬림의 의무이면서도 모두 일생에 한번이라고 행하기 원하는 소망이기도 하다. 가족은 물론 기존의 일상생활과 단절된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신만 생각하는 시간이다. 순례자는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회개하며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조금 더 신에게 다가가길 원한다. 또한 자신이 순례를 올 수 있었던 경제적 상황과 건강에 대해 감사를 하며 앞으로도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한다. 수많은 인파와 연일 고된 일정이지만 과거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신을 위해 인내하며 어려움을 이겨낸다. 순례를 하는 것은 신이 허용한 것과 금기한 것을 준수하겠다는 것이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신에게 순종하는 언행만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모든 순례자는 각기 다른 인종과 민족, 성(性), 언어, 문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며 이슬람이라는 이름 아래 일체감과 더불어 공동체임을 느낀다.

3) 이드 알 아드하(Eid-ul Adha)

이슬람에서는 성지순례가 끝나는 시점인, 이슬람력의 12번째 달인 두 알히자(Dhu-al-Hijja) 달의 10일째가 되면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Eid Al Adha) 축제가 열린다.³⁵⁾ 희생제라고도 부르는 이드 알 아드하는 성지순례의 절차 중 하나이지만 꼭 순례를 행한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참여한다.

코란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꿈에서 신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린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이에 복종하여 실제로 장자인 이스마엘을 바치려하니 신이 나타나 이를 만류하며 그와 그의 가족의 믿음에 대해 칭찬한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바치라고 명한다.

무슬림들은 희생제를 통하여 신의 명령에 순응하여 이를 행하려고 했던 그의 정신을 잊지 않고 다시금 떠올리고자 하며 자신도 그러한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면서 스스로의 신앙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무슬림이란 신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추구하기에 희생제를 통해 소나 양, 낙타를 신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똑같이 의례를 재현하고자 한다.

35) “그리고 그곳을 순례하도록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들은 걸어서 또는 낙타를 타고 먼 곳으로부터 올 것이니라. 그들은 순례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얻을 것이며 규정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족들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것이니 너희도 이를 먹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도 이를 베풀라.” [코란 22:27-28]

2010년 11월 17일에 이어 2011년에는 11월 6일이 이슬람력 1432년 12월 10이기에 3일간에 걸쳐 이드 알 아드하 축제가 시작되었다.³⁶⁾ 축제가 시작되면 성원에 들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다. 이슬람에서 가장 큰 축제가기에 평소에는 성원에 자주 가지 않더라도 이 날은 가급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예배에 참석하며 성원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따로 몇 천원가량의 용돈을 주며 축제를 축하한다.

무슬림들은 축제기간이 되면 먼저 도살할 짐승을 메달아 놓은 후 “비쓰밀라, 알라 후 아크바르(알라의 이름으로, 알라는 위대하다)”고 말을 한 후 짐승의 목을 단칼에 베어 피가 흘러나오게 한다. 그리고 가축을 벗겨내고 고기는 각을 떠서 여러 조각을 낸다. 가축과 친척이 모여 도살한 짐승을 먹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관행에 따라 3분의 1은 친척과 친구, 이웃에게,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나머지는 가축들과 함께 먹는다. 고기는 신의 것이라 생각하기에 타인에게 팔거나 살 수 없다.

(중략) 이들 아드하를 맞아 이슬람권에서는 가정집에서도 소나 양, 염소나 낙타 같은 가축을 잡는다. 가축을 벗기고 먹기 좋게 부위별로 나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한국의 이슬람 신자들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개인이 살아 있는 양이나 염소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설사 마련한다 해도 도축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이나 처리는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한남동 이슬람성원은 이날 뒷마당에서 염소 도축 행사를 벌인다. 가정집에서 도축이 어려운 만큼 ‘현실적인 대안(代案)’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이슬람교 중앙회의 이주화(46) 사무총장은 “도축한 고기를 이웃과 나누면서 이들 아드하 행사의 핵심인 자선이 실천된다”면서 “이슬람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만큼 우리 실정에 맞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 금정구의 이슬람성원은 인근 농장에서 35만원짜리 흑염소 5마리를 구해 도축한 뒤 고기를 이주노동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이들 아드하 예배가 끝난 뒤 경험 있고 힘 좋은 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솥통을 끊고 피를 모두 뽑아내는 ‘할랄’ 도살법으로 도축한다.

36) 이드 알 아드하 이튿날인 히즈라력 12월 11일부터 13일은 ‘아이야뭇 타슈리끄’라고 한다. 아이얌은 날(day)이고 ‘타슈리끄’는 ‘샤르라까’라는 아랍어 동사에서 파생된 동명사로, 샤르라까는 ‘(고기나 가축 등을) 햇볕에 말리다’라는 의미로 이날, 사람들은 이드날 잡았던 고기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 가축과 고기를 햇볕에 내놓아 말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즉, 아이야뭇 타슈리끄는 고기를 햇볕에 말리는 날들이란 뜻이다. 무함마드는 희생제와 관련하여 “아이야뭇 타슈리끄는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한다 (<http://blog.naver.com/knp0349?Redirect=Log&logNo=20142876928>).

상징적 의미로 소규모 도축이 진행되지만, 한국 이슬람교 관계자들은 마음을 졸인다. 혹시나 도축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돼 문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들 아드하 축제’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려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의 도살은 밀도살이지만 도축 가능한 예외 조항 중에는 ‘염소나 양 등을 자가(自家) 소비를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도축하는 양이 많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얘기다(《조선일보》, 2009.11.27.).

일인당 양 한 마리를 도살하나 때로는 7명이 모여 소나 낙타 등을 잡기도 한다. 재력이 되는 가정은 홀로 소를 도살하기도 한다. 때로는 부득이하게 짐승을 도살하지 못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동물의 값만큼을 현금하거나 단식을 통해 대체하기도 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자란 무슬림들은 대개 짐승을 도살하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으며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례이기에 도살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과거 전주 성원에서도 가끔 도살을 하기도 했었다. 당시 도살 방법을 알고 있는 이주 무슬림을 주축으로 성원 내 우두실에서 도살을 하였으며 이때 한국인 무슬림과 한국에서 자란 1.5세대, 2세대 외국인 무슬림도 참여하여 도살을 도우며 방법을 익혔다. 그러나 도살할 짐승을 구입하는 비용과 더불어 한편으로 한국은 비이슬람국가로 축제 때 짐승을 도살하는 게 자칫 위법으로 비취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현재는 전주 성원에서 하지 않는다. 그래도 지나칠 수 없는 축제이기에 이맘은 양과 염소 등의 고기를 확보하여 무슬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염소와 양 등을 구매하여 대전 등지로 가서 도살, 무슬림들끼리 나눠 가지며 이드 알 아드하의 의미를 기리기도 한다.

4. 다와(Da'wah)

아랍어 다와(Da'wah)의 뜻은 ‘초대’와 ‘부름’이다. 이는 비무슬림을 이슬람으로 초대하여 이슬람에 관한 가르침을 알려주는 선교 행위라 할 수 있다.³⁷⁾ 그러나 비무슬림으로 그 대상이 국한된 것은 아니며 무슬림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것 역시 다와라 할 수 있다. 다와에서 가르침을 전달받는 대상이 무슬림이나 비무슬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슬람과 관련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

37) 이때 다와를 행하는 이는 다이(dā'i)라고 한다.

〈그림 22〉 일요일 낮 예배 후 모여

코란에 대해 공부하는 여성 무슬림들



주: 이들의 국적은 각각 이집트와 이라크로 이날 공부모임은 아랍어로 진행이 되었다.

문이다. 무슬림이라면 자신이 한 가지 가르침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학자 알파루키(Isma'il Al-Faruqi)는 다와는 강요하지 않으며, 심리적 설득이 아니고, 비무슬림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그 대상으로 삼는다. 다와는 합리적 이해이며, 이성적으로 필요하며 나아가 회상(anamnesis)이고 전형적인 초종파 운동이라고 설명한다(안신, 2008: 230).

다와는 비무슬림에게 강요없이, 그가 원하는 선에서 가령 하루에 기도는 몇 번을 하는지, 왜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 지에서부터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정체성, 교리 등 이슬람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무슬림으로서의 의무이기에 다와를 행하는 것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받아들이는 자의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물어봐요. 너를 한국에 보냈는데 한국인에게 알려줬니? 그런 데 너 안 했어. 우리나라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슬람에 대해) 물어보면 (알려주고), 우리 주위의 친구나.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궁금해하거나 나한테 직접 물어보고 하면(이스마엘, 20대 남성, 학생).

여기 외국 사람들을 보면 되게 적극적이야.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공부 많이 하

잖아. 오는 사람들 보면. 코란 공부도 하고. 단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못 하는 거지 이주 무슬림들끼리 되게 끈끈한, 공동체로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더라고. 전에 이집트에서 왔던 사람은 그게 강했어.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책자도 나눠주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어. 다만 일반적으로 선교를 강요하지 않고. 이슬람은 이런 거니까 읽어 봐라. 하지만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는 안 하고.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지. 네가 이슬람이 좋다면 믿어라(미나, 40대 여성, 직장인).

한편으로 같은 무슬림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코란 공부를 하는 것도 다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서울 중앙 성원의 경우 무슬림의 수가 많아 어린이 코란학교나 청년부, 장년부, 여성 무슬림회 등이 있다. 또한 성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한다. 전주에서도 과거 젊은 한국인 무슬림들이 모여 청년부를 조직하여 활동을 하면서 지역 간 교류를 통해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나 현재는 그 명맥이 끊긴 상태이다. 현재 전주 성원에서 만들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코란 공부 모임이 있다.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저녁에 배인 이샤 때 모여 다 같이 예배를 드린 후 시작하는데 모인 이들이 원을 그리고 앉아 코란을 1구절에서 2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다. 코란은 아랍어로 되어 있기에 모인 이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아랍어로 코란을 낭송한다. 만약 코란 공부 모임에 참여하길 희망하지만 아랍어를 모를 경우 발음기호 등 기본적인 읽는 법부터 가르쳐서 아랍어 실력을 늘리고 이슬람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게 한다. 만약 질문이 있을 경우 함께 참석한 이맘에게 질문을 하여 이해를 높인다. 공부 모임은 15분에서 20분가량 진행되며 진행할 때에는 각기 상이한 국적을 배려하여 영어를 주로 사용한다.

여성의 경우 대개 가정과 아이들이 있기에 평일에, 그것도 매일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주말 낮 예배 후 모여 공부를 한다. 코란을 읽고 이슬람 교리를 서로 알려주는데 주로 참여하는 이들이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지역 여성 무슬림인 지라 아랍어로 진행한다. 공부 모임을 진행하는 여성 무슬림만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아랍어를 모르는 다른 지역 여성 무슬림이 참여할 경우 일차적으로 아랍어로 진행한 후에 영어로 다시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코란 공부 모임에서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전주 성원 차원에서 코란 클래스를 만들 예정이다. 아랍어를 알려줘도 모국어가 아닌 이상 습득에 어려움이 많기에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관련 책을 구입하여 아랍어 교육

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랍어 발음기호부터 연습하여 개인차는 있겠지만 3-6개월 공부를 하면 코란을 읽을 수 있게 계획을 짰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해당 책을 통해 공부하여 코란을 읽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큰 편이다. 또한 코란 클래스를 만들면 비무슬림도 참여해서 배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유학생인 야스민의 경우 다와를 하고 싶어 하며 고국에 잠시 귀국할 때면 코란 읽는 법과 관련된 책이나 이슬람 잡지를 가져왔었다. 그렇지만 애써 가져와도 말레이시아인과 인도네시아인을 합해도 열 명이 되지 않기에 소수만 돌려서 읽었다. 게다가 학창시절 이슬람 학교를 다녔기에 아랍어를 읽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 하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었었기에 코란 클래스를 받기며 하루 빨리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슬림들이 이렇게 아랍어를 배워 코란을 읽고자 하는 이유는 코란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배워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코란을 가급적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렇지 못 하기에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같은 성원 내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슬람과 관련된 지식을 쌓아 해마다 이슬람 컨퍼런스를 열기도 한다. 이때는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슬람과 관련된 지식, 경험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진행 후 성원에서 식사를 나누며 친목을 쌓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으로 무슬림들은 다른 지역으로 다와를 가기도 한다. 다와를 가기를 원하는 이들 중 여건이 되는 이들끼리 모여 팀을 만든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기기에 일정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뒷받침이 가능한 경제적 여유 및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면 일정을 짰 후 대구, 대전, 광주 등 어느 한 지역에 가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돌기도 한다. 한국 내에서 곳곳에 있는 성원을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이슬람 성원은 공개된 곳이지만 먼저 해당 지역의 성원에 연락을 한 후, 도착하면 그 곳에서 먹고 자면서 해당 지역 무슬림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코란 공부를 한다. 또한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전해주고 자신 또한 새로운 가르침을 얻기도 한다. 한국 내 무슬림들의 국적이 워낙 다양하여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로 이뤄지는데 의사소통의 편리함과 깊은 대화를 위해 언어가 통하는 같은 국적의 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러한 교류를 통해 개개인은 보다 깊은 신앙심과 학식을 갖추게 되고 선교를 했다

는 심리적 만족감과 함께 타 지역의 무슬림을 알게 되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이들 간의 사회적 교류망이 확대되고 이슬람 공동체를 재인식하게 된다.

다와라는 것은 앞에서 ‘너 무슬림이지?’ (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 하나님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설명을 하는 게 다와야. 이슬람에 대해 알려주는 것. 한편으로 자맛 따블릿이라고 하는데 (선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에 있는 모든 성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성원에 가서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아주 예의범절인 것을 그룹끼리 알려주고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예의를 하는지. 그리고 기도도 하면서 다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성원에 와서 파키스탄 사람한테 가요. 혹시 네 집에 가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려줘도 되니? 괜찮다고 하면 가고.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성원에. 각 지역마다 성원에 3일씩 있으면서 청소도 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기도 계속 하고. 자기네들끼리 예의범절을 서로 가르쳐줘요.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 3일씩. 우리 내일 갈 건데 괜찮냐고 전화하고. 어차피 성원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한편으로 야스민이 연구자에게 서울중앙성원에서 열리는 Tarbiyah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같이 참여할 것을 권한 것 역시 다와라 할 수 있다. 야스민은 우연히 말레이시아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태원에 들렀다가 한국중앙이슬람성원에서 개최하는 ‘Da'wah & Tarbiyah’(선교 & 가르치고 배우기)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다. ‘Da'wah & Tarbiyah’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한자리에 모여 이슬람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친목을 갖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이기에 현실적 여건 상 지방까지 홍보를 하거나 참여를 독려하지 않지만 페이스북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무슬림끼리 팔로우를 하고 정보를 공유, 입소문을 타고 서울, 경기도는 물론 지방에서도 참석을 하는 편이다. 연구자는 9월 17일에 열린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 프로그램은 1, 2부에서 각각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중간에 식사시간 및 레크레이션 시간으로 구성됐다. 몇몇 비무슬림도 참석했으나 무슬림이 대다수였으며 대체로 여성 무슬림이 많았다.

이날 약 30여명의 참석자들은 일면식이 없는 상태였으나 쉬는 시간 및 식사시간

〈그림 23〉 Da'wah & Tarbiyah 참석자들



에 통성명을 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으며 특히 레크레이션 시간 중 팀별 미션을 통해 팀워크를 다졌다. 국적, 계층, 한국에 오게 된 동기 및 전공조차 다르지만 서로 명함과 페이스북 메일을 알려주면서 새롭게 알게 된 관계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며 이를 지속, 발전시키려 하였다. 개개인을 둘러싼 배경은 각기 다르다 하여도 대체로 20대라는 비슷한 나이, 학생이라는 신분과 함께 비이슬람국가인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공통분모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무슬림 커뮤니티의 사회적 매개체로서의 역할

1. 음식과 관련된 문제와 대응

긴꼬리사향고양이의 배설물로 만든 커피 ‘코피루왁’은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는, 1kg 당 10만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커피이다. 이런 고급 커피에 대해 인도네시아 이슬람권에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³⁸⁾ 결국 인도네시아 최고 이슬람 기관인 올레마평의회(MUI)에서는

38) 코피루왁 마시면 신성모독? 《한겨레》 2011.11.14.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30780.html.

코피루왁은 먹어도 되는 커피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그 기준을 나누며 논란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이슬람의 종교 교리 때문이다.

이슬람에서는 신의 명령에 따라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의심스럽기에 안 하면 좋은 것’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는 각각 할랄(Halal)과 하람(Haram), 마크루흐(Makruh)라 하는데 무슬림이라면 이러한 분류체계를 따라야 한다. 코란에는 하람에 대해 “간음과 간통, 거만한 언행, 오만한 언행, 중상모략, 의심하는 것, 비웃음, 실수에 대한 실망, 음주행위, 도박, 질투와 시기, 술책과 기만, 헛된 논쟁, 저울눈금을 속이는 것, 저속한 별명을 부르는 것, 거짓말, 도둑질, 알지 못 하고 따르는 행위, 사치, 과식, 낭비”(의미번역 코란, 869)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현재의 삶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내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에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에 행동 규범이 정해져있다.

특히 코란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하람과 관련한 구절이 자주 등장하는데³⁹⁾ 그 중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구절을 보면 다음과 같다.

“너희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않은 고기와 목 졸라 죽인 것과 때려서 잡은 것과 떨어져서 죽은 것과 서로 싸워서 죽은 것과 다른 동물이 일부를 먹어버린 나머지와 우상에 제물로 바쳐졌던 것과 화살에 내기를 걸고 잡은 것이니, 이것들은 불결한 것이니라.” (코란 5장 3절)

이슬람에서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의도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연사로 죽은 동물의 경우 인간이 섭취를 위한 목적에 따라 도살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슬람의 특성상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죽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39) “(하나님께서)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으니,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시니라.” (코란 2장 173절). “말하라 내가 말씀으로 계시받은 것 가운데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를 제외하고는 먹고자 하는 자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으니 필요하여 또는 알지 못하여 금지된 것을 먹었을 경우에는 죄악이 아니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심이니라.” (코란 6장 145절). “죽은 고기와 피를 금지하셨고 돼지고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것도 금지하셨노라. 그러나 필요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한계선을 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니라.” (코란 16장 115절)

위생 상 불결하다고 여긴다. 동물의 피와 돼지의 섭취를 금하는 이유도 오염된 것, 불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한 신의 이름으로 도살한 동물이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신이 인간과 동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신에게 허락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도살을 해야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 여긴다. 코란에 직접 언급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에 대한 기준 외에도 무함마드의 언행을 적은 하디스에서는 추가로 당나귀와 노새, 송곳니와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동물과 조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로 규정했다. 그 밖에 사회악으로 간주하는 주류 역시 먹어서는 안 된다(최영길, 1997: 304-308).

이와 같은 하람의 규정에 속하지 않은 동물과 야채와 곡류 등 식물성 음식, 바다에서 나오는 어류와 어패류 등이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것인 할랄이다. 그러나 만약 약에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 돼지밖에 먹을 것이 없으며 먹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먹게 된다면 이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고 먹어도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대체로 무슬림들은 신이 인간에게 이로운 음식을 정해줬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대로 행하려 한다.

이슬람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로운 음식 우리 인간한테 이로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 그 중 초식동물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맞는 거고. 그리고 잡식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주는 것을 다 먹으면 거기에서 몸에, 돼지가 갖고 있는 병원균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 습성이나 여러 가지 좋지 않다는 거지(미나, 40대 여성, 직장인).

비이슬람국가에서는 일반 음식점에서 할랄 규정에 따라 고기를 구입하거나 음식을 조리하지 않기에 무슬림들은 가급적 야채와 해산물, 그리고 곡류 위주로 음식을 먹는다. 실제로 현지조사 당시 가급적 이를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전주 성원에서 야유회를 떠났을 때 후세인이 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사와 무슬림들에게 나눠줬다. 약 30-40여명에 달하는 무슬림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순간 버스 안은 혼란에 빠졌다. 격한 고함이 오고 갔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받은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무엇인지 확인했다. 이에 후세인은 당황해하면서 서둘러 나눠준 아이스크림 중 ‘돼지바’를 급히 수거했다. 이유인 즉 ‘돼지바’ 아이스크림 포장지에 돼지가 그려있자 돼지가 원료로 들어간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연구자가 받은 아이스크림도 ‘돼

지바'였기에 뒷면의 원료를 확인하고 돼지는 단지 포장지에 들어간 캐릭터임을 알려줬다. 그러자 후세인을 비롯하여 주변 무슬림이 연구자를 둘러싸고 정말 돼지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몇 번을 확인 한 끝에야 소란이 가라앉았으며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성원에서 종종 음식을 만들어 먹는 후세인이 이사에배가 끝난 후 떡볶이를 만들어 먹자고 이야기 했다. 그러자 하산이 다가와 얼마 전에 어떤 고추장은 조리용 술을 넣어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고추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하산의 말을 오해한 후세인은 다시는 떡볶이를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에 빠졌다. 이에 하산은 고추장마다 다르다며 한국어가 서툰 후세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확인해주겠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물론 몇몇 무슬림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한다는, 혹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를 대며 종교적 금기를 깨고 하람에 속한 음식을 먹기도 한다. 기숙사 등 단체생활을 할 경우 음식 선택을 할 수 없어 아예 모든 육식을 하지 못 한 채 야채와 해산물만 먹어야 한다. 때로는 기숙사 식당에서 김치 이외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같은 식사 비용을 내면서도 밖에서 빵을 사먹어야 하는 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이나 학교에서 회식을 할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음식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인 관용에 기대어 할랄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하람임을 알면서도 먹기도 한다. 예를 들어 라나의 경우 주변의 몇몇 무슬림들 중 돼지고기를 먹는 이도 있으며 똑같은 하람이어도 그래도 자신은 닭과 소고기만 먹는다고 항변한다. 자신은 현재 한국에 있으며 유학생이라는 신분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종교 교리를 지키느냐 혹은 타협하느냐, 타협한다면 어느 선까지 하느냐가 신앙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있다.

제가 보기에 무슬림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안 지키게 되기도 해요 돼지고기 먹기도 하고. 아마 주변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밥이 돼지고기가 나오니까. 보통 아무것도 안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따로 가서 편의점에서 사야 돼요. 그럴 때 힘드니까. 한국 닭고기라도 할랄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종교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동물을 죽일 때 코란을 읽고 죽여야 하는데 여기는 전기로 죽여서 하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라나, 20대 여성, 학생).

전주 성원의 이맘은 종종 예배 후 쿠뜨바를 활용하여 한국의 일반 음식점에 갈 경우 어떤 음식에 돼지고기나 조리용 술이 들어갔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등 아예 먹을 수 있는, 확실한 음식을 알려주면서 할랄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당부를 통해 할랄 규정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지켜야 할 중요한 규정이라는 인식도 있겠지만 역으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무슬림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스스로 알아서 철저히 지키는다면 굳이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과 가게(한국식당)에 가더라도 물고기나 김치, 야채 등을 먹으세요.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먹으세요. 우리 무슬림은 크리스천이나 유대교인이 운영하는 가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의 규칙에 따라 잡은 것이 아니기에 먹으면 안 되요. 만약에 먹는다면 이슬람 규칙을 어기는 것, 규칙에 대항하는 거니까. 규칙 지키는 게 이슬람 스타일이예요(전주성원 이맘, 60대 남성).

하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가급적이면 코란에 따라 돼지고기와 술 등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가급적 먹지 않으려 하며 어떤 음식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⁴⁰⁾ 심지어 몇몇 무슬림은 아예 외식 자체를 꺼려하며 오직 자신의 집에서 만든 음식 등 확실한 음식만 먹으려 한다. 돼지고기같이 눈에 보이는 육류는 알 수 있지만 어떤 음식에 조리용 술이 들어가는지 아는 것에는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채식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이주 외국인 무슬림들은 고국에서도 육류를 섭취하였기에 채식과 해산물 위주의 식생활에 힘들어한다. 때문에 할랄고기나 고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향신료 등을 따로 구입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전국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고기를 파는 할랄 정육점은 서울 이태원 성원 근처에 있는 정육점 하나밖에 없다(홍승표, 2008: 44). 그나마 서울 등지에서는 이곳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할랄고기를 구매할 수 있지만, 전주는 할랄 정육점이 들어설 정도의 지역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대응방식이 나타난다.

첫째로 닭과 같이 크기가 작은 동물의 경우 구입하여 직접 도살하기도 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란 무슬림이라면 대부분 ‘이드 알 아드히(희생제)’ 등을 통해 어

40) 한국 이슬람 중앙회에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슬림의 음식섭취를 돕기 위해 제품의 원재료 등 성분을 확인하고 육류의 경우 도살 과정을 살펴 할랄 리스트를 작성, 배포하여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알려주기도 한다.

렸을 때부터 도살하는 법을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과거 전주 성원에서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 때 이주 무슬림들이 밭 벗고 나서 성원에서 직접 양과 염소를 도살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음식을 얘기하고 싶네요.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한 소고기나 닭고기라고 해도 의식을 행하고 잡는 할랄고기가 아니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정말 먹고 싶을 때는 우선 산 닭을 주문하여 제가 직접 도살하여 음식을 해 먹습니다(무슬림 편, 이슬람 성원에서 3일 중 전주 성원 무슬림 인터뷰)⁴¹⁾

이슬람식 도살법은 도살하기에 앞서 먼저 비스밀라(Bismillah,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라 후 아크바르(Allah Akbar,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다)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숨통을 끊고 난 후 피를 최대한 제거한다. 그리고 동물의 몸이 차가워진 후에 가죽을 벗기고 해체작업을 한다(최영길, 1997: 310-316). 그러나 이슬람식으로 도살을 하는 것은 도살할 장소를 확보해야하며 피를 제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매번 직접 도살을 하기란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전주지역의 무슬림들은 이태원에 있는 할랄 정육점에 고기를 주문하여 택배나 버스 터미널을 통해 받는 방법을 취한다. 이마저도 번거로울 경우 때때로 서울로 외부 강연을 나가는 이맘이 할랄고기를 대신 구매해주시기도 한다. 또한 그나마 자취를 하거나 그밖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음식을 해먹을 수 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는 무슬림은 불가능하기에 성원에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편의를 봐준다. 일례로 나디아와 나빌라는 인도네시아 출신 교환학생으로 올해 초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이 대개 주말에만 성원에 왔었는데 그동안 이맘과 자세한 대화를 나눠보지는 못 했는지 이맘은 어디에 사는지, 한국에서의 생활에 관심을 보였다. 이맘은 라마단 기간에 성원에서 식사를 제공함을 알려주면서 이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재료를 가져와 성원에서 조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41) 영삼성: 내 삶의 Pathfinder(<http://www.youngsamsung.com>)

이맘: 어디 살아요? 나는 도와줄게요, 당신은 나의 딸이나 마찬가지로.

나디아: 기숙사? 기숙사 살아요.

이맘: 기숙사? 괜찮아요? 먹는 건 어때요? 힘들어요?

나디아: 좀 힘들어요.

이맘: 언제든지 성원에 와서 요리해도 괜찮아요. 곧 라마단 기간, 그래서 저녁에는 먹을 거 많아요.

나빌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할랄고기는 어디에서 (사나요)?

이맘: 할랄고기? 원하면 말해요 사다 줄게요.

한편으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무렵부터 한국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 중 무슬림인 서남아시아 계열의 이주노동자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초기 이주 무슬림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슬람식으로 직접 닭을 도살하고 우편과 보따리장수를 활용하여 향신료를 구해 음식을 해먹었다. 그 후 이주 무슬림이 증가하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팽창하여 자연스럽게 할랄 식품의 시장이 형성되었다. 일정한 시장이 형성된 후 판매업자와 구매자는 국적에 따라 분화된 양상을 보인다. 판매업자는 특정한 국가 출신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판매지 인근에 어느 국적 출신이 많은가에 따라 해당 국적의 판매업자가 강세를 보인다. 구매자들 역시 같은 국적끼리 일정한 판매업자를 찾는 특징이 있다. 즉 “처음에는 음식의 ‘종교적 정체성’과 ‘원칙적인’ 차원을 강조하던 외국인 무슬림들도 점차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각자의 음식문화가 갖는 종족성과 지역적 특성을 추구하면서 할랄음식을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송도영, 2011).

전주 성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는 직접 도살이나 서울 등지에서 할랄 식품을 구하는 것이 대세였으나 나중에는 전문 판매업자가 등장하게 된다. 비록 전주 인근의 무슬림 세력이 아직은 크지 않아 가게를 마련하여 할랄과 관련된 식품을 파는 상설 가게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방글라데시 출신의 판매업자가 등장하여 냉동차량을 이용, 할랄 고기와 각종 향신료, 기타 등등의 음식재료들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할랄 식품 판매업자는 익산에 거주하는 무슬림으로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며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전북대학교 병원 인근을 방문한다. 이곳은 주로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판매업자가 방문하면 국적과 상관없이 전주 지역 무슬림들이 삼삼오오 나와 물건을 산다. 판매업자는 판매를 하러 오는 길에 전주 성원에 들러 예배를 드리기도 하기에 이를 구매하고자

〈그림 24〉 할랄식품 전문 판매업자가 전북대학교 근처에서
무슬림들에게 할랄고기, 과일, 향신료 등을 파는 모습



자료: 최혜린(2010).

하는 이들이 성원에 들러 예매가 끝난 후 판매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옛날에는, 우리 때는 구하기 힘들었지 20년 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소고기는 있었는데 양고기는 (구하기) 힘들었어. 그래서 한번 살 때 20kg씩 냉장고에 집어넣었어. 서울 이태원 (할랄 정육점)에서 주문해서. 무슬림 아닌 다른 외국인들도 (이동차량에서) 사. 향신료 같은 것. 옛날에는 무슬림이 아닌데도 여기 왔었어. 금요일에. 그리고 와서 기다렸었어. 기도하고 나와서 차 문 열 때까지. 나는 무슬림인 줄 알고 기도시간이라고 하니까 무슬림 아니라고 하더라고 무슬림 아닌 사람도 옛날에는 왔었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닭고기, 양, 돼지고기 빼고 수입된 걸 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매로 떼서. 뼈 있는 거, 뼈 없는 거 다 있어요(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보통 일반 정육점에서 구매하는 고기의 비용이 만원이라면 할랄고기는 만오천원으로 50%정도 비싸지만 할랄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기에 무슬림들은 기꺼이 이를 지불한다. 때로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비무슬림이어도 향신료 등

을 구매하기 위해 일부러 성원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 편이어서 파키스탄 출신의 또 다른 판매업자까지 등장하여 기존 판매업자와 번갈아 가며 물건을 판매하러 온다.

여전히 한국에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며 종교적 규정에 따라 사는 것은 불편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철저하게 종교 교리에 맞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스스로 종교적 관용에 기대어 타협을 하기도 한다. 타협 중에서도 돼지를 제외한 육류를 먹거나 돼지고기까지 먹기도 하는 등 공통된 문제점 앞에서 개인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은연 중 그들 간에 거리를 두거나 자신이 보다 낫다는 인식을 표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할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 역시 볼 수 있다. 점차 이주 무슬림이 늘어나면서 그들 스스로 종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한국사회에 적응해감을 확인할 수 있다.

2. 무슬림들 간의 관계망 형성

1) 일상생활에서 정보 공유

이슬람성원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코란을 읽는 식의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종, 국적, 나이, 성별, 직업 등과 관계없이 무슬림은 하나의 공동체이자 형제, 자매라고 여긴다. 물론 관념 상 형제, 자매이지 나이 어린 이가 나이 많은 이에겐 깍듯하게 인사하고 대우를 해준다. 또한 현실적인 여건 상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언어로 즉, 아랍어, 영어, 한국어 등과 상관없이 대화를 나눈다.

마스지드는 이주 무슬림이 비공식적이고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핵심으로서 이주공동체 안에서 새로 온 이주자에게 정서적, 문화적 지원은 물론 의식주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조희선 외, 2008: 105).

이주 무슬림은 신 앞에서는 모두 형제, 자매라는 생각 하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흔쾌히 수락한다. 특히 이주 무슬림이기에 원하는 물건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무엇이 할랄음식으로 먹어도 되는지, 이슬람 성원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한국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림 25〉 이드 알 피트르 축제를 맞아 부모를 따라 병문안을 온 무함마드에게 말을 거는 압둘라



외국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사는 거, 심심할 때 예를 들어 가방 사고 싶으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얼마예요?” 이런 거. 한국은 바지가 스키니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넉넉한 바지 사는가. 이슬람은 기도하고 먹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할랄인지 물어봐요. 이슬람 사람이면 여자는 반팔 입으면 안돼요. 손목까지, 발목까지 가려야해요. 그래서 왜 가려야하는지 말하면서 정보를 공유해요. 다 무슬림이라도 어떤 무슬림은 알고 어떤 무슬림은 몰라요. 저는 이슬람 학교 다녀서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슬람 학교 안 다니면 이슬람 잘 모르기도 해요. 저는 코란, 하디스, 아랍어 등등 배웠는데 보통 학교는 이슬람은 1과목만 배워요. 이슬람국가에서 자란 무슬림이어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원에서 정보를 공유해서 가르쳐요. 서로 알려줘요. 보통 이집트, 이라크, 시리아 쪽은 이슬람 잘 알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등은 조금만 알아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모두 히잡을 쓰지만 몇몇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사람은 히잡을 안 써요. 우즈베키스탄인도 잘 몰라요(야스민, 20대 여성, 학생).

일제로 전기공장에 다니던 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양쪽 손목이 절단

되는 일이 있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고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성원에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 전해주며 틈이 나는 대로 병문안을 갔었다. 이드 알 피트르 축제 때도 수시로 여러 무슬림들이 방문하여 실제 피를 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홀로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고 하였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변에서 도움을 주며 또한 병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마다 다르기에 각각의 분야마다 전문지식을 가진 이가 있어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준다.

여기서 아프면 자기 돈으로 하고 형제들끼리 좀 도와주고 병원 가서 잘해주고 그리고 (각 분야마다) 잘 아는 사람이 꼭 한명씩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나 병원 좀 같이 가자, 아니면 나 핸드폰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같이 가자, 나 집 이사 가야하는데 집 좀 알아봐줘라.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고 같이 가죠(이스마엘, 20대 남성, 학생).

아플 때는 선배 중에 이드리스 선배가 약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우리에게 줘요 이드리스 선배는 매년 한번 인도네시아 가서 약이나 기념품, 라면 같은 것 사와요 휴대폰은 히바 선배가 알려줬어요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종교는 달라요 힌두교 사람. 필요하다고 하니깐 같이 가서 알려줬어요 이 선배도 기숙사에도 알게 됐어요 기숙사에서 보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물어봐서(나빌라, 20대 여성, 학생).

개개인끼리 정보를 공유해 집을 구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한편으로 아직 계획단계에 있지만 전주 성원 차원에서도 내부의 공터에 3층 높이의 원룸을 지어 원룸이나 기숙사 등에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이주 무슬림을 대상으로 비교적 싼 값에 제공하려고 한다. 이는 이주 무슬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들의 예배 및 할랄음식섭취 등 종교적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여성 무슬림의 경우 원룸에 도둑이 들어 옷을 훔쳐가는 등 보안상 문제가 있기에 성원 내부에 숙소를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 성원 역시 서울의 중앙 성원에서 지원하는 약 30여만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꾸려나갔었는데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이 창출되면 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며 이때 한국인 관리자를 두어 성원의 내부 관리를 담당하게 하여 성원이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공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과 비무슬림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일종의 휴게소와 같이 즐기는 공간이 되길 원하고 있다.

〈그림 26〉 카짐부부가 이주 무슬림을 초대하여 대접한 음식



이주 무슬림간 형성된 친목관계는 끈끈하게 이어져, 떠날 때는 송별식을 열기도 한다. 광주로 유학을 온 한 외국인 무슬림이 학업을 마치고 중국으로 다시 유학을 가기로 하자 친분이 있는 몇몇 무슬림이 모여 전주에서 송별회를 열었다. 카짐 부부가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초대를 해 초대받은 이들이 서로 형편이 되는대로 돈을 모아 음료수와 과일 등을 사들고 방문을 했다. 이들은 성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구별을 지어 자연스럽게 나뉘었는데 남성들은 안방으로, 여성들은 부엌 겸 거실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때 아이들은 남녀 구분이 없이 안방과 부엌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자유롭게 놀았다. 사람들이 다 왔다고 생각했는지 무슬림들을 초대할 카짐 부부는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내왔다. 이집트 출신임을 살려 대체로 이집트 식으로 만든 음식으로 파스타를 밀가루와 함께 구운 일종의 파이와 양고기 찜, 다진 고기를 넣은 부침개, 구운 닭, 양고기와 양배추 찜, 2 종류의 밥 등 이다. 뷔페 처럼 저마다 개인접시에 담아서 먹었는데 초대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개인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었다. 과거 유목생활을 했던 중동문화의 특성상 종종 친구를 초대하여 미리 준비를 한 푸짐한 음식을 끊임없이 권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이기에 사람들은 난색을 표하면서도 조금만 달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 후식을 먹으면서 모여 앉아 학업, 양육, 가사 등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중국으로 가는 유학생과 그의 가족들의 앞날에 신의 가호를 빌어주었다.

2) 연례 야유회

2011년 5월 6일 일요일, 전주성원의 무슬림들은 버스를 대절하여 군산의 은파 유원지, 새만금, 부안의 격포에 이르기까지 야유회를 갔었다. 아침 7시, 어떻게 보면 이른 시간임에도 하나 둘씩 외국인 무슬림들이 약속장소인 성원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있었느냐와 상관없이 이런 식의 나들이는 처음이라며 저마다의 얼굴에서 상기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한 가정 당 4만원이기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쉽게 성원에서 볼 수 없었던 이들까지 약 30-40여명의 무슬림들이 참석을 했다. 일정에 따른 공지사항은 한국어-영어-아랍어, 모국어 등 언어의 장벽을 몇 번 넘나들어서야 가능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군산의 은파 유원지. 휴일 오전 운동과 나들이를 나선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 시선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저마다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며 모처럼의 휴식을 만끽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의 경우 히잡과 전통복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익산과 군산에 사는 무슬림들도 뒤늦게 합류하여 나들이를 즐겼다. 이윽고 새만금 방조제를 찾았을 때는 분위기가 절정에 달아 옷이 젖는 것을 개의치 않고 바닥분수의 스킬을 느끼며 그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는 등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대여섯명의 아이들은 바닥분수가 신기했는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옷이 젖어 놀라 울기도 하고 신이 난 아이들은 부모도 들어오라고 성화였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미리 예약을 한 부안에 있는 수련원에 들러 서둘러 전날 준비한 음식을 먹을 준비를 했다. 남성 무슬림들이 조리실에서 미리 준비해 온 밥과 다소 매콤하게 양념이 된 치킨을 개인용 접시에 옮겨 담을 동안 여성 무슬림들은 숙소에서 입가심으로 먹을 당근과 오이를 채 썰는데 여념이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잔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각각 성별에 따라 방에서 주흐르 예배를 드렸다. 여행을 나온 것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일정표에 주흐르(Dohor)와 아쓰르(Asr) 예배시간이 명기되어 있다. 예배 후 몇몇은 직소폭포로 산행을 갔으며 몇몇은 숙소 근처에 모여 담소를 나눴다. 연신 자신이 배우자감으로는 더 낫다는 식의 농담을 하며 함박웃음을 짓던 분위기는 변산해수욕장에 방문할 때까지 이어졌다. 아직은 물에 들어가기 추운 5월임에도 무슬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발을 적셨다. 그리고 비록 춥지만 언제 다시 또 이렇게 나와서 놀 기회가 있겠냐며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한 장의 사진이라도 더 찍으려고 애를 썼다.

〈그림 27〉 전주성원에서 알게 된 이주 무슬림들이 조직·진행한 야유회 프로그램

Jeonjumuslim Group Annual Picnic' 2011

Program details

Date: 05.06.2011 Sunday

Time	Place	Activities
07.30	Mosque (besides Homeplus), Jeonju	Start for picnic
08.30	Eunpa park (near Kunsan National University)	Free movement And Refreshment
10.00	Kunsan park	Start for Samengum dike (World largest sea wall)
10.30	Samengum dike	Free movement
11.30	Samengum dike	Start for Buan
12.30	Rest house,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CBNU, Buan	Check in, rest, Lunch, Dohor prayer and quiz
15.00	Start for Jikso falls, Byeon Sanbando National Park	Hill tracking, watch falls and nature
17.00	Rest house	Asr prayer and refreshment
17.30	Start for sea beach	Free movement and games
18.00	Sea beach	Start for Jeonju
19.30	Mosque, Jeonju	Magrib prayer and Allah Hafez to each other

연례 야유회(Jeonjumuslim Group Annual Picnic 2011)라는 거창한 타이틀 속에서 이뤄진 모처럼의 나들이는 각자 학업과 직장생활로 바쁜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참석한 이들 간의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아무리 무슬림이라 하여도 저마다 일상생활이 있기에 성원에서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어찌다가 한번 참석을 할 경우 서로 엇갈리게 된다면 수개월에서 근 일 년 가까이 성원에 다녀도 서로의 존재에 대해 모를 수가 있다. 특히 서로 국적과 성별, 직업이 다르다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혹은 성원에서 몇 번 보았더라도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과 개인적인 친밀감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이번 나들이에서 처음 보는 이들이나 그동안 서로 잘 모르고 지냈던 이들은 통성명을 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이주 무슬림은 교육과 친목, 정보 교환 등의 목적으로 무슬림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국적별, 직업별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출신 지역별로 종교적 커뮤니티의 성격, 모임 횟수 등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전체적으로 커뮤니티는 이주 무슬림들의 정신적-종교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이주 무슬림들의 한국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조희선 외, 2008: 118).

전주 성원에서도 때때로 국적별로 모임을 가지기도 해 성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광주 등 인근 지역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기 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직장인과 학생, 기혼과 미혼에 상관없이 같은 국적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모여 대전 등지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소수의 사람들은 전주에서 특별히 모임을 가질 수 없어 연례 야유회를 통해 무슬림이라는 이름하에 모이기도 하지만 같은 국적의 친구들을 찾아 서울로 올라가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인인 야스민의 경우 전주에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3명, 인도네시아 사람은 5명밖에 없으며 보통 친구를 만나고 싶을 경우 서울 중앙 성원에 가는 편이다. 우즈베키스탄인인 라나 역시 주말같이 여유가 있을 때 서울로 올라가 고국에서 같이 학교에 다녔던 친구나 같은 장학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친구들과 만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전주라는 거리상 지역적 문제가 있기에 때로는 온라인을 이용해 교류를 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인인 나빌라와 나디아는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 라디오를 듣는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정식으로 방송일은 정해져있지 않으나 할 때마다 메시지를 통해 접속을 해 방송을 듣는 편이다.

각기 다른 국적과 민족이 그 배경과 상관없이 성원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 들어 서로의 국적과 민족, 언어가 같은 이들이 소규모의 무살라(musallah, 성원 아래 단계인 종교 공간)를 열어 기존의 성원에서 분리, 이탈되어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일례로 안산 성원의 경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출신이 고루 섞여 있었으나 각각 무살라를 열어 흩어졌다.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전주 성원에서도 성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면서 한편으로 방글라데시인들의 모임처럼 국적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형성되었다. 이에 향후 전주 성원에서도 국적 혹은 민족별로 소규모 무슬림 공동체로의 분화도 충분히 일어날 여지가 다분하다.

3) 한국인 무슬림과의 관계 맺기

무슬림들 간의 관계맺기는 이주 무슬림들 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인 무슬림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 한국인 무슬림들은 이사, 병원 방문 등 한국생활에 있어 겪을 수 있는 소소한, 그러나 한국어를 하지 못 한다면 곤란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한 한국인 무슬림은 유학을 온 외국인 무슬림이 사랑니 발치와 관련하여 고통을 호소하자 자신이 알고 있는 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료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진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료가 잘 되었는지 관심을 가졌다.

말레이시아인인 야스민은 원룸에서 살다가 기숙사로 이사를 할 때 짐을 나르는 것에 대해 곤욕스러워했다. 아무리 짐이 없더라도 차가 없는 한 이사는 무리였기 때문이다. 하여 차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인인 엘마의 가족에게 부탁을 하여 같이 짐을 날랐다. 또한 한국어 수업을 받았지만 언어장벽은 여전하여 한국인 무슬림에게 부탁을 하여 입사 절차를 대신 밟아주길 바랐다.

이러한 관계맺기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인 모습을 보인다. 직장생활을 하는 낮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서로에게 한국어와 아랍어를 알려주는 스티디를 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성원에서는 아랍어나 영어로 설교 및 대화가 진행이 되기에 한국인의 경우 소외감을 느낄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탁을 넘어서 때로는 대학입학과 관련된 문제까지도 부탁을 하기도 한다.

한 한국인 무슬림 부부의 아들이 카타르의 한 대학에 지원을 했었는데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 커트라인과 달리 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보다 높은 커트라인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이들은 일단 입학 후 장학금이 걸린 시험기간 전에 영어점수를 올리고자 했다. 장학금 커트라인과 대학에서 입학조건으로 제시한 커트라인의 점수가 같았는데 어차피 장학금을 받아야만 해서 애초부터 입학 후 영어성적을 올리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맘은 추천서는 물론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면 직접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해주겠다고 했다.

V. 한국인과의 관계

1. 부정적 이미지와 매개된 거리두기

비이슬람국가인 한국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무슬림임을 밝힌다면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는지 등 신앙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테러나 일부다처제,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 등 이슬람에 관해 기존에 알려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이미지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한다. 그만큼 이슬람은 낯선 종교, TV 등 언론 매체에서나 볼 수 있는 종교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 무슬림들은 이제껏 한국사회는 서구사회를 통해 이슬람에 관련된 이미지를 수용해왔기에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인다. 또한 과거 9.11테러에서부터 가깝게는 리비아 내전까지 이슬람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이슈와 뿔 수가 없기에 이와 관련하여 사람들의 관심이 표출된 것이라 여긴다. 같은 무슬림이면서도 테러를 일으키는 무슬림들 덕분에 본의 아니게 테러리스트라고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은 테러를 일으키는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다수에게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이슬람에서 지금 보면 테러리스트, 테러로 죽은 사람들. 제 생각에 이슬람을 아직 못 배운 그런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자기가 아랍이나 무슬림나

라에 태어나서 자기가 무슬림인데도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자라는 그런 새싹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방식도 모르고 이슬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도 모르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무슬림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이슬람은 테러라고 하기 이전에 이슬람은 무엇일까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알고 난 후에 판단해야 하는데 단지 그 소수의, 그 나라의, 그 집단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웃긴 것이죠(이스마엘, 20대 남성, 학생).

제 생각에는 테러리스트나 그런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를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고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랑 아들이랑 만났는데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누구든지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라고 말했어요. 빈 라덴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비슷하니까. 저는 그런 질문은 거의 안 받았어요. 그 선생님 빼고는. 진짜 이상해요. 기본도 나쁘고. 사람들 보면 외국에서 살다보면 그런 것을 자주 보게 되요. 하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바로 얘기해요.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지 술을 안 먹는지. 보통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먹는데 왜 너만 안 먹어.’, ‘아니면 한번하면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돼지고기 먹어도, 한번만 먹어도, 다른 사람이 안 보잖아요.’ 아마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외국 사람들은 괜찮아 해요.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한국 사람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나중에 질문을 자주 해요. 어떤 종교냐고. 이슬람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이슬람이라고 하면 이슬람?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라나, 20대 여성, 학생).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이슬람은 낯선 대상이기에 궁금해 하는 점을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물어봤을 경우에만 답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애써 자신에게 묻지 않았는데 찾아가 해명을 하는 것이 웃길뿐더러 어차피 자신은 떳떳하게 살고 있기에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이다. 다만 물어봤을 경우에는 올바른 이해와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는 식이다.

반응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슬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가끔씩 만나기도 하고. 일단은 그냥 놔둬요. 이상하게 봐도. 질문을 안 하면 내가 먼저 가서 ‘우린 이렇다’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반응해서 물어보면 우린 이리이러하기 때문에 그

렇다고 애길 하지만 (문지 않는다면)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놔둬요. 어차피 나는 좋은 공동체, 이웃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나만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누가 나를 나쁘게 보더라도 그 사람한테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한편으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무슬림의 출신 국가나 민족, 인종적인 측면과도 연결이 있다. 아랍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출신 지역에 따라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랍 지역의 경우 초반 한국 생활에서 테러나 전쟁 등과 관련된 질문을 종종 받았다. 이들은 처음에는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줬으나 후에는 모든 무슬림이 탈레반이나 테러리스트는 아니라는 식으로 끊고 자신의 일이나 하라는 식으로 회피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경우 테러와 이슬람을 연관시킨 질문을 받아본 적이 아랍 지역 출신에 비해 비교적 적은 양상을 보인다. 이는 서구 언론에서 보여주는 이슬람과 연결된 부정적 이미지가 작용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아랍 지역 정치적 상황과 결부하여 테러와 여성억압, 반미주의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연결되어 아랍 지역 출신의 경우 이와 같은 질문을 종종 받지만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등은 같은 이슬람 교인이라 하여도 외양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나타나기에 대체로 이슬람 자체에 대한 질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귀찮은 정도로만 인식할 뿐 한국사회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한 사회적인 어려움은 없는 듯하다.

한편으로 그 당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불쾌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으나 무슬림들은 하디스에 따라 해당 인물이 없을 시에 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타인에 의해 감정이 상했다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면 선행을 쌓는다고 생각하기에 애써 마음을 비우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무슬림 개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원 자체에도 해당이 된다. 9.11 테러 이후 전주 성원에는 테러방지 및 여타 무슬림들의 한국생활동향파악 등을 목적으로 경찰이 종종 방문을 한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공권력의 방문에 대해 무슬림들은 어차피 어디를 가도 경찰은 있으며 보호 목적으로 오는 것으로 해석한다. 게다가 어차피 방문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그 중에는 이슬람

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도, 그러다가 개종하는 이도 있기에 개의치 않는 입장이다.

성원에는 오셔서 무슬림의 안전을 위해서 오셔서. 감시는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합동예배 금요일에 할 때 그때 와서 한 달에 한번, 2주에 한번 자주 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도움도 많이 되죠.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나는 아니지만 다른 외국분들이 쉽게 말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같은 거 못 받으면 전화해서 경찰서인데 경찰인데 이러이러해서 빨리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하산, 20대 남성, 직장인).

경찰의 방문은 사전 이야기를 통해 선약을 하고 이뤄진다. 우선적으로 무슬림들이 많이 모이는 금요일 점심예배 후 보통 저마다 대화를 나누다 헤어지지만 이맘이 잠시 남아 이야기를 할 것이 있다고 사람들을 남아있게 한다. 각자의 국적과 사용언어가 다르기에 사전에 상의를 거쳐 경찰이 한국어로 설명을 하면 한국어와 아랍어가 가능한 무슬림이 이를 아랍어로 통역을, 아랍어와 영어가 가능한 무슬림이 이를 다시 영어로 재통역을 하며 아랍어와 영어를 통해 성원 내 무슬림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때 2층에 모인 남성들은 주의 깊게 듣지만 3층에 있는 여성들은 그리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며 저마다 모여 대화를 나누기에 바쁘다. 한국생활과 관련된 대외적인 일을 남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경찰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알아야할 상식과 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 가령 무슬림들이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112 신고 통합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어디에서나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여권을 소지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경찰의 설명 중 무슬림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토바이와 관련된 설명이다. 모터가 달려있는 모든 장치는 무조건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오토바이 CC 차이에 따른 운행여부 및 국제 운전 면허증 획득과정, 안전모 착용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무슬림들은 9.11 테러 이후 이슬람을 테러 단체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에 경찰의 방문에 대해 테러단체와의 연관 때문에 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으로 테러리스트라는 인식과 더불어 외국인이라는 점이 더해져 혹여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보호를 위해 경찰이 방문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한다.

2. 개신교 신자들과의 관계

한국 개신교의 적극적인 선교 방식에 의해 외국인노동자와 유학생은 선교 대상이 된다. 무슬림 역시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주된 선교의 대상이 되며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다(구재익, 2003; 백광현, 2008; 송영신, 2003; 오부영, 2006; 정원식, 2009). 무슬림이 선교를 통해 기독교인이 된다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 스스로가 현지 선교를 할 수 있으며 한국의 선교 사업의 고두보적 역할이 기대됨은 물론 개종을 한 사례로 좋은 홍보효과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주 무슬림의 유입으로 국내 무슬림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이슬람의 확산으로 여기고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신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슬람 정부의 인권탄압 측면과 민주주의 제도의 우월성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과 유관함을 설명”(이준호, 2004)하는 식의 설명을 통해 보다 간접적이면서 지속적인 선교를 하려한다.

간접적이면서 지속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 물꼬를 트는 방법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다. 봉사활동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성경 등 개신교와 관련된 이야기만 한다는 데 있다. 정작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개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에 외국인 무슬림들은 불만은 가진다. 게다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이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개종을 권하기도 한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냐고 기독교 책을 주고 괜찮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원룸 근처까지 쫓아오기도 하며(야스민) ‘히잡 안 쓰니까 사람들이 오면 이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 믿어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히잡을 쓰고 다녀야할지 고민(나디아)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교회로 지속된 초대에 지쳐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책(이스마엘)을 하기도 한다. 무슬림들은 한국인의 호의적인 접근에 고마워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혀 보다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자 한 것이지 개종을 하기 위한 만남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지 않자 교회에 다니는) 한 친구는 화가 났어요. 왜 돼지고기를 안 먹냐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다른 것으로 설명해서

그냥 얘기 안 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라. 처음 (외국인) 친구들은 이상하게 보지만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왜 돼지고기 안 먹냐, 아니면 라마단 할 때 아무 밥도 안 먹을 때. 예를 들면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 ‘한번만 먹어봐.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어떤 (한국) 사람들은 설명해도 (계속 말을 해요). 어떤 선생님은 시간 나면 일요일에 교회 가자고 하고.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일요일에 시간 있으면 외국 사람들이 가는 교회가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다고 가자고. (앞에서는) 네네 하지만 안 가죠. 보통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라나, 20대 여성, 학생).

한편 개신교와 이슬람 사이의 종교적 연관성 때문에 친밀감(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경과 코란의 밀접함, 서로 같은 예언자 등)을 가지거나 혹은 종교로 인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타종교를 알아야겠다는 생각 하에 무슬림 스스로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무슬림은 한국인이 이슬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식으로 오해를 바로 잡기도 한다.

가령 선교하고자 하는 개신교인이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를 놓고 여성 무슬림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은연중에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에 대해 무슬림은 원칙적으로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고 부인의 반발에도 결혼을 하는 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동의 어느 나라를 가도 다수의 부인을 둔 무슬림은 1%로 되지 않는다. 즐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결혼하지 못 한 여성이나 남편과 사별하고 힘들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 한다. 또한 만약 즐기기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의 남성들처럼 한 명의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하는 것이 편하지 각각의 부인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며 한국인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음을 이해시키려 한다.

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만남이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이 알고 싶어 하면 그때서야 알려주는 이슬람의 선교 방식과 달리 개종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귀찮아하거나 지속적으로 개종을 권하고 교회에 함께 가길 원하는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도 벌어진다. 예를 들어 아이샤의 경우 주변에서 이슬람 성원에 가는 것을 말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모국의 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를 두고 쓴소리를 한다. 개신교인인 지인의 눈에는 그녀가 모국의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아이샤는 지속적으로 교회에 갈 것을 권유하는 지인이

부담스러워 결국 거리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또는 한국인 친구가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 먼저 물어와 간단하게 알려주었을 뿐이었는데 상대가 믿음을 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 일도 있다. 이에 대해 주변의 개신교인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며 힐난했다. 개신교로 개종하지 못 할망정 역으로 이슬람을 전도했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자신은 개신교처럼 귀찮을 정도로 교리에 대해 이야기 하고 개종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몇 마디 나누지 않았고 상대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종을 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처럼 외국인 무슬림을 선교하기위한 한국인들의 접근은 개신교 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 역시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 외국인 무슬림들은 좀처럼 쉽게 한국인을 믿지 못 하고 낯선 이의 방문을 꺼려하게 된다.

3. 직장 및 학교에서의 관계

이주 무슬림들의 직장 및 학교 등 소위 말하는 주류사회와의 관계는 이주자라는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언어의 장벽이라는 문제가 있어 관계맺기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언어는 이주사회에 적응함에 있어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주사회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지 못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 “성인의 몸과 어린아이의 감정과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어 “문명적 스펙트럼의 위계구조 내에서 차별적으로 배치”된다(김현미, 2005: 38; 김준환, 2009: 34에서 재인용).

이주 노동을 온 무슬림들외에도 유학생이나 그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얻고자 하지만 일차적으로 직장을 구하기조차 어렵다. 공장 등 단순 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일을 숙지하고 수월한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나빌라는 온라인 아르바이트를 해요 인도네시아 고객 은행 계좌 관리하는 일을 해요 대구에 사는 인도네시아 선배가 알려줘서 7월부터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는데 외국인이나 안 됐어요 보통 중국인들이 많이 하고 중국인하고 외모가 비슷하지만 한국어 잘 못 해서(나디아, 20대 여성, 학생).

유학생인 나디아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 했으며 이에 대해 그녀는 자신보다 한국어를 더 잘 하고 외관상 한국인과 비슷한 중국인이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여긴다. 나디아와 같이 온 나빌라는 아예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모국의 인맥을 이용,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국과 관련된 일을 한다.

유학생인 남편을 따라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온 아인 역시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만으로는 한국의 물가를 감당할 수 없어 잠시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 놓더라도 일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에 구하지 못 했다. 결국 이들은 노동의 기회를 아예 얻지 못 하거나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인 모국어나 영어 과외를 하기도 한다. 알제리 출신의 아시아나 말레이시아 출신인 야스민은 각각 프랑스어와 영어 과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지만 단발성에 그칠 뿐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고 있다. 프랑스어는 영어에 비해 그만큼 수요가 적어 과외를 구하기가 힘들지만 영어는 수요가 많으나 수요자들이 가급적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의 영어권 나라를, 인종적인 면에서는 백인을 더 선호하며 그나마 아시아권에서는 어학연수를 통해 이미지가 형성된 필리핀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출신이 고정적인 영어 과외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무슬림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주, 한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차이 속에서 차별을 받는다. 때로는 입사 전 계약했던 금액과 달리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월급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일하는 한국인과 일의 숙련도를 비교당하기도 한다. 또한 초과근무나 업무분배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기도 한다. 자신보다 나중에 입사한 한국인이 더 많은 월급을, 더 적은 일을, 공휴일 업무 시 배려를 받는 것이다.

전주지역 무슬림을 조사한 최혜린(2010)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유학생인 한 남성 무슬림은 자신이 먼저 일을 시작하여 후임으로 들어온 한국인 여성에게 일을 가르쳐줄 정도로 숙련도가 있음에도 사장은 한국인 여성이 자신보다 일을 더 잘한다고 추켜세웠다. 또한 한국인 여성은 수업을 이유로 주말 근무에서 제외되었지만 자신은 빠질 수 없으며 갑작스럽게 초과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무슬림들은 자신이 무슬림이어서 이와 같은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처음에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으며 나중에 무슬림임을 밝혔어도 여전히 자신을 대하는 차별적인 태도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 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보다는 한국인 사장과 한국인 직원, 외국인 직원이라는 위계구조 속에서 자신이 최하위에 있으며 이를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인종상의 차별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무슬림들의 직장 내에서 낮은 위치는 학교에서도 적용된다. 한국인 사장과 한국인 직원, 외국인 직원의 구조는 한국인 교수와 한국인 선배, 외국인 후배로 바뀌어 그대로 적용된다. 이들이 한국인에게 수업이나 실험과 관련하여 물어보았을 경우 거짓이나 아예 대답조차 들을 수 없다. 회식을 할 경우 음식선택에 결정권이 없으며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또한 기독교 학교에 다닐 경우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반드시 채플(chapel)에 참가하여 예배 및 기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저는 아니지만 친구가 2009년도(에 한국에 왔었어요). 여기는 외국 사람이 안 많으니까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이 한국음식 못 먹는데 한국 사람이 먹을 때는 한국 레스토랑 가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못 먹고 물만 먹어요. 인도 사람이 고기 못 먹는데, 채식주의자인데 먹으라고 또 술도 못 먹는데 교수님이 자꾸 먹으라고 하고 계속 먹으라고 해서 한번 먹고 정신 잃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는, 여기 고기는 할랄고기 아닌데 치킨도 못 먹는데 교수님이 먹으라고 하니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지만, 제 친구가 힘들어했는데 한국사람 안 도와줘서. 저는 외국인 친구가 있으니까. 랩실장이 베트남 친구여서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학기에는 베트남에 돌아갈 거라서 힘들 거예요. 다음 랩실장은 한국인인데 너무 엄격해서 매우 힘들 거예요. (중략) 제 친구는 여기서 힘들어 했어요. 인종차별 때문에. 예를 들어 실험할 때 모르는 거 물어보면 거짓말해요. 그래서 결국 돌아갔어요. 가면서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Don't trust people). 저도 힘들었어요. (또 다른 한국인)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예요. 제 몸을 더듬기도 했고 그래서 가족 보고 싶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원룸에 살 때도 제 옷을 도둑맞기도 했어요. 실험실에서도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힘들어요. 혼자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고 사원에 가고 친구도 만들고 베트남인이나 인도인이랑 집에 가고 객사에도 가고 전북대 구정문 앞 거리에도 가요. 랩실 막내 한국인하고도 가요. 같은 막내니까(야스민, 20대 여성, 학생).

왜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처음 보면 불친절해요? 제가 수업을 받을 때 한국 친구들하고 이야기 하고 싶으면 먼저 물어봐야 해요. 제가 물어봐도 (수업과 관련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교환학생들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인 친구가) 없고 길을 물어보면 한국어로 물어보더라도 잘 (알려주지 않아요). (중략) 이슬람 사람이라고 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물어봐요. 왜 히잡은 쓰니, 한번만 써보면 안 되니, 벗기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친구들은 왜 안 먹냐고 돼지한테 예배드리냐고. 힌두교에서 소처럼.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면 저는 왜 히잡 안 쓰고 나빌라는 히잡 쓰냐고. 저는 그러면 나중에 쓸 거라고. 히잡 쓸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일 찾을 때 가끔 히잡 쓰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명절이나 사원에 갈 때만 써요. 나중에 결혼하면 쓸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제 친구는 (돼지고기 먹기를 강요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라 채플을 해요(나디아, 20대 여성, 학생).

이들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부당하게 여기면서도 외국인 학생이라는 신분 하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못 한다. 단지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들끼리 고충에 대해 토로하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이를 버티고 학년이 올라가 후배가 생기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면 그때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외국인 인식구조는 피부와 체형 등 생물학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되며 한국인에 비해 피부가 보다 검고 체형이 작은 비서구인의 특징 중 특히 유색인종의 경우 열등한 인종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따라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들은 단순노동과 한국인을 보조하는 주변적인 일을 하게 되면서 노동의 구조에서도 낮은 위치를 차지한다. 열등한 인종, 노동구조 속 낮은 위치는 사회적인 계급에서도 낮은 위치를 주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결국 최하위의 위계에 속하게 된다. (유명기, 1995; 함한희, 1995).

최하위의 위계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그들과 함께 온 가족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외관상 한국인과 다르기에, 유색인종은 전근대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상호간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현재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이주민들이 수가 더 늘어날수록, 특히 제 3 세계에서 오는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심화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

VI. 결론

9.11테러 이후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라

는 담론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한 대상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다. 다문화주의 속에서 여러 다른 문화들을 인정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이주민들의 문화적 배경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종교 역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주 무슬림은 엄격한 종교교리와 절제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종교적 토양이 다른 한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이를 절충하여 적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이주 무슬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슬람과 이주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근대 한국 이슬람의 역사와 더불어 전주 성원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주 성원의 개원은 한국 이슬람이 부흥하던 시기와 때를 같이 한다. 당시 이맘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이주 무슬림이 없이 한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서울, 부산 등 타 지역 성원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였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해지고 이후 신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쇠퇴기를 겪게 된다. 그러던 중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이주 노동자,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전주 성원 구성원이 이주 무슬림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이슬람 성원들이 비슷하게 겪은 일로 이주 무슬림의 등장으로 인하여 성원의 역할이 이슬람 신앙을 공고히 하는 것 외에도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기제로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커졌다.

또한 무슬림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이자 종교적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을 살펴보았다. 이슬람에서 예배는 아침에 눈을 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매일 같이 해야 하는 일상적인 의무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무슬림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스스로 재인식한다. 또한 특히 금요합동예배를 통해 인근 무슬림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성원에 모임으로써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사회적 연결망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슬람 공동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비이슬람국가인 한국의 현실 상 하루에 5번이라는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없으며 금요일 역시 성원에 갈 수 있는 시간조차 내기 버거워 한다. 이는 비단 이주 무슬림뿐만 아니라 한국인 무슬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려움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종교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개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기에 내면의 믿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타협점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라마단의 단식을 지키고 성원을 중심으로 각종 종교적 명절을 보내고 코란 공부 모임을 조직하고 다위를 통해 이슬람과 관련된 지식과 교리 등을 나누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 무슬림들은 지속적

으로 이슬람적 정체성을 인식하고자 하며 이슬람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공동체 즉 일체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원을 매개로 하는 무슬림들간의 관계망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슬람 성원은 종교공간이기에 표면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이를 중심으로 할랄 음식을 구하고 향후 주택을 보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전주 성원 무슬림의 수가 많지 않지만 차후 무슬림의 수가 증가된다면 여타의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이주 무슬림간의 관계 및 한국인 무슬림과의 관계망이 형성되면서 집 구하기, 할랄 음식 구매,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서로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 도움을 주는 교류를 통해 이주 무슬림들은 이주자로서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이슬람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얻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이슬람을 표방하면서도 각 국적별, 민족별 모임을 형성하는 움직임도 있기에 향후 전주 성원에서도 소규모 무슬림 공동체 분화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시선, 개신교의 포교, 직장 및 학교 등 한국인과 한국사회와 맺는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아직까지 이슬람은 테러와 여성억압 등 부정적 시선이나 언론 매체에서나 등장하는, 낯선 종교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이주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 등 부정적 질문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하는 편인데 한편으로 이는 출신 국가나 인종적인 측면과도 맞닿아 있다. 외양적인 모습에 따라 아랍 지역 출신인 경우 탈레반이나 테러리스트라는 질문을 종종 받지만 여타 지역 출신의 경우 예배나 종교적 금기 등 이슬람 자체에 관련한 질문이 중심인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개신교 신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빌미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선교를 하면서 이로 인해 주변 개신교 신자들과 멀어지고 낯선 이와 접촉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맺는 관계에서는 인종, 위계질서 속 낮은 위치와 관련된 시선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주 무슬림들 역시 차별을 받았을 때 무슬림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주자, 유색인종이어서 차별을 받는다고 여기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관련 논의 중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새로운 연구주제로 살펴보았다는 점, 한국사회의 담론 속에서 이주 무슬림들의 적응과정 중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을 이해하는데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주 무슬림은 한국사회에서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엄격히 종교교리를 지키지 못 한다 하여도 그 안에서 스스로 무슬림적 정체

성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성원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종교공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슬람을 강조하여 이주 무슬림에게 동질감 및 일체감을 주었다. 또한 성원을 매개로 하여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을 토대로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적응하는 데 있어서 받을 갈등과 혼란에 대해 심리적 완충제의 역할을 하면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기능도 한다.

전세계적으로 해외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점차 무슬림들의 한국 내 이주가 많아질 여지가 있다. 또한 서유럽에서 이주 무슬림과 이주사회가 갈등을 빚고 사회불안의 요소로 작용하는 모습을 볼 때 오늘날 한국사회의 이주현실을 짚어보는 점은 향후 우리의 대처방안까지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곽원섭. 2007.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 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구재익. 2003. “이슬람 문화와 선교전략”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경학. 2003. “인도 이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정체성 문제: 호주 휘지계 인도 무슬림 사회의 구성과 그 전망.” 《인도연구》 8(2): 1-30.
- _____. 2004. “이주와 종교적 공동체: 호주의 휘지계 인도인의 라마얀 만들리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8(4): 1-31.
- 김대성. 2008. “한국사회 내 터키인 무슬림 이주자의 현황 및 사회적 조직.”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 27-64.
- _____. 2009. “한국사회 이주 비아랍국민(터키인과 이란인)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28(1): 1-39.
- _____. 2010. “이주 무슬림 2세-코슬림의 생활세계와 종교적 정체성: 인도네시아 이주 무슬림 2세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20(3): 69-97.
- 김선임. 2010.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형성과정: 해회동공동체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14: 45-82.
- 김수재. 2006.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갈등과 적응전략: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내의 인도네시아 노동자 사례.” 목포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일수. 1990. 『뉴욕한인사회』. 로출판.
- 김준환. 2010. “한국 내 이주무슬림의 종교와 문화변역: 파키스탄 이주노동자를 중심으

- 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2008. “한국이주 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집단화: 남아시아 무슬림의 에스닉 집단화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3): 105-146.
- _____. 2009. “한국이주 남아시아 남성 무슬림 근로자의 문화적응모델 연구: 혼인을 통한 문화정체성 형성의 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9(2): 113-137.
- 백광현. 2008. “이슬람 바로 알기: 한국을 공략하는 이슬람의 포교정책.” 《활천》 6: 24-29.
- 설병수. 2001. “해외 이민의 명암: 호주 내 한인들의 이민동기와 실제생활.” 《재외한민 연구》 11(1): 57-98.
- 송도영. 2007. “종교와 음식을 통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네트워크: 이태원 지역 이슬람 음식점들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3(1): 98-136.
- _____. 2011. “한국 내 이슬람(할랄)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중동학회논총》 32(1): 217-249.
- 송영신. 2003. “외국인노동자 선교 실제에 대한 연구: 무슬림 노동자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윤환. 1996.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종교: 적응과 변용.” 《동아연구》 32: 67-104.
- 안신. 2008. “이슬람 다의와 기독교 선교에 대한 비교 연구: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0: 219-245.
- _____. 2009. “영국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9(2): 139-158.
- 안정국. 2008. “한국 이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사회적 연결망.” 《한국중동학회논총》 29(1): 67-91.
- _____. 2009. “한국 이주 인도네시아 여성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 30(1): 217-256.
- 양승운 외. 2007. 『동남아의 이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양철준. 2006. “뱅크버 편집 시크교공동체의 언어와 정체성: 모어 보존과 세대 간 전승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4): 153-191.
- 유달승. 2001. “이달의 세계축제: 동양. 라마단(Ramadan)축제.” 《국제지역정보》 5(10): 60-63.
- 유명기. 1995. “재한 외국인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1): 145-181.
- 유왕중 외. 2010. “남아시아 출신 코슬림(Koslim)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29(1): 151-186.
- 이준호. 2004. “외국인 고용 허가제 시행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전략 고찰: 재한 방글라데시 근로자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선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철용. 2007. “독일의 ‘문화전쟁’과 이민자 문제.” 《한국사회과학논총》 17(1): 321-349.

- 이희수. 2001.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과제.” 《한국종교연구》 3: 113-137.
- _____. 2004. “미국 무슬림의 현황과 정체성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4(2): 1-25.
- _____. 2005. “9.11 이후 미국 무슬림들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15(1): 81-105.
- 이희수 외. 2008. “서울 이태원동 일대의 이슬람 타운화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2): 47-85.
- 정수일. 2003. “한국과 이슬람세계의 만남.” 《인문과학》 85: 241-244.
- 정원식. 2009. “재한 파키스탄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략.” 총신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효진. 2003. “호주 한인교회와 이민자들의 사회 문화적 적응: 시드니 ‘S’ 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희선. 2008. “한국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 《한국중동학회논총》 29(1): 31-66.
- _____. 2009.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0(1): 169-215.
- 조희선 외. 2008a.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연구.”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18(1): 169-198.
- _____. 2008b.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유입, 적응, 사회적 네트 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27(2): 81-124.
- _____. 2009. “한국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연구.” 《사중해지역연구》 11(3): 79-115.
- 최영길. 1997. “이슬람에서 허용된 음식과 금지된 음식.” 《인문과학연구논총》 16: 299-317.
- _____. 2000. 『라마단(하나님과 교화하는 달)』. 도서출판 알림.
- _____. 역. 2001. 『꾸란: 의미 번역, 한국어』.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 최혜린. 2010. “한국 이주 무슬림의 어려움과 적응 양상.” 기간행보고서.
- 한국이슬람연구회. 2004. 『이슬람에 있어서의 단식: Fasting in ISLAM』. 한국이슬람교중앙회.
-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각 호. 《주간무슬림》.
- _____. 2002. 『초보자를 위한 이슬람 바로 알기』. 한국이슬람교중앙회.
- _____. 2006. 『이슬람은?: What is Islam?』. 한국이슬람교중앙회.
- _____. 2006. 『예배 입문: Guide to Prayer』. 한국이슬람교중앙회.
- _____. 2008. 『라마단과 단식: RAMADAN&FASTING』. 한국이슬람교중앙회.
-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28(1): 199-221.
- 황병하. 2008. “무슬림의 한국문화수용 정도와 향후 과제 연구: 이슬람권 유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1): 139-167.
- _____. 2009. “초기 이슬람 역사의 도시형성에서 모스크의 역할.”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9(2): 203-234.
- _____. 2010. “아랍이슬람권 이주민의 문화접변 양상 연구: 광주지역 유학생을 중심으로

로.” 《중동문제연구》 9(2): 79-125.

황의갑. 2008. “이슬람의 성지순례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1): 33-52.

홍승표. 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Elkhazindar, Fouad Abd El-Salam. 1985. “이슬람의 한국 전파와 韓國의 무슬림의 실태 조사: 서울 부산 광주(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민윤리학과 사회학전공 석사학위논문.

Ibrahim, I. A. 2003. 『이슬람의 이해를 돕는 간단한 삽화 안내서』. 한국이슬람교중앙회.

Musa, Tamer. 2006.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기: 한국 무슬림의 이슬람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5. 3. 접수; 2012. 5. 15. 수정; 2012. 5. 31. 채택)

Soci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Foreign Muslim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Mosque in Jeonju

Ye-Chan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Muslim immigrants in Jeonju area in order to find how immigrant Muslims have changed their religious life since their immigration to Korea and how they have adapted to Korean society while experiencing conflicts due to their religion. This study was also to discover how they form networks among Muslims themselves and relationships with Koreans as well as Korean society in the course of such adaptation. I believe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rom the points that the Islam has been studied as a new topic in the course of discussion related to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 The immigrant Muslims are adapting to Korean society in non-passive way, and they themselves continuously endeavor to sustain Islamic identity in their capacity even though they cannot strictly follow the religious creeds. Mosque has been not only a religious space to worship but also has enabled them to secure a sense of homogeneousness and oneness. Mosque serves to provide information on Korean society through the social networks established around mosque. In addition, it functions as an emotional buffer against conflicts and confusion, if any, experienced in the course of adaptation, providing feeling of psychological and mental stability.

key words: Islam, Muslim, Immigrant, Social Relationship, Multiculturalism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 (약칭: KIM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

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3. 감사 2인
 4. 이사: 당연직 이사 이외에 선임직 이사를 50인 이내로 하되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5. 상임이사: 20인 이내로 하되, 총무, 편집, 연구, 기획, 섭외, 국제,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전임 회장, 전임 부회장, 차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차기회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이 전임 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

- 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자가 차기 회장이 된다. 단, 제1차 투표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제1차 투표의 최고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표를 얻은 자로 정한다.
- ② 단일후보의 경우에는 가부투표를 실시하며, 총회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선출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제17조에 의한 연구회의 운영, 기타 학

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기획이사는 학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정책토론회 기획 및 개최, 국제세미나 개최,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⑦ 섭외이사는 회원유치,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뉴스레터 제작, 기타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⑧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⑨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제4장 조직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의 해산
 -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본 학회의 해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1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5. 회원에 대한 포상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상임이사회)

- ① 본 학회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상임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④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상임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3. 사업에 따른 수입금
 - 4.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 5. 본 학회의 기금
 - 6.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해산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장: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회칙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kimanet2007@gmail.com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

페이지(<http://www.kim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부	가, 부, 부
가, 가, 부분	가, 부분, 근본	가, 근본, 근본	부분, 부, 부
가, 가, 근본	부분, 부분, 부분	가, 근본, 부	근본, 부, 부
가, 가, 부	부분,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	부, 부,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계재가” 또는 “계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계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계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계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계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계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흔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한국이민학회 사무국’(kimanet2007@gmail.com)으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자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투고신청서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imanet.org>)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 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테르(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

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증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태.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化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ヨ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가치. pp. 289-314).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미간행).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썸마홀, 2006.5.19)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2권 제1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연구실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imanet2007@gmail.com

전화: (063) 270-2917

한국이민학 제3권 제1호

인쇄일: 2012년 6월 30일

발행일: 2012년 6월 30일

발행인: 한경구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인쇄처: 도서출판 기쁨사

전화: (031) 889-4451

팩스: (031) 889-4452

ISSN 2093-6044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3 No.1 2012

Articles

Determinants of Multicultural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_____

■ Yang-Hwa Jung

Stres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_____

■ Mihee Ban, Seokho Kim, and Jungwhan Lee

Social Relationship and Adaptation Process of the Foreign Muslim in Korea:

A Case Study of the Mosque in Jeonju _____

■ Ye-Chan Kim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Association